

사용으로서의 의미와  
브랜드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

2006년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석 기 용

사용으로서의 의미와  
브랜드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

지도교수 엄 정 식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7월 일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석 기 용

# 논 문 인 준 서

석기용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7월

주심      강   영   안      ①인

부심      이   한   조      ①인

부심      정   대   현      ①인

부심      이   병   덕      ①인

부심      엄   정   식      ①인

## 감사의 글

철학 공부를 시작하고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드디어 부끄럽지만 하나의 작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감사드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나마의 결실마저 도저히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 이 논문을 지도해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껏 저의 공부 길을 늘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며 이끌어주신 엄정식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이하시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신 교수님의 앞날에 건강과 기쁨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의 논문을 기꺼이 심사해 주시고 값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한조 교수님, 정대현 교수님, 강영안 교수님, 그리고 이병덕 교수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 교수님들의 세심한 지적과 충고 덕분에 그나마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제가 용기를 잃지 않고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정인재 교수님과 박종대 교수님을 비롯한 서강대학교 철학과의 여러 교수님들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전 서강대학교에 들어와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마치고 졸업하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어렵고 끝도 잘 보이지 않던 기나긴 여로에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지성으로 늘 함께 해주신 셀 수 없이 많은 선후배님들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도움과 사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한이 없겠기에, 우선은 여기에 그분들의 존함만이라도 밝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임홍순 선배님, 김영건 선배님, 이태하 선배님, 박찬수 선배님, 류희성 선배님, 이병덕 선배님, 채이병 선배님, 신상규 선배님, 김완구 선배님, 정지욱 선배님, 서상복 선배님, 유원기 선배님, 이상헌 선배님, 이원봉 선배님 그리고 미처 여기에 일일이 언급하지 못한 수많은 선배님들과, 최복희 님, 이재춘 님, 이석호 님, 김성희 님, 최문석 님, 고세중 님, 신동현 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처 여기에 언급하지 못한 수많은 동학 후배님들이 제게 잊을 수 없는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크나큰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며, 앞으로 제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학문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가족들이 제게 보내 준 무조건적인 성원이 없었더라면, 저는 결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를 낳아 길러주시고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제는 연로하신 할머니님과 부모님, 제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주신 장인 장모님께 아직도 자식 된 도리를 아직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죄스러운 마음을 어찌 전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시어 저와 제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늘 곁에서 지켜봐주시기를 간청드릴 뿐입니다. 끝으로, 늘 저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사해주는 씩씩한 아들 창빈과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참고 인내하고 응원해준 사랑하는 나의 아내 윤은영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 목 차

|                              |    |
|------------------------------|----|
| 영문초록 .....                   | v  |
| 국문초록 .....                   | ix |
| 서 론 .....                    | 1  |
| I. 표상주의 의미 이론과 사용으로서의 의미     |    |
| 1. 들어가는 말.....               | 8  |
| 2. 표상주의 의미 이론의 프로그램.....     | 9  |
| 2-1. 표상주의의 일반적 규정            |    |
| 2-2. 진리, 지칭, 의미              |    |
| 2-3. ‘의미’를 해명하는 표상주의의 설명 전략  |    |
| 2-4. 표상주의 의미 이론의 의의          |    |
| 3. 표상주의 프로그램의 한계와 문제점.....   | 23 |
| 3-1. 형식적 의미론과 철학적 의미론        |    |
| 3-2. 표상주의 의미 이론과 지시적 관계 모형   |    |
| 3-3. ‘표상’ 개념의 애매성            |    |
| 4. 사용으로서의 의미.....            | 37 |
| 4-1. 브랜덤의 철학적 의미론            |    |
| 4-2.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론과 해석 이론 |    |
| 4-3. 비트겐슈타인과 사용으로서의 의미       |    |
| 5. 맺음말 .....                 | 52 |
| II.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배경      |    |
| 1. 들어가는 말 : 추론주의의 지형도.....   | 54 |

|                                         |     |
|-----------------------------------------|-----|
| 2. 추론주의의 이론적 배경 .....                   | 55  |
| 2-1. 인간 대 온도계                           |     |
| 2-2. 도구적 합리성 대 추론적 합리성                  |     |
| 2-3. 개념적 실재론 대 개념적 실행론                  |     |
| 2-4. 지향성 : 언어 대 마음                      |     |
| 2-5. 추론주의 설명 전략 : 전체론 · 하향식 대 원자론 · 상향식 |     |
| 3. 추론주의의 철학사적 배경 .....                  | 66  |
| 3-1.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     |
| 3-2. 칸트                                 |     |
| 3-3. 헤겔                                 |     |
| 4. 맺음말 .....                            | 76  |
|                                         |     |
| Ⅲ.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                      |     |
| 1. 들어가는 말.....                          | 78  |
| 2. 추론 .....                             | 79  |
| 2-1. 추론적 역할로서의 의미와 개념 전체론               |     |
| 2-2. 실질적 추론                             |     |
| 2-3. 소크라테스의 방법과 표현적 합리성                 |     |
| 2-4. 추론의 양면적 성격                         |     |
| 2-5. 강한 추론주의와 광의(廣義)의 추론적 명료성           |     |
| 2-6. 의미론과 화용론                           |     |
| 3. 규범성과 사회적 실행 .....                    | 96  |
| 3-1. 규범적 화용론의 요점                        |     |
| 3-2. 의무적 상태들 : 찬동과 권한                   |     |
| 3-3. 의무적 태도들 : 찬동의 귀속과 보증               |     |
| 3-4. 의무적 태도와 사회적 실행                     |     |
| 4. 추론, 규범성, 사회적 실행, 그리고 명제적 내용 .....    | 105 |

|                          |     |
|--------------------------|-----|
| 4-1. 언어적 실행과 공연          |     |
| 4-2. 공연과 추론              |     |
| 4-3. 권한의 구조와 입증          |     |
| 4-4. 언어게임의 의무적 점수기록 모형   |     |
| 4-5. 의무적 점수기록 모형의 특징     |     |
| 4-6. 의무적 점수기록 모형과 명제적 내용 |     |
| 4-7. 사회-관점적 성격으로서의 내용    |     |
| 5. 맺음말 .....             | 123 |

#### IV.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의의와 설명의 한계

|                                     |     |
|-------------------------------------|-----|
| 1. 들어가는 말.....                      | 125 |
| 2. 추론주의와 언어 조합성 .....               | 126 |
| 2-1. 대상, 생산성, 그리고 언어 조합성            |     |
| 2-2. 브랜덤의 설명 전략                     |     |
| 2-3. 증명                             |     |
| 2-4. 포더의 비판                         |     |
| 2-5. 문제의 해결                         |     |
| 3. 추론주의, 언어와 세계의 문제 .....           | 142 |
| 3-1. 의미론적 축소주의                      |     |
| 3-2. 반(反)실재론의 위협                    |     |
| 3-3. 지각과 추론                         |     |
| 3-4. 지각적 외재론, 의미론적 외재론, 그리고 사회적 외재론 |     |
| 4. 의미 전체론과 객관적 의사소통의 문제 .....       | 155 |
| 4-1. 전체론과 의미 불안정성                   |     |
| 4-2. 대안들                            |     |
| 4-3. 의미 불안정성의 해소                    |     |
| 4-4. 의사소통과 개념의 표상적 차원에 대한 해명        |     |

|                                 |     |
|---------------------------------|-----|
| 4-5. ‘추론-대체-대용어(ISA)’ 설명 방식     |     |
| 5. 규범의 원천과 의미 객관성의 문제 .....     | 171 |
| 5-1. 규범성에 대한 현상론적 접근 방식과 의미 객관성 |     |
| 5-2. 사회적 실행과 규범의 객관성            |     |
| 5-3. 규범의 객관성과 설명적 일관성           |     |
| 5-4. 설명의 한계와 문제점                |     |
| 6. 맺음말 .....                    | 185 |
| 결    론 .....                    | 186 |
| 참고문헌 .....                      | 190 |

## ABSTRACT

Suk Kiyong

Department of Philosophy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Brandom's inferential theory of meaning. Brandom states that the problem of what content linguistic expressions really have is primarily to be understood by means of how they are used practically. In this sense, he is following the line of the linguistic or semantic pragmatism pursuing the great insight, namely 'meaning as use', suggested by the later Wittgenstein.

The linguistic pragmatism based on 'meaning as use', however, has been doubted of the possibility of giving the objective meaning systematically for all linguistic expressions, because of the obscurity of the very notion of 'use' itself. But, Brandom states confidently that it is possible to make the linguistic pragmatism as more rigorous theory of meaning.

Firstly, Brandom insists that the meaning of a linguistic expression be explained, not by semantic vocabularies such as 'refer' and 'is true', or purely naturalistic ones such as those of physics, but by essentially normative ones. According to him, such a normativity cannot be reduced to the non-normative things, and is instituted only by another normative practices, that is, social practices. Brandom calls this kind of understanding normativity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norms.

According to Brandom, because norms are given by the individuals who take a certain stance to them, the question of what the implicit norms behind the linguistic practices are cannot be brought up independently with the question of what it is that the individuals endorse them through the specific practices. That

is to say that for someone to use a certain linguistic expression, he should be in a certain normative state to be able to decide whether his use is correct or not for himself, and such a normative state is instituted by the normative attitudes of the individuals who participate in conversation with him and then, acknowledge or attribute that state.

Then, what is the crucial link between the phenomenology of normativity and the specific meaning of linguistic expressions? According to Brandom, for social practices which is the ultimate source of the normativity to be understood as, so called, discursive practices concerning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 specific propositional contents, a proper apparatus should be provided necessarily. Brandom insists that such a propositional contentfulness be explained explicitly, not by the traditional semantic notion of representational relation between the language and the world, but by the concept of 'inference'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giving and asking for reasons) and inferential relations between linguistic expressions. Therefore, Brandom's main task is to provide the specific model of inferentially articulated discursive social practices of giving and asking for reasons which is enough to give propositional contents to the states, attitudes, performances and expressions in our social practices. In this regard, Brandom suggests the model of deontic scorekeeping.

Thus, the first task of this investigation is to examine how can Brandom's inferential theory of meaning be constructed systematically and successfully out of his fundamental notions such as 'normativity', 'social practice' and 'inferential articulation'.

The following task is to try to answer the question if Brandom's inferential theory of meaning can explain effectively some problems, such as the compositionality of linguistic expressions, the relation between the language and the world,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who have different background beliefs, and the problem of giving objective meanings for

the linguistic expressions, which have been discussed as significant and even fundamental by many theorists in semantics. Indeed, It seems that all of these problems stem out of the following fundamental question: Does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norms really give assurance to the objectivity of norms?

Basically, Brandom's solution is to elucidate the representational dimension of a concept in the framework of broadly inferential theory of meaning and make good use of it for those problems. Although the notion of representation does not play any part at the starting point in the construction of the theory of meaning, he admits that the notion should never be abandoned at all in the theory of meaning, *per se*. Brandom tries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norms and, thereof,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linguistic meaning by means of the explanatory power of phenomenology of normativity and the notion of the inferential articulations. And my examination shows that how far his solution can be successful.

In chapter I, I discussed the linguistic pragmatism as regards its basic claim that the use of linguistic expressions is far more important and fundamental than the representational property, and suggested consequently the reason why the correct theory of meaning should pursue the line of the linguistic pragmatism rather than representational theory of meaning.

In chapter II, I tried to outline an overall picture of Brandom's inferential theory of meaning in the following two ways. One is to place the position his theory really occupies in the contemporary philosophical landscape by showing contrasts between his strategic choices and opposing ones. The other is to trace back to the origin of Brandom's inferential theory of meaning in the early modern philosophy, especially philosophy of continental rationalists, Kant and Hegel.

In chapter III, I proceeded to grasp and present the core structure of

Brandom's inferential theory of meaning, basing my discussion on his three main notions like 'normativity', 'social practice' and 'inferential articulation', and I also present my evaluation of his theoretical construct concerning the normative fine structure of rationality.

In chapter IV, I examined Brandom's solutions for the important problems as mentioned above, and evaluated the explanatory powers of his solutions for those problems. Finally, on the basis of investigations so far, I concluded that Brandom's inferential theory of meaning has a better systematic structure as a theory among various approaches in the linguistic pragmatism, but that I have to reserve my subscription to his claim that the objectivity of meaning can be secured through his inferential theory of meaning.

본 논문의 목적은 로버트 브랜덤이 주장하는 이른바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브랜덤은 언어적 표현들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런 측면에서 그는 자신의 입장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용으로서의 의미’라는 언어관을 계승하는 언어적 혹은 의미론적 실행론으로 불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용으로서의 의미에서 출발하는 언어적 실행론은 그간 ‘사용’ 개념의 불명료성으로 인해서 이론적 체계화의 성공 여부와 의미 객관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러나 브랜덤은 이러한 언어적 실행론을 좀 더 엄격한 형태의 의미 이론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본 논문의 일차적인 과제는 이러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그가 시도한 체계적인 이론화 작업이 거둔 성과와 의의를 평가하는 것이다. 제 I 장에서는 먼저 예비적인 고찰로서 사용의 속성이 표상적인 속성보다 우선한다는 언어적 실행론의 근본적인 전제를 브랜덤의 논의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의미 이론이 전통적인 표상주의 의미 이론이 아닌 언어적 실행론의 노선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제 II 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예비적인 고찰로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전반적인 철학적 풍경 속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여줄 전체적인 지형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조망해 보았다. 그 하나는,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기본 전제들을 상호 대비되는 반대의 입장들과 비교함으로써,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횡적인 좌표를 가늠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철학사적 계보를 근대의 합리주의자들과 칸트, 헤겔을 중심으로 종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 III 장에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전체적인 골격을 본격적으로 재구성하여 그 이론적 체계화의 의의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규범성, 사회적 실행, 그리고 추론적 명료성이라는 세 개념이 그의 이론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조명하였다.

우선, ‘규범성’과 관련하여, 브랜덤은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지칭하다’와 ‘참이다’ 같은 의미론적인 어휘들이나 물리학의 용어들 같이 순수하게 자연주의적인 어휘들을 통해

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규범적인 어휘들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랜덤에 따르면, 그러한 규범성은 결코 비(非)규범적인 무언가로 환원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사회적 실행이라는 또 다른 규범적 활동을 통해서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브랜덤은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규범에 대한 현상론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부른다.

또한, ‘사회적 실행’과 관련해서, 브랜덤은 규범이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 주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 실행의 배후에 놓여 있는 암묵적인 규범들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실행 속에서 그러한 규범들을 승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과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곧 언어의 사용이란 언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언어 사용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규범적인 상태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규범적인 상태는 대화에 참여한 여타의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그러한 상태를 인정하고 귀속시키는 사회적 실행 속의 규범적인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범의 현상론과 언어적 표현의 구체적 의미를 연결시키는 결정적인 매개 고리는 무엇인가? 그 답이 바로 ‘추론적 명료성’이다. 브랜덤에 따르면, 언어 규범성의 궁극적 원천인 사회적 실행이 구체적인 명제적 내용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개념 사용적인 실행’으로 이해되려면 어떤 결정적인 장치가 반드시 제시되어야만 한다. 브랜덤은 그러한 명제적 내용성이 전통적인 의미 이론에서 주요한 기본 개념으로 채택되어온 표상 관계가 아닌, 추론 관계, 다시 말해, 추론적 명료성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브랜덤의 과제는 사회적 실행들 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태들, 태도들, 수행들, 그리고 표현들에 명제적인 내용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형태를 띤, 추론적으로 명료화된, 개념 사용적인 사회적 실행의 모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브랜덤은 이른바 ‘의무적 점수기록의 모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또 다른 과제는 이렇게 체계화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과연 일반적으로 의미 이론이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 V장에서, 언어 조합성의 문제, 언어와 세계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 의미 객관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실제로, 이 모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규범에 대한 브랜덤의 현상론적인 접근 방식은 규범의 객관성을 보

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브랜덤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넓은 의미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틀 안에서 개념의 표상적인 차원을 올바르게 해명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표상’이라는 개념은 의미 이론의 출발점이 될 수 없을 뿐이지, 결코 폐기해야 할 개념은 아니다. 브랜덤은 추론적 명료성과 규범적 현상론의 설명력으로 개념의 표상적인 차원을 해명하고, 그로부터 궁극적으로 규범의 객관성, 즉 의미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그러한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브랜덤의 해결책이, 특히 규범과 의미의 객관성 문제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자신이 약속했던 바와 달리 언어 사용자들의 규범적인 태도를 초월하는 차원의 절대적인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음을 논증하였다. 왜냐하면 브랜덤의 해결책인 개념의 표상적 차원 역시 결국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적 실행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그간 다소 모호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져 온 언어적 실행론을 상당한 수준의 체계적인 의미 이론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그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차원에서의 의미 객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운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론

본 논문의 전체적인 목적은 로버트 브랜덤(Robert Brandom)이 주장하는 이른바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우선, 브랜덤은 근본적으로 언어적인 표현들에 담겨 있는 내용(content)은 그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하며,<sup>1)</sup> 개념(concept)의 파악은 단어의 용법을 숙달하는 것<sup>2)</sup>으로 본다는 점에서 자신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언어적 혹은 의미론적 실행론<sup>3)</sup>(linguistic or semantic pragmatism)으로 불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브랜덤의 입장은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를 통해 주장한 소위 ‘사용으로서의 의미(meaning as use)’라는 언어관과, 단어의 의미를 그것의 개념적인 역할(conceptual role)로 이해하는 윌프리드 셀라스(Wilfrid Sellars)의 유사한 관점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언(asserting)의 특징들에 호소하여 공언된 것(asserted)을 설명하고, 주장(claiming)에 의해 주장된 것(claimed)을, 판단(judging)에 의해 판단된 것(judged)을, 그리고 믿음의 역할에 의해 믿은 것을 (그 뿐 아니라, 표현된 것을 그것을 표현하는 실행에 의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말해서, 내용(content)을 통해 실행(practice)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sup>4)</sup>

브랜덤은 이러한 언어적 실행론에서 의미란, ‘지칭하다’, ‘참이다’ 같은 의미론적인 어휘들이나 물리학의 용어들 같이 순수하게 자연주의적인 어휘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규범적인 어휘들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명제적이거나 그 밖의 다른 종류의 개념적인 내용을 부여하는 실행들은 어떻게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가, 어떤 상황 하에서 다양한 언어 행위들을 수행하든 것이 적합한가, 그리고 그러한 수행의 적합한 귀결은 무엇인가에 관한 규범을 암묵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이다.”<sup>5)</sup> 어떤 표

---

1) R. Brandom, *The Tales of Mighty Dead: Historical Essays in the Metaphysics of Intentionality*, p. 32. (이하 TMD)

2) R. Brandom, *Articulating Reasons: An Introduction to Inferentialism*, P. 6. (이하 AR)

3) 이 논문에서는 특정 시기의 철학 사조를 가리키는 용어로 굳어진 ‘실용주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물론 실용주의가 브랜덤의 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pragmatism’을 ‘실행론’으로 번역한다. 같은 맥락에서 ‘practice’ 또한 ‘실행’으로 번역한다.

4) AR, p. 4.

5) R. Brandom, *Making it Explicit: Reasoning, Representing, and Discursive Commitment*, Preface xiii.

현의 사용은 옳고 또 어떤 다른 표현의 사용은 그른 것이라는 주장이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표현을 골라 채택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규범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며, 그런 방식으로 규범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언어적 매개물들은 의미론적으로 병어리고, 활동성이 없고, 죽은 것이다.”<sup>6)</sup> 브랜덤은 언어적인 실행이 지닌 이러한 규범적인 차원은 언어 사용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원초적이거나 해명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브랜덤은 이러한 규범성을 비(非)규범적인 무언가로 환원시켜 설명하려는 일체를 시도를 거부하며, 그러한 언어적 규범들이 이른바 사회적 실행(social practice)을 통해서 성립된다고(instituted) 본다.<sup>7)</sup> 그렇지만 그러한 사회적 실행 자체는 또 다른 차원의 ‘규범적’ 활동이며, 그것은 곧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언어의 의미에 관해 무언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다시 규범적인 메타언어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브랜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규범으로(Norms all the way down)’라는 표어로 압축되는 규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넓은 의미에서 규범에 대한 현상론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부른다. 그는 규범이란 규범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 주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 실행의 배후에 놓여 있는 암묵적인 규범들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실행 속에서 그러한 규범들을 승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과 독립적으로는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9)</sup> 이것은 곧 언어의 적절한 사용이란 대화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언어 사용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이른바 찬동(commitment)과 권한(entitlement)이라는 규범적인 상태(normative status)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규범적인 상태는 대화 참가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거나(acknowledge) 귀속시키는(attribute) 사회적 실행 속에서 취하게 되는 이른바 규범적인 태도(normative attitude)에 의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는 어떤 언어적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지 해명할 수 없다. 그것은 곧 언어의 의미와 규범의 현상론을 연결시키는 결정적인 매개 고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언어 규범성의 궁극적 원천인 사회적

---

(이하 MIE)

6) MIE, p. 146

7) MIE, Preface xiii.

8) R. Brandom, “Replies”,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VII, No. 1, March, 1997, pp. 193-4.

9) MIE, p. 25.

실행이 구체적인 ‘개념 사용적인 실행(discursive practice)’으로 이해되려면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랜덤은 개념 사용적인 실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체적인 명제적 내용(propositional content)의 생산과 소비에 있으며, 그러한 명제적 내용성은 전통적인 의미 이론에서 주요한 기본 개념으로 채택되어온 표상(representation) 관계가 아닌, 추론(inference) 관계, 다시 말해, 추론적 명료성(inferential articulation)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론적 명료성이란 명제들이 추론의 전제와 결론들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즉, 이유들로서 그리고 이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0)</sup>… 추론을 기본 개념으로 채택하는 지금의 의미론적인 설명 전략은 표상을 기본 개념으로 채택하는,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지배적이었던 설명 전략과 대비되는 것이다.<sup>11)</sup>

따라서 브랜덤의 당면 과제는 사회적 실행들 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태들, 태도들, 수행들, 그리고 표현들에 대하여 명제적인 내용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형태를 띤, 추론적으로 명료화된, 개념 사용적인 사회적 실행의 모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브랜덤은 이유를 제공하고 추궁하는 추론적으로 명료화된 사회적 실행의 모형으로 의무적 점수기록(deontic scorekeeping)의 모형을 제안한다.

이로써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의 핵심적인 개념이 제시된 셈이다. 그것은 바로 **규범성**, **사회적 실행**, 그리고 **추론적 명료성**이다.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한계와 의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이론이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본 논문의 일차적인 과제는 바로 그것이 될 것이다.

한 편, ‘사용으로서의 의미’에서 출발하는 언어적 실행론은 그간 바로 그 ‘사용’ 개념의 불명료성으로 인해 이론적 체계화의 성공 여부와 의미 객관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명제적 내용, 간단히 말해서 의미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원천을 추론적으로 명료화된 사회적 실행에서 구하고자 하는 브랜덤의 설명 전략 또한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분명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이를테면,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개

---

10) MIE, Preface xiv.

11) MIE, Preface xvi.

념의 표상적인 차원에 우선적으로 호소하지 않고도 특정한 언어 L의 모든 적형식 문장 (well-formed sentence) s에 대해 ‘s는 (L에서) p를 의미한다.’와 같은 형태의 정리 (theorem)를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가?<sup>12)</sup> 이 문제는 추론의 근본 단위가 문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해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한한 수의 적형식 문장들을 다룰 수 있으려면 결국은 추론의 단위가 될 수 없는 문장의 하부 구조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문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사용의 규범성이 궁극적으로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적 실행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우리의 언어 사용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양상과는 어떻게 관계 맺게 되는 것인가? 한편, 추론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그러한 추론적 관계를 적용하는 사용자들 각자의 규범적 태도에 달려 있다면, 그런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무언가 공통적인 것을 매개로 상호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이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근본적인 의문은 아마도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명제적 내용의 제공자인 규범의 원천을 사회적인 실행들에서 구하고, 동시에 그러한 실행들 역시 또 다른 차원의 규범적인 활동임을 인정하는 이른바 규범의 현상론을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규범의 객관성, 더 나아가 의미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브랜덤은 자신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이러한 문제들에 효과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브랜덤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넓은 의미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틀 안에서 개념의 표상적인 차원을 올바르게 해명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표상’ 개념은 의미론적인 설명의 출발점이 될 수 없을 뿐이며, 결코 폐기해야 할 개념은 아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추론적 명료성과 규범적 현상론의 설명력으로 개념의 표상적인 차원을 해명하고, 그로부터 궁극적으로 규범의 객관성, 즉 의미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설명 전략이다.

근본적이면서 명시적으로 표상적인 어구들에 의해 표현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설명은 개념의 객관성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 설명은 사회적인 점수기

12) 적절한 의미 이론이라면, 탐구의 대상이 되는 언어의 유의미한 모든 표현들에 의미를 제공하는 일종의 정리들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산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은 데이빗슨이 자신의 진리 조건적 의미론을 구성할 때 출발점으로 삼았던 의미 이론의 적절성 조건이다. (D. Davidson, ‘Truth and Meaning’ in *Inquiries into Truth & Interpretation*, pp. 22-23) 이것을 흔히 외연적 적절성(extensional adequacy) 조건이라고 부른다. (A. Miller, *Philosophy of Language*, p. 247)

록의 실행들이 객관적인 규범을 설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특정한 유형의 추론적 구조를 상술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개념 적용의 흐름은 언어 공동체 안의 누구라도(실제로 모두가) 그것에 관해 틀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에 관한 사실에 부합한다.<sup>13)</sup>

본 논문의 두 번째 목표는 중요한 의미론적 사실들에 관련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브랜덤의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위에 제시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물론 위에 언급된 문제들이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브랜덤 자신도 인정하는 바처럼, 그것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들임에는 틀림없다), 최종적으로 브랜덤이 약속한 의미 객관성의 문제가 그의 주장대로 만족스럽게 해명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제 I 장에서는, 예비적인 고찰로서 사용의 속성이 표상적인 속성보다 우선한다는 언어적 실행론의 근본 주장을 브랜덤의 논의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브랜덤이 비판하는 표상주의 의미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런 입장의 이론적 강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그런 다음 언어적 실행론의 관점에서 표상주의 의미 이론의 핵심 개념들, 이를테면, 지칭, 진리, 그리고 진리 조건 등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올바른 의미 이론이 근본적으로 언어적 실행론의 노선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제 II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고찰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의 입장이 전반적인 철학적 풍경 속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전체적인 지형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브랜덤이 자신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기본 전제로서 어떠한 입장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상호 대비되는 반대의 입장들과 비교함으로써,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횡적인 좌표가 무엇인지 가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근대 철학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철학사적 계보를 근대의 합리주의자들, 칸트, 헤겔을 중심으로 종적으로 추적해 보는 것이다. 특히 브랜덤은

---

13) MIE, Preface xvii.

자신의 입장이 소위 언어적 전회 이전의 근대철학의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적인 철학적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계보학적인 이해는 그의 의미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련의 구획 정리를 통해서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근원적으로 어떤 전제와 노선에 호소하고 있는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제 III장과 IV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다룰 것이다. 그의 이론은 대단히 방대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장황하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돈하고 체계화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렇지만 아마도 브랜덤이 주장하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전반적인 개요는 다음의 세 문장으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 ① 언어적 표현의 의미, 즉 개념적 내용은 언어적 실행 속에서 그런 표현들이 수행하는 추론적 역할이며 우리의 언어 사용은 그러한 추론적 역할의 숙달에 달린 문제이다.
- ② 언어적 표현의 추론적 역할은 실제적인 언어 행위의 적절성을 제공하는, 추론적으로 명료화된 사회적 실행 속에 내재한 규범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 ③ 의미 혹은 내용의 객관성 문제를 포함하여,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갖는 중요한 사실들은 ①과 ②를 통해 모두(적어도 대부분) 해명될 수 있다.

먼저 III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브랜덤이 ①과 ②를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지 앞에서 언급했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핵심 개념인 ‘추론’, ‘규범성’, 그리고 ‘사회적 실행’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의 전체적인 골격을 재구성하고 그 의의를 고찰할 것이다.

그다음 제 IV장에서는, 남은 과제인 ③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결국 ③을 입증하는 과제는 그의 이론이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객관적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이론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다음 네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언어 조합성의 문제, 언어와 세계의 문제, 객관적 의사소통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범 객관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들은 ‘사용으로서의 의미’라는 표어에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결 같이 제기하는 언어적 실행론의 난제들

이다. 특히 마지막의 규범 객관성 문제는 브랜덤의 전체 기획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간주될 수 있을만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과연 이런 문제들이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얼마나 적절히 해명되고 있는지 다양한 비판적 논의와 함께 그 이론적인 설득력과 한계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거둔 성과와 의의를 평가하고, 그가 해결하지 못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아울러 생각해볼 것이다.

## I. 표상주의 의미 이론과 사용으로서의 의미

### 1. 들어가는 말

언어의 의미에 관한 두 개의 상반된 직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자. 건물 2층에서 공사를 하던 십장이 아래에 있는 짐꾼에게 “벽돌!”이라고 외쳤을 경우를 한 번 가정해 보자. 이 때 그 십장이 내뱉은 ‘벽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단지 저쪽에 쌓여 있는 벽돌더미를 지시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벽돌!’의 의미는 분명히 그 벽돌을 가지고 위로 올라오라는 뜻을 담고 있을 것이다. 분명 그 단어의 의미는 그 말을 전달한 언어 사용자의 특정한 지향적 상태, 그리고 그 사람과 그 말을 수신한 상대방 언어 사용자 사이의 사회적 실행들 속에 성립되는 일종의 규범적 성격을 통해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밑에 있던 짐꾼이 ‘벽돌’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 단어로 실제의 벽돌을 가리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는 셈이다. 이 점은 사용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분명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임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지금 설명한 그 모든 과정에 ‘벽돌’이 벽돌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십장과 짐꾼 사이의 의사소통은 가능했을 것인가? 만약 십장이 “벽돌!”이라고 고함쳤는데, 아래 있던 짐꾼이 기와를 지고 올라왔다면, 분명 둘 사이의 의사소통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벽돌!”이라는 발화가 ‘벽돌을 가져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벽돌을 조심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는 끝말잇기 놀이 중에 누군가가 답으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사용들(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 상황들)에 어떤 공통적인 구조 혹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벽돌’이라는 단어에 관한 각각의 상황이 그 나름의 맥락에서 그 나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벽돌’이라는 단어가 언어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사전적 혹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literal meaning)’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어가 그러한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들은 그 단어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런 언어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sup>14)</sup> 그러한

---

14) M. Platt, *Ways of Meaning*, p. 2. “이 책의 애초의 가정은 언어적인 이해를 납득 가능하게 만들에 있

단어의 사전적 의미 자체가 그 단어의 사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의 선후 관계를 뒤집는 꼴이며, 어떤 언어적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던 간에 그 표현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전적 의미는 대체로 그 단어와 대상 간의 표상적인 관계(이를테면, 지시 관계)에 의해서 확보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역시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며, 오히려 전자의 설명보다 더 우리의 일상의 직관에 잘 부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의미 이론의 전통에서 이러한 입장은 주류적인 견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15)</sup>

실제로 데카르트가 ‘표상하는 실체(즉, 마음)’와 ‘표상되는 실체(즉, 물질)’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세계를 구분한 이후로 지금까지 사유의 지향성이 지닌 의미론적인 내용의 차원을 논의하기 위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전형적으로 채택되는 이론적 용어들 중에서 ‘표상’이 그 핵심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sup>16)</sup> 이번 장에서는 현대 영미 언어철학에서 의미 이론의 주도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는 표상주의 의미 이론<sup>17)</sup>에 비해서 언어 사용 이론은 어떤 이론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먼저 표상주의 의미 이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기반을 둔 대표적 의미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을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결함을 갖고 있는지 브랜덤의 논의를 중심으로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언어 사용 이론은 어떤 이론적 강점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 ‘추론’과 같은 결정적인 장치가 도입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함께 검토해볼 것이다.

## 2. 표상주의 의미 이론의 프로그램

### 2-1. 표상주의의 일반적 성격

통칭 ‘표상주의 의미 이론(representationalism)’으로 불리는 입장은 여러 가지 다양

---

어서 ‘문장이 갖는 엄격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strict and literal meaning of a sentence)’라는 개념이 중점적인,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것이다.”

15) M. Devitt, *Coming to Our Senses*, p. 1 “의미론이 진리와 지칭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16) MIE, p. 279.

17) Platt, *loc. cit.* “비교적 최근의 의미론의 역사에서 거듭 등장하는 생각은 한 문장의 의미는 그것이 참이 되는 조건을 진술함으로써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형들이 존재하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히 담고 있다고 정의될 수 있다.

(표상주의란) 의미가 전적으로 표상적인 속성들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한 언어적 표현이 갖는 표상적인 속성들이란 그 표현이 무엇을 표상하는지 결정함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속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한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의 진리 조건들을 결정하는 속성들에 의해 남김없이 구명(究明)된다. 그리고 한 단어의 의미는 그것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속성들에 의해서 남김없이 구명된다.<sup>18)</sup>

문장은 그것을 참으로 만들어 줄 상황을 표상한다. 그러므로 표상주의적인 의미론을 추구할 때 우리는 “문장의 의미는 그것의 진리 조건이다.”라는 표어의 정신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셈이다. 즉, 우리는 진리 조건적 의미론을 추구한다.<sup>19)</sup>

진리-조건의 이론은 의미를 표상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의미를 문장과 현실적인 혹은 가능한 사태들 간의 반영(mirroring) 혹은 대응으로 보는 지칭 이론의 생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진리 정의는 어휘들과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지시하는 것 즉 외연 간의 지칭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진리-조건 이론가들은 자연의 반영이라는 과제, 문제의 목표 문장이 그리는 혹은 표상하는 현실적인 혹은 가능한 사태가 무엇인지를 묻는 과제로 회귀한다.<sup>20)</sup>

(대조적으로) 표상주의는 지시적 패러다임, 즉, 이름과 그것의 담지자 간의 관계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방향을 추구하는 한 가지 표준적인 방식에

---

18) Devitt, *op. cit.* p. 128. 그러면서 데비트는 인용문 중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에다 주석을 달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붙인다. “꼭 그렇지는 않다. 한 문장은 그것을 참으로 만들고 그것에 동의하게 만들고 하는 등등의 어떤 상황을 표상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 상황이 행해진다거나, 그렇게 야기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등등을 주장한다. 즉 문장은 ‘힘(force)’을 갖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힘들을 무시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표상주의자들은 대체로 문장이 갖는 소위 ‘힘’과 같은 요소들은 그 문장이 갖고 있는 표상적인 의미에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 Devitt, *op. cit.* p. 139.

20) W. Lycan, *Philosophy of Language*, p. 136.

따르면, 우리는 그로써 사태(states of affair)와 같은 특별한 존재론적 범주를 도입해야만 한다. 그것은 대상들이 단칭 명사들에 의해 표상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어떤 방식으로 서술문에 의해서 표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sup>21)</sup>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표상주의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입각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미 이론들을 여러 철학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구현된 고전적인 형태로서 영국 경험론자인 로크(Locke)의 언어 이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언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감각적 표상 즉 관념(idea)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경우에 단어들은 각기 다른 언어적 표현들과 독립적으로 나름의 고유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그러한 단어들의 조합을 통해서 문장이 생성되며, 따라서 문장의 의미는 오로지 그것의 구성 요소들에 의존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언어적 전회 이후에 등장한 많은 현대 언어 철학자들 가운데(언급된 모두를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논고』의 비트겐슈타인<sup>22)</sup>, 「뜻과 지시체」를 쓴 무렵의 후기 프레게(Frege)<sup>23)</sup>, 카르납(Carnap)<sup>24)</sup>, 데이빗슨<sup>25)</sup>, 크립키(Kripke)<sup>26)</sup>, 포더(Fodor)와 르

21) AR, p. 14

22) “4.021. 명제는 현실의 그림이다. 왜냐하면 내가 명제를 이해한다면, 나는 그 명제에 의해 묘사된 상황을 알기 때문이다.……4.024. 한 명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명제가 참이라면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안다는 것을 뜻한다.……명제는 그 구성요소들이 이해된다면 이해된다.” (L.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p. 67)

23) 프레게 해석과 관련된 논의는 브랜덤과 맥도웰 사이에 논쟁을 촉발시킨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프레게의 초창기 이론이 브랜덤의 해석에 따르면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 매우 중요한 이론적 권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24) “한 문장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가능한 경우들 중에 어떤 경우가 참이 되고 어떤 경우가 거짓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다.” (R. Carnap, *Meaning & Necessity*, p. 10, Platt, *op. cit.* p. 3에서 재인용)

25) 물론, 데이빗슨의 입장을 단순히 표상주의 의미 이론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의 입장은 실제로 매우 미묘한 측면을 갖는다. 왜냐하면, 첫째, 그가 진리 조건적 의미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때에도 그의 주된 관심은 분명 해석(interpretation)의 문제에 놓여 있기 때문이며, 둘째, 그는 진리의 개념을 의미를 해명하는 결정적인 개념으로 채택하고 문장의 의미란 그 문장이 참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이해함으로써 확보하게 된다는 전형적인 표상주의적인 의미 이론을 주장하지만, 표상주의의 또 다른 전통적인 개념들인 대응, 지칭, 그리고 더 나아가 아예 표상 그 자체의 개념을 모두 포기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종의 전체주의적 접근 방식을 옹호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인 언어 이론의 기초로서 지칭의 개념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촉구한다.” (Davidson, ‘Reality without Reference’, in *Inquiries into Truth & Interpretations*, p. 221.) “믿음은 참이거나 거짓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 것도 표상하지 않는다. 표상을 제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진리 대응설도 함께 없애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를 상대주의의 암시라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표상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avidson, ‘The Myth of the Subjective’, in *Subjective, Intersubjective, Objective*, p. 46.)

포어(LePore)<sup>27)</sup> 등이, 대략적으로 말해서, 위에서 규정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의 다양한 형태의 표상주의 의미 이론을 구성하였거나 그에 동조적인, 혹은 양립 가능한 입장을 취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2. 진리, 지칭, 의미

앞 절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표상주의적인 노선을 따르는 의미론자들은 어떤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그 문장이 참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그 문장의 진리 조건이라는 생각이 직관적인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세계 내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성립되면 참이 되고, 그런 상황이 성립되지 않으면 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이야말로 그 문장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측면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의 의미를 진리 조건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우선 설득력 있는 진리 이론과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테비트에 따르면, 그러한 “진리 이론은 분해적(decompositional)이어야 한다. 즉, 문장의 진리 조건은 그 문장의 구성 요소들의 함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8)</sup> 그 이유는 진리 이론이 언어의 의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우리 언어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질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성질이란 바로 한정된 어휘들을 가지고 무한한 수의 새로운 문장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언어의 생산성이다. 원리상 문장의 수가 무한하다고 할 때, 만일 각 문장의 진리 조건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

26) “우리는 데이빗슨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가설적인 사태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한 사태/상황/조건들’을 크립키의 가능 세계로 생각해볼 수 있다.……대충 말하자면, 한 문장의 진리 조건을 간단하게 그것이 참이 되는 세계들의 집합이 된다고 하자. 물론 진리 조건 이론가들에게는 세계들의 집합이 또한 그 문장의 의미가 될 것이다.” (Lycan, *op. cit.* p. 151.)

27) “우리의 논증의 노선은 심적 표상과 언어적인 의미는 사실상 조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X들이 조합성이 성립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념들(단어의 의미들)이 X들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론을 그 즉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J. Fodor, J. & E. LePore, ‘Geographical Introduction’, in *The Compositionality Papers*, p. 3.) “조합성은 어떤 표상 체계가 원초적 기호들과 구문론적으로 그리고 의미론적으로 복잡한 기호들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리고 후자가 전자로부터 구문론적/의미론적 속성들을 전수받을 때, 그 체계가 갖는 속성이다.” (ibid. p. 1.) “조합성은 협상 불가능한 조건이다.” (Fodor, & LePore, ‘Why Meaning (Probably) Isn't Conceptual Role’, in *The Compositionality Papers*, p. 25.)

28) M. Devitt & K. Sterelny, *Language & Reality: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nguage*, p. 17.

법을 갖고 있지 않다면, 결국 이론상 그 언어에 통달하는 일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문장의 진리 조건은 한정된 수의 구문론적 구조와 그 구조를 채우게 될 한정된 수의 구성 요소들에 의존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란 결국은 단어들이며, 구문론적인 구조는 그러한 단어들을 배열하는 순서가 될 것이다. 단어는 문장의 진리 조건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단어의 어떤 측면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가? “명백한 답변은 바로 단어의 지시체이다.”<sup>29)</sup> 그리고 단어의 지시적인 측면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순신은 용감하다”라는 문장의 진리 조건을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이순신은 용감하다’는 참이다, if and only if(이하 iff) ‘이순신’이 지시하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고, ‘용감하다’는 바로 그 대상에 적용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장 차원에서의 진리 조건적인 의미 이론과 단어들에 관련된 지칭 이론과의 관계는 분명하다. 문장의 구문론적인 구조적 측면을 일단 논외로 한다면, 문장의 진리 조건은 부분적으로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지시 관계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진리 조건을 통해서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라면 설득력 있는 지칭 이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3. ‘의미’를 해명하는 표상주의의 설명 전략

브랜덤은 이러한 표상주의 의미 이론이 언어의 의미를 탐구해 나가는 전형적인 설명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심적인 혹은 언어적인 어떤 것과 대체로 비(非)심적이고 비언어적인 환경 속에 있는 대상들과 그런 대상들의 집합 사이에서 획득되는 지시 혹은 지칭의 관계들이라는 독립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여, 그것들로부터 친숙한 방식을 통해 우선 아(亞)문장적인 것들로부터 문장 차원의 표상들(representings)의 진리 조건을 결정하고,

---

29) *ibid.* p. 18.

그런 다음에는 그것들로부터, 진리 조건들의 조합된 집합들 간의 집합론적인 포함 관계들을 통해서 추론의 옳음(goodness of inference)이라는 개념을 결정한다.<sup>30)</sup>

표상주의적인 프로그램에 찬동하는 데이비트도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브랜덤의 설명을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진리-지칭적(truth-referential) 의미론이 지시체(reference)를 설명하면서, 그와 동시에 의미에 대한 **추론적 속성들**의 기여를 설명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31)</sup>

다시 말해, 표상주의 설명 전략의 논리적인 출발점은 단어의 차원에서 그것이 다른 언어적인 요소들을 동원하지 않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독자적인 의미를 소유하고 있음을 해명하는 것이다. 그럴 때 그 단어가 지닌 바로 그 문자 그대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단어가 어떤 특정한 문장이나 맥락 속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를테면 지시적인(혹은 인과적인) 관계 등을 통해 우리가 그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미리 결정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통적인 논리학이나, 특히 로크의 이론 같은 언어 의미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에 대한 설명 방식을 보면, 우선 항(terms)에 해당하는 것들(단칭적인 것이건 일반적인 것이건)과 문법적으로 술어에 해당하는 개념들의 의미를 결정하고, 그런 다음을 그것들을 특정한 구문론의 법칙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함으로써 그들 간의 연결 관계를 설정하고 그런 식의 연결 관계에 의해 문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적으로 문장의 의미란 그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 즉, 주어에 해당하는 항들과 술어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맺고 있는 연결 관계를 통해 그 요소들이 지닌 의미에 의해 함수적으로 결정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sup>32)</sup>

---

30) AR, pp. 49-50

31) Devitt, *op. cit.* p. 20.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물론 데이비트는 여기서 ‘추론적 속성’이란 용어를 의미 구성적인 속성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염두에 두고 매우 구체적인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냥 넓은 의미에서 사용적 속성으로 이해하여도 지금으로서는 무방할 것이다.

32) 이러한 표상주의 설명 전략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프레게의 논문 ‘On Sense and Referen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소위 고유 명사라고 부르는 표현들, 단어 혹은 기호들에 관한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 고려해 왔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평서문 전체에 관한 뜻과 지시체에 관련된 탐구

결과적으로 말해서, 언어 사용자의 의미 이해와 언어적 표현의 추론적(혹은 사용적) 속성에 선행하는 이름과 그것의 담지자 사이의 관계(이른바 지시적인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표상주의적인 설명 전략은 대체로 의미의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이며 의미의 확장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른바 아(亞)문장적인 것들(단칭명사, 술어 등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기본 단위로 채택하고, 그것들의 조합을 통해 문장적인 것들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이른바 상향식 설명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칸트 이래로, 그리고 프레게의 명시적인 표어(“결코 고립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묻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문장의 맥락 안에서 물어야 한다.”<sup>33)</sup>)를 통해 인식과 의미의 기본 단위로 받아들여져 온 문장 혹은 명제 차원의 담론 즉 이른바 명제주의(propositionalism)와는 상반되게 여전히 원리적인 측면에서 아(亞)문장적인 요소들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혹은 벽돌쌓기 식 설명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표상주의 프로그램의 의미 설명 전략은 다음 두 가지의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는, 현대 언어 철학에서 거의 불문율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른바 명제주의(propositionalism) 즉, 의미의 기본 단위로서 명제 혹은 문장의 우위성 주장과의 충돌이다. 둘째는, 문장의 의미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에 의존적이며, 단어의 의미는 지시 관계에 의해서 해명된다고 할 때, 결국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문장의 사용에 관련된 속성들은 우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sup>34)</sup>

---

를 하고자 한다.”(G. Frege, ‘On Sense and Reference’ in *Meaning and Reference*, ed. Moore, A. W. p. 28.) 그리고 논문의 나머지에서 프레게는 문장 안에서 단어들을 갖는 뜻과 지시체가 어떻게 문장 전체의 뜻과 지시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브랜덤에 따르면 이러한 프레게의 표상주의적인 입장은 그의 후기 철학에 해당한다. 브랜덤은 프레게의 초창기 입장은 문장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추론적 관계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고한 명제주의의 노선이었다고 평가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본 논문 제 4장의 2-3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33) Frege,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 translated by J. L. Austin, Introduction x.

34) 표상주의적인 노선을 따르는 모든 의미 이론이 실제로 이러한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우선, 표상주의적인 설명 전략을 따르는 모든 이론들이 벽돌쌓기 식의 설명 체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브랜덤 자신도 인정한다. 이를테면, 타르스키(Tarski) 식의 전형적인 상향식·표상주의적 설명 전략과는 달리 “평서문에 의미론적 해석값(예를 들면, 가능 세계의 집합 등)을 할당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플라톤주의적인 표상주의 의미 이론들도 존재한다.”(AR, p. 13) 특히, 표상주의적인 성격을 띤 의미 이론 가운데 가장 세련되고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평가 받는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장의 4-2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 2-4. 표상주의 의미 이론의 이론적 의의

지금까지, 표상주의 의미 이론의 일반적인 규정과 특정한 설명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번 단락에서는 오늘날의 의미 이론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표상주의 의미 이론이 어떤 측면에서 언어적 표현의 사용적인 측면을 우선시하는 의미 이론에 비해서 이론적인 설득력과 우월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표상주의 의미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이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는 이유는 대체로 그 이론이 지닌 다음 몇 가지의 효과적인 설명 방식에서 기인한다.

(1)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브랜덤에 따르면, 표상주의 의미 이론의 전통은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중대한 통찰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sup>35)</sup> 그것은 명제적인 내용을 지닌 지향적인 상태나 믿음이라면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표상적인 측면을 갖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만약 지향적인 상태나 믿음이 그렇게 표상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명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언어를 통해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그러한 표현은 ‘무언가’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 무언가’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17세기의 데카르트 이후로 지배적인 설명 전략이었던 표상주의적인 설명 순서가 애초부터 그러한 명제적인 내용성(propositional contentfulness)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의 설명적인 우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더군다나, 표상주의의 설명 전략을 따르는 이론가들이 애써 지어내는 이론적인 의미론적 전문 용어들을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일상 언어 안에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주장들을 표현하는데 쓰이는 어구들이 존재한다.<sup>36)</sup> 그런 일상의 표상적인 어구들 가운데 으뜸은 명제 태도의 대물(對物)적 귀속(de re ascription)에 사용되는 ‘-에 관하여(혹은 ‘-에 대하여’, 영어에서는 ‘of’, 혹은 ‘about’)'이다. 분명히 사람들이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사유하는가 하는 차원과 그것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사유하는가 하는 차원은 굳이 이론적인 장치들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

35) MIE, p. 496.

36) MIE, pp. 279-280, 참조.

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 속에 나타나는 지향적인 관함성(aboutness)이라는 비(非)학술적인 개념은 지향적인 상태와 그것들을 표현하는 발화들의 내용에 관한 대물적인 상술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표상주의 의미 이론의 전통은 사실상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담화 형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일상의 직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셈이다.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보자. 실제로 우리는 언어적 표현이 소위 ‘객관적인(objective)’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어떤 언어적 표현이든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바로 그 의미’를 가져야 하며 실제로도 우리의 언어는 그럴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체적인 이유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우려 때문이다.<sup>37)</sup> 다시 말해, 의미의 객관성이야말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일종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살아온 경험과 배경 지식이 상이한 대화 상대자들이 소위 객관적인 의미를 주고받으려면 적어도 그들이 무언가 동일한 대상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우리가 ‘-에 대하여’라는 표상주의적인 어구들을 늘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상식적인 생각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론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여러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표상주의적인 생각에 직관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2) 자연 언어의 중요한 특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어적 표현이 지닌 이른바 조합성(compositionality)이라는 성질이고 표상주의 의미 이론은 그러한 성질을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써본 적이 없었을 것이 거의 확실한 언어적 표현들을 한 번 적어보자.

(\*) 나는 2007년 2월 20일 오후 11시 15분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기도에 있는 내 집 건넌방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문장 하나를 내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하고 있

37) AR, p. 167, 브랜덤은 이 문제가 지닌 설득력이 과인으로 하여금 의미 문제의 핵심을 언어와 지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 했다고 평가한다. “과인이 ‘경험론의 두 독단’의 결과로 ‘의미’를 대체할 핵심적인 의미론적 개념으로 지시 대상을 선호하게 만든 논증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해보자.……의미의 단위는 단일한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 전체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만일 두 대화 상대자가 상이한 믿음들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그들이 발화하는 문장들로 상이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이라면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의미 공유의 문제로서 어떻게 납득 가능해질 수 있을지가 분명치 않다.”

다.

(\*\*) 후세인만큼 포악하고, 최홍만처럼 키가 크고,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적이고, 클레오파트라처럼 아름다운 말미잘.

우리말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생전 처음 보는 이러한 문장이나 구를 읽더라도 그 뜻을, 그것도 순식간에,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납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언어적 표현의 조합적인 특성이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상식적인 방식은 우리가 유의미하게 사용하는 특정한 언어적 표현은 때에 따라서는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구성 요소들로 분해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언어적 표현들과 합쳐져 새로운 의미를 합성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의 (\*)나 (\*\*) 같은 의미 있는 언어적 표현들이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이를테면, 여러 숫자들, ‘방’, ‘집’, ‘노트북’, ‘후세인’, ‘말미잘’ 등과 같은 명사들, ‘작성하다’, ‘천재적이다’, ‘아름답다’ 등과 같은 동사와 형용사들, ‘-의’, ‘-에’, ‘-고’, ‘-한’ 등과 같은 조사들이 제각기 독자적으로 의미 혹은 의미를 생성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그런 생경한 문장을 대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구성 요소들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어적 표현의 조합적인 특성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들이 이론상 무한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원리상의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언어 이론이라면 우리가 어떤 한 언어에 통달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혹은 매우 신비로운 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sup>38)</sup> 따라서 적절한 의미 이론이라면 어떤 언어적 표현과 그 표현의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의미를 상호 전이시키며 분해 · 합성할 수 있는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설명은 반드시 원리적인(혹은 구조적인) 측면의 설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언어적 표현이 지닌 조합성의 특징을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특정 언어에 대한 학습가능성의 전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38) Davidson, ‘Theories of Meaning and Learnable Languages’ in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p. 8. “우리가 각 문장의 의미를 그 문장이 지닌 한정된 수의 특징들의 함수로 간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통찰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무한한 성질이 유한한 성취를 통해서 아울러질 수 있는지도 이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언어가 그런 특징을 결여하고 있다고 한 번 가정해 보라.……기존에 통달한 규칙들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다른 문장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형식 언어 L과 그에 대한 진리 이론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굳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조합적인 특성을 설명하기에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이 얼마나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이론인지 이해할 수 있다.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의 의미는 그 구성 요소들에 의존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세계 속의 대상들에 의해서 설명된다. 따라서 생긴 처음 보는 새로운 문장을 접하더라도,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와 그것들이 결합되는 구문론적인 규칙들을 알고 있는 한 우리는 별다른 고민 없이 그 문장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3) 언어적 표현들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관해 생각해보자. 대체 가능성이란 언어의 조합적인 성질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실제로 특정한 부류의 표현들끼리 전체적인 의미의 손상 없이 상호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언어적 표현들의 의미가 조합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표상주의 의미 이론의 구조에 따라서, 의미의 궁극적인 원천이 세계에 있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들에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때, 언어적 표현들의 진리값 보존적인 대체 가능성 문제 또한 언어의 조합적인 성질과 같은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대체 가능한 표현들의 의미 동일성 기준을 비교적 쉽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두 단어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킬 때 그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미론적으로 진리와 지칭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대체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외연적인 문맥과 내포적인 문맥의 구분하는 입장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그 두 문맥의 차이를 오로지 표상된 것들만이 문제가 되는 문맥과 표상 작용 그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표상에 개입하게 되어 있는 문맥의 차이로 받아들여 왔다.<sup>39)</sup> 이와 관련하여 콰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진리 조건적 의미론은) 공(共)외연적인 것들 간의 대체를 허용하는 외연주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되며, 그로부터 내포적 맥락에 대한 강력한 반박 논증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포들은 불명료하다는 과거의 비판이 명료한 객관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sup>40)</sup>

(4) 데비트에 따르면, 표상적인 속성들은 우리의 의미론적 목적들에, 더 나아가 유기

39) MIE, p. 279.

40) W. V. O. Quine, ‘Replies : to Davidson’, in *Words and Objections*, ed. D. Davidson & J. Hintikka, p. 333.

체로서의 인간의 삶이 지닌 목적과 활동에 기여한다. 먼저, 의미론적인 목적, 즉, 우리가 무언가를 뜻하는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자. 데비트가 특히 강조하는 우리의 의미론적 목적은 다음 두 가지이다.

의심할 바 없이 그런 목적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그 중에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하나는, 주체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으로 나는 줄여서 ‘행동의 설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사유와 발화를 이용하여 대체로 그 주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것이다.<sup>41)</sup>

그에 따르면, 표상주의 의미 이론에서 의미의 근본 단위로 생각하는 표상적인 속성들은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에게 특정한 명제적 내용을 가진 믿음과 지향적 태도를 귀속시킨다. 만일 우리의 사유와 발화가 세계를 표상하고, 게다가 충분히 신뢰할만하다면, 누군가의 믿음과 지향적 태도에 그러한 표상적인 속성들을 귀속시키는 작업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에 분명히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들의 사유와 발화 속에 세계를 표상한다면, 그들이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세계를 표상하는 바대로 그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을 그들의 믿음과 지향적 상태에 귀속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미론적인 목적에 기여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금 철수에게 ‘밖에 비가 오고 있다’라는 믿음을 귀속시킨다고 생각해 보자. 그럴 때 우리는 철수의 행동을 설명하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그럴 때 바깥의 날씨에 관한 정보 혹은 증거를 얻는다. 즉, 세계에 관해 무언가를 배우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번에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데비트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결국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만일 최악의 경우 세계를 표상하지 않는다면 즉 세계와 유리된 채 그 자체의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라면, 혹은 우리의 믿음 귀속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자로서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그 무언가, 즉 표상

---

41) Devitt, *op. cit.* pp. 57-58

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언어 사용에 담긴 이러한 의미론적인 목적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단 말인가? 데비트는 표상주의 의미 이론이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문제를 폭넓은 인간 유기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데비트는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보라고 제안한다.<sup>42)</sup> 어떤 유기체가 의미 있는 사유를 하고 그런 표현들을 발화한다는 것은 그 유기체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가? 의미란 도대체 무엇에 쓰는 것인가? 이 질문은 왜 우리가 무언가에게 의미를 귀속시키는가라는 앞서의 의미론적 목적과 관련된 질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라. ‘망치는 무엇에 쓰는 것인가?’, 혹은 ‘심장은 무엇에 쓰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의미 귀속의 문제와는 달리 무언가가 어떤 종류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당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던질 수 있는 것들이다. 의미에 관해서도 이런 질문이 적절할까? 데비트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의미란 바로 무언가를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의미의 기능은 유기체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세계의 특정한 양상들을 표상하는 것이다. 유기체는 일정한 영역의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으며, 그 유기체가 주변 환경을 제대로 표상했을 때 그 유기체는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원시적인(혹은 인간 이외의, 더 나아가 무기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기체가 가진 표상적인 속성은 어떤 식으로든 그 유기체와 표상된 대상 사이의 비자발적인(혹은 기계적인) 현실적 혹은 잠재적인 인과적 관계들로부터 구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천적인 측면에서 그런 특성은 자연의 일부이자 자연으로부터 진화해 온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다만, 인간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계적인 메커니즘의 기반 위에서 언어적인 표현들을 이용하여 특정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일종의 개념 사용적인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sup>43)</sup> 우리는 여행하고, 탐사하고, 실험하고, 건축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리고 동료 인간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어쨌든 세계와 인과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표상주의자들에게 따르면 그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는 세계를 표상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를 토대로

42) Devitt, *op. cit.* pp. 137-138. 참조.

43) 이렇듯 인간이 가진 개념을 만들고 그것을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의 원천을 자연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시도 또한 표상주의 의미 이론에서 전형적으로(물론 데이빗슨 등과 같은 예외가 존재하지만)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이러한 규범성의 문제는 본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고자 하는 이른바 표상의 과정은 그러한 세계를 인간의 삶에 적절한 공간으로 조작하려는 우리의 시도에서 가장 본질적이면서 동시에 원천적인 측면이기 때문이다.<sup>44)</sup>

(5) 우리 언어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또 고려해 보자. 우리는 언어적 표현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을 전제한다. 특정한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자명종은 특정 시점이 되면 어김없이 녹음된 특정한 음성을 발생한다. 그러나 그 자명종은 그 시점이 되면 그러한 음성을 발생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다만 그러한 음성을 소위 기계적으로 발생시킬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사용은 이와는 다르다. 우리는 어떤 문양이나 음성을 어떤 조건 하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적용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 사용에 기계적인 인과적 귀결이거나 혹은 무작위적인 언어적 표현의 나열 이상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의 언어 사용은 모종의 규칙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는 성격을 띠며, 우리는 그러한 성질을 언어 사용의 규범성(normativity)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45)</sup> 이러한 규범성의 의미론적인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표상주의 의미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판단과 추론의 객관적인 적절성을 제공하는 원천이 언어와 세계 간에 성립하는 표상 관계에 있다.<sup>46)</sup> 우리의 개념 적용이 적절한지 여부, 즉 우리가 올바르게 개념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실제로 우리에게 표상된 것이 실제의 사물과 일치하는가 여부를 통해 결정되는 그런 유형의 올바름이다. 이런 차원에서 개념 적용의 적절성 여부는 그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주체의 태도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언어적 실행 속에 담겨 있는 규범적 특성에 대한 표상주의적인 옹호의 기준은 우리의 태도 같은 요소 대신에 그런 태도를 초래한 세계의 대상들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성공적인 개념 사용을 보증한다. 그러한 성공적인 개념 사용은 우리가 표상한 대상들의 적절성과 그로부터 보증되는 표상과 표상

44) Devitt, *loc. cit.* 참조.

45) AR, p. 48. “온도계와 앵무새는 자신들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다.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의미할 수 있지는 몰라도 그러한 반응들은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요구되는 차이는 단지 반응적인 분류와 구체적인 *개념적인* 분류 사이의 차이라고 덧붙일 수 있다.” 개념적인 분류란 어떤 대상이나 사태가 그 개념에 포섭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곧 특정한 대상이나 사태가 특정한 개념에 포섭되어야 하는지 아닌지(ought to, or ought not to)에 대한 정당화를 그 개념적 분류를 수행하는 주체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46) MIE, p. 280. 참조.

된 것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약하자면,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표상적 개념 내용에 대한 우리의 대화는 세계 속의 대상들에 대한 표상과 그러한 표상의 객관적 적절성에 의해서 그 규범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표상주의 의미 이론은 대체로 세계에 관한 실재론(realism)의 입장을 동반하게 된다는 점이다.<sup>47)</sup> 어떤 의미 이론이든 자체의 구조적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세계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이 통합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그러한 이론 체계에 대한 설명은 어떤 식으로든 언어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상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 설명은 세계의 존재를 상정하게 될 것이다. 대개의 표상주의적인 의미 이론이 표방하는 세계에 관한 관점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마땅히 실재론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런 류의 입장에 따르면, 특정한 문장은 그것이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 참 혹은 거짓일 수 있다고 전제된다. 즉, 우리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세계의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한 문장의 진리 조건을 과연 획득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우리의 인식 능력을 넘어선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떤 문장이 참이 되거나 혹은 거짓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하게 주어진 문장의 진리 조건이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으며, 우리에게 그런 대상들을 인식하거나 혹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가리키는 언어적인 표현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건전한 의미 이론이라면 마땅히 언어와 실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관점을 담고 있어야 하며, 표상주의 의미 이론은 표상하는 주체로서 우리가 지닌 태도보다도 언어적인 표현과 그것이 표상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가장 기본적인 의미론적 값으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인식론적으로는 강력한 실재론적 입장을 지지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3. 표상주의 프로그램의 한계와 문제점

앞에서 표상주의 의미 이론이 지니는 이론적 우월성과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

47) Platt, *op. cit.* pp. 5-6, 참조.

문제점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히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 대체적으로 말해서, 표상주의 의미 이론이란, 대체로 실재론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표상 능력을 가진 자연의 일부로서의 유기체인 인간이 표상 주체의 태도나 사용적인 속성과는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언어적 표현과 대상과의 표상 관계를 의미의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언어의 규범성, 조합성, 그리고 객관적인 의사소통의 실현 가능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언어 사용의 목적과 규범성, 조합성과 언어의 학습 가능성, 진리 담화와 객관적 의사소통의 가능성 등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언어적 속성들이다. 그리고 세계가 우리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실재론 또한 거부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는 근본적으로 표상주의 의미 이론이 과연 그러한 거부하기 어려운 우리의 직관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제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표상주의 의미 이론이 어떠한 이론적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차례로 검토해 보자.

### 3-1. 형식적 의미론과 철학적 의미론

타르스키는 ‘만족’이라는 의미론적 개념을 이용하여 1차 술어 논리 언어와 같이 특정한 고안된 형식적인 대상 언어에 대해 완전한 형태의 진리 정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본적으로 한 문장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것이 참이 되는 조건을 아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표상주의적인 의미 이론가들은 타르스키의 의미론이 보여준 성과를 자연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데이빗슨은 실제로 타르스키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가장 성공적인 형태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 체계를 고안하였다.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은 타르스키의 진리 정의를 결정적인 개념으로 도입하여 자연 언어에 관한 체계적인 의미 이론을 제공하고자하는 입장이다. 데이빗슨은 타르스키(Tarski)의 진리 이론이야말로 표상주의 의미 이론의 기본적인 성격에 가장 잘 부합되는 진리 정의를 제시한다고 생각하였다.<sup>48)</sup> (물론 데이빗슨의 입장을 단순히 표상

---

48) “의미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지칭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 이론이다. 진리는 그 경계의 한 쪽에 있으며, 의미는 그 반대편에 있다. 두 영역은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그럼에도 그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즉, 우리가 모든 문장의 진리 조건을 제공할 때 우리는 모든 문장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빗슨은 그 관계를 마음에 새겼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한 언어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그 언어에 대한 타르

주의적인 이론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각주 25번 참조). 그러나 진리 개념을 원초적으로 받아들이며, 문장의 의미를 그것의 진리 조건을 통해 해명한다는 근본 전체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일단은 데이빗슨 또한 넓은 의미의 표상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빗슨은 이렇게 말한다.

물론 타르스키가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여준 그런 종류의 진리 정의와 의미의 개념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 정의는 모든 문장의 진리에 대한 필요 충분한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작동하고, 그리고 진리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제공하는 방법이다.<sup>49)</sup>

타르스키는 ‘(T) s is true if and only if p(여기서 s는 대상언어의 문장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메타언어의 이름이고 p는 s가 가리키는 문장이거나 혹은 그 문장을 메타언어로 번역한 문장이다)’라는 소위 규약 T(Convention T)를 진리 정의의 실질적 적절성 조건(material adequacy condition)으로 간주하였고<sup>50)</sup>, 데이빗슨은 바로 그 규약 T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 이해(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제시된 형태의 진리 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와 형식적 의미론의 성립 가능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sup>51)</sup> 그리고 데이빗슨은 그러한 형식적 의미론을 자연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실제로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은 프레게, 타르스키, 카르납 등의 연구와 같이 형식적 의미론(formal semantics)<sup>52)</sup>을 배경으로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형식적 의미론을

---

스키의 재귀적 진리 정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Quine, *loc. cit.*) “‘참’을 이용하여 진리값과 진리 조건을 통해 문장에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정형화하는 방식에 덧붙여, 후기 프레게가 탄생시킨 전통은 ‘지칭하다’, ‘지시하다’를 사용하여 항(terms)과 술어들 간에 성립하는 표상적인 관계를 표현한다. 타르스키의 진리 정의에 관한 논의는 ‘참’과 ‘지칭하다’가 서로 관계 맺으려면 그러한 표현들의 사용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그 전형을 제공한다.” (MIE, p. 279.)

49) Davidson, ‘Truth and Meaning’, in *Inquiries into Truth & Interpretations*, p. 24.

50) 어떤 진리 이론이 진리 정의의 실질적 적절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진리 이론을 적용할 대상 언어의 모든 적형식 문장들에 대해서 (T)-문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51) Davidson, ‘In Defence of Convention T’ in *Inquiries into Truth & Interpretations*, p. 66.

52) 형식적 의미론에 관해서는 이 단원의 뒷부분인 3-1에서 철학적 의미론과 대비하여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자연 언어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는 의의를 갖는다.<sup>53)</sup> 형식적 의미론은, 여러 범주로 분류되는 다양한 기호들의 집합과 그런 기호들을 결합하여 적형식(well-formed formula)을 산출하게 해주는 구문론적 규칙들로 구성된 형식 언어의 의미 문제를 탐구하는 분야이다. 자연 언어에 형식적 의미론의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 동기는 자연 언어의 문장들도 형식 언어에서처럼 그러한 문장들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되며, 그런 측면에서 문장들의 의미가 그러한 구성 요소들의 의미에 의존한다는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형식 언어의 의미론과 방법론은 이러한 자연 언어의 조합적인 특성을 잘 해명해줄 수 있는 확실한 설명 모형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데이빗슨이 타르스키의 진리 이론을 의미론의 핵심적인 열쇠로 생각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sup>54)</sup>

타르스키는 형식 언어인 1차 술어 논리 언어에 대해 만족(satisfaction)<sup>55)</sup>이라는 의미론적 개념을 동원하여, 1차 술어 논리의 모든 적형식 문장의 진리값이 그 문장 구성의 진리값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리 정의의 실질적 적절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진리 정의를 제시하였다.<sup>56)</sup> 이러한 타르스키의 진리 정의 방법을 매우 간단하게 구성한 다음과 같은 대상 언어 L에 적용해 보자. 먼저 L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로서는 각각 홍부와 놀부를 지칭하는 두 개의 이름 ‘홍부’와 ‘놀부’, 그리고 각각 착한 것들과 심술궂은 것들에 적용되는 두 개의 1항 술어 ‘착하다’와 ‘심술궂다’가 사용된다고 하자. 그리고 L에서 적형식 즉 문장을 만드는 구문론적 규칙으로 이름 뒤에 1항 술어가 연결된 형태를 단순 문장으로 정하고, 그런 단순 문장의 진리값은 사용된 술어가 그 술어를 만족시키는 대상에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정의하며, 단순 문장들을 결합하여 복합 문장으로 만들어 주는 연결사로 부정과 연언의 규칙을 도입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러한 복합 문장의 진리값은 단순 문장의 진리값과 연언과 부정의 통상적인 진리 함수적 정의에 따라서

53) S. Evnine, *Donald Davidson*, p. 72

54) 더 나아가 콰인은 자연 언어에 형식적 의미론을 적용하고자 한 데이빗슨의 시도가 우리의 자연 언어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의 합당한 길을 열어 주었다고 평가한다. “더욱 인상적인 측면은, 데이빗슨의 생각이 의미 이론에서 언어에 대한 논리적 재편에 분명하고 중점적인 역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데이빗슨의 구도 속에서 재편의 시급성은 분명해진다. 그 재편은 타르스키의 진리 정의에서 제시된 재귀적 방법을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Quine, *loc. cit.*)

55) 타르스키가 만족(satisfaction)이라는 의미론적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1차 술어 논리의 복합 문장들 즉 양화 문장들은 진리값을 갖지 않는 ‘열린 적형식(open wff)’들로부터 구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 문장의 진리값이 그것의 구성 요소의 진리값에 함수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줄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56) Miller, *op. cit.* pp. 257-263, 참조.

결정된다고 하자. 이러한 구문론적 규칙에 따라서 L에는 4개의 단순 문장이 존재하며, 그러한 단순 문장들을 2개의 연결사로 연결시킴으로써 사실상 무한한 수의 복합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러한 L의 문장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T-문장들이 생성될 것이다.

‘홍부는 착하다’는 참이다, iff 홍부는 착하다.

‘홍부는 심술궂다’는 참이다, iff 홍부는 심술궂다.

.

.

‘홍부는 심술궂지 않다’는 참이다, iff ‘홍부는 심술궂다’는 참이 아니다.

‘홍부는 착하고 놀부는 심술궂다’는 참이다, iff ‘홍부는 착하다’는 참이고 ‘놀부는 심술궂다’도 참이다.

.

.

.

이런 방식으로 타르스키 식의 진리 이론은 L의 모든 문장에 대해 T-문장을 산출할 수 있고, 그것은 곧 문장의 의미는 그것의 진리 조건이라고 하는 의미론적 직관에 부합하는 결과를 산출한 셈이 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러한 진리 이론이 L과 같은 단순한 언어가 아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언어에도 과연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데이빗슨 역시 타르스키 식의 진리 이론을 자연 언어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의문 즉, ‘기술된 유형의 진리 이론이 자연 언어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가?’<sup>57)</sup>라는 의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의 자연 언어에는 형식 언어에 없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첨가되어 있다. 이를테면, 형용사와 부사의 활용, 간접 화법, 명제 태도 문맥, 일반적인 인과적 진술들, 반(反)사실적 조건문, ‘대부분’ 등과 같은 한정사 등등이 자연 언어 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진리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

57) Davidson, ‘Radical Interpretation’ in *Inquiries into Truth & Interpretations*, p. 131.

데이빗슨의 답은 앞서 언급했듯이 충분히 낙관적이며, 실제로 그는 자연 언어의 특수한 경우들을 처리하는 많은 발전이 실제로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58)</sup>

브랜덤에 따르면<sup>59)</sup>, 형식적 의미론의 이론적인 기획은 우선적으로 의미론적인 해석항(interpretant)들과 원초적인 해석값(interpretended)들을 임의적으로 결합시키는 구조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러한 해석항들을 임의적인 구문론적 장치들을 이용해 결합함으로써 원초적인 해석값들에서 파생된 복합적인 해석값들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다.<sup>60)</sup>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전제 하에서 형식적 의미론은 ‘구조 보존적인 사상(寫像)(structure-preserved mapping)’을 동반한다. 그러나 모든 수학적 표상 체계의 정리들이 전부 다 의미론적인 것들이라고 볼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상들의 집합이 무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미론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요청되는가?”<sup>61)</sup> 브랜덤에 따르면, 이러한 질문에 답해나가는 과정은 곧 탐구의 본령이 순수한 형식적 의미론의 영역에서 이른바 철학적 의미론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철학적 의미론은 특정한 사상(寫像) 체계가 단순히 해석항과 해석값을 체계 내부에 자의적으로 생성한 규범에 따라 임의적으로 짝지은 것이 아닌, 그야말로 실제로 유의미하게 작동하는 언어에 대한 사상 체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적인 장치들이 필요한지를 탐구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론은 타르스키가 제한된 어휘와 구문론적 규칙들로 구성된 형식 언어를 모형으로 체계화했던 진리 이론과 형식적 의미론을 자연 언어에 적용하려는 시도였고, 그러한 시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자연 언어에 대해서 진리 이론이 주어질 수 있는가?”)에 답해 나가는 과정에 한정해서 판단하자

58) *ibid.* p. 132. “나에게는 꽤나 인상적인 발전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자면, 고 유 명사에 대한 타일러 버지의 연구, ‘-해야 한다’에 대한 길버트 하만의 연구, 물질 명사와 비교급에 관한 존 윌러스의 연구, 그리고 태도와 수행의 귀속에 관한, 부사, 사건, 그리고 단칭 인과 진술에 관한, 그리고 인용구에 관한 나 자신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크 플래트의 *Ways of Meaning*의 후반부에도 그러한 성과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59) MIE, pp. 143-146, 참조.

60)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의미의 확장은 해석항들에 작용하는 각각의 구문론적 장치들에 대하여 해석항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이 산출한 해석항들에 상응하는 구문론적 장치를 정의함으로써 성취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 이론가들은 문장들에다 진리값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복합문장의 진리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복합문장을 만드는 연결사들을 진리 함수적으로 정의한다.

61) MIE, pp. 144.

면, 아직까지 그의 이론은 형식적 의미론의 작업 범주 안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형식적 의미론이 갖고 있는 한계는 그것이 자연 언어에 적용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다음의 세 (T)-문장들을 한 번 고려해보자.

- ㉠ ‘홍부는 착하다’는 참이다, iff 홍부는 착하다.
- ㉡ ‘홍부는 착하다’는 참이다, iff 놀부는 심술궂다.
- ㉢ ‘홍부는 착하다’는 참이다, iff 홍부는 심술궂다.

우리가 ㉠은 수용하고, ㉡은 과연 ‘홍부는 착하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단지 구조 보존적 사상(寫像)이라는 형식적인 개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실제로 우리가 이미 ‘홍부는 착하다’, ‘홍부는 심술궂다’, ‘놀부는 심술궂다’라는 문장들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 정리를 올바른 것으로 수용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일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의미와 진리 조건의 관계에 대해 ㉡보다 더 그럴듯한 설명으로 간주할 수 있을만한 ㉢을 제공한다.<sup>62)</sup>

- ㉣ 만일 S가 P를 의미한다면, 그럴 때, S는 참이다, iff P.
- ㉤ 만일 S는 참이다, iff P라면, 그럴 때 S는 P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데이빗슨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는 단지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의미 명세화(모든 적형식 문장들에 대한 (T)-문장의 생성)를 넘어서서 그렇게 성취된 진리 이론이 실제로 특정 화자가 발화하는 특정한 언어를 해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두 의문에 답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진리 이론은 해석이 시작되기 이전에 활용 가능한 증거에 호소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는가?”<sup>63)</sup>, “만일 우리가 어떤 진리 이론이 기술된 형식적이고 경험적인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이론의 대상이 되는 언어의 발화를 해석할 수 있는가?”<sup>64)</sup> 데이빗슨은 진리에 관한 ‘이론 내의(within the theory) 설명’과 ‘이론에 대한

62) P. Horwich, *Meaning*, 3장 참조.

63) Davidson, ‘Radical Interpretation’ in *Inquiries into Truth & Interpretations*, p. 133-138, 참조.

(of the theory) 설명'의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론 내에서, 한 문장의 진리 조건들은 요구되는 구조와 만족이나 지칭의 개념 같은 의미론적인 개념들을 언급함으로써 상술된다. 그러나 문제가 그 이론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차원에 이르면, 인간의 목적과 활동에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닫힌 문장들에 적용되는 것으로서의 진리 개념이다.……나는 단어들, 단어의 의미들, 지칭, 그리고 만족은 우리가 진리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정물들이라고 제안한다.<sup>65)</sup>

따라서 형식적인 의미론이 충족시킬 수 있는 의미 이론의 외연적 적절성 조건(모든 적형식 문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의미를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을 넘어서서, 그 이론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철학적 의미론의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표상된 것과 표상하는 것 사이의 지시적 관계를 해명하고자 하는 지칭 이론을 근본적인 의미론적 원리로 설정하는 형태의 철학적 의미론은 과연 타르스키 류의 형식적 의미론(이를테면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과 같은)에 생기를 불어넣는 성공적인 철학적 의미론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단락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

### 3-2. 표상주의 의미 이론과 지시적 관계 모형

브랜덤에 따르면, 의미론은 특정한 지향적 상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sup>66)</sup> 그리고 그러한 지향적 상태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는 그것이 무엇에 대한 상태인가에 관한 것이며, 그러한 지향적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띤다. 하나는 소위 '명제적 내용성(propositional contentfulness)'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 서술문의 사용을 통해 전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상-표상적 내용성(object-representing contentfulness)'으로서 주로 단칭명사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

64) *ibid.* pp. 138-139, 참조.

65) Davidson, 'Reality Without Reference', in *Inquiries into Truth & Interpretations*, pp. 221-222.

66) MIE, p. 68, 참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적 대상을 다루는 문제, 즉 의미론의 문제에서 가장 보편화된 접근 방식은 바로 지향적 상태와 표상적 상태를 대체 가능한 용어들로서 이해하는 것이다.<sup>67)</sup> 브랜덤 또한 이러한 주장에는 부인하기 어려운 통찰이 들어 있다고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통찰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즉, 지향성이 표상적인 차원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하며, 지향적 내용성을 이해하려면 누구나 표상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68)</sup>

여기서 브랜덤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의미론자라면 반드시 지향적 내용의 표상적인 차원을 이해해야 하지만, 그러한 표상이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근본 토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통찰에 입각하여 전개되어온 가장 보편적인 방식의 의미론은 앞에서 검토해온 표상주의적 설명 전략에 따르는 프로그램이었고, 그것이 가장 체계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이 이틀테면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이었다. 그 전략에 따르면, 우리는 표상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지향적 상태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언어 사용과 합리적 행위를 지배하는 실행적 적절성을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상주의 설명 전략에서 브랜덤이 지적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이것이다.

적절한 표상의 개념이 행동을 납득 가능한 것으로 만듦에 있어서 언어적 표현의 올바른 사용과 지향적 상태들의 역할에 관한 생각에 앞서서 통용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은 지향적 내용성의 표상적 차원에 대한 설명이 답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적절성 기준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 때문에 묵인되고 만다.<sup>69)</sup>

표상 관계가 사용자의 마음 상태나 여타의 사용 맥락과 독립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표상주의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대안은 표상 관계를 표상과 표상된

67) Devitt, *op. cit.* p. 1 “의미론이 진리와 지칭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68) MIE, p. 69. 브랜덤은 여기서 스톨네이커(Stalnaker)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다. “지향성의 문제는 표상의 본성에 관한 문제이다. 세계 안에 있는 어떤 것, 예를 들면, 그림, 이름, 지도, 발화, 특정한 심적 상태들은 다른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사람, 도시, 사태 등을 표상하거나 혹은 지시하거나 혹은 그것들에 관하여 존재한다.”

69) *ibid.*

것 사이의 지시(혹은 지칭) 관계 위에 위치지우는 것이다. 브랜덤에 따르면, 그러한 지시적 모형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반박 가능하다.<sup>70)</sup> (그 두 가지 이유는 모두 문장과 아(亞)문장적 표현들이라는 문법적 범주 간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제기되는 것들이다.)

첫째, 단칭명사와 그것이 집어내는 혹은 지칭하는 대상 간의 관계가 사전에 납득 가능한 것으로 전제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명명(命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 명명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특정한 기호나 음성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지시하려고 하는 명명자와 “나는 이 아이를 홍부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명명자의 주장이 담긴 언어행위(speech act)가 필요하다. 아니면 적어도 “‘홍부’는 이 아이를 지칭한다.”라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적어도 단어 차원이 아닌 명제적인 차원에 우선성이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앞 절에서도 논의된 것처럼, 표상주의 프로그램이 상향식 설명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님이 확실해진다. 단칭명사와 그 대상 사이의 지시 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명제적인 내용을 담은(위의 명명 선언의 문장처럼) 문장을 구성해낼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 체계가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언어의 의미가 적어도 단어 차원의 지시 관계에 기반 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지시 관계에 근거한 표상주의 설명 전략은 이런 식으로 단칭명사와 술어의 경우에 적용했던 지칭으로서의 표상 개념을 그 방식 그대로 문장이라는 범주로 확대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문장은 단어가 대상을 지칭하듯 이를테면 사태(states of affair)와 같은 그 무언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지시 관계 모형은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사태라고 하는 또 다른 존재론적 범주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나는, 사태의 특별한 존재론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태를 단순히 그 구성 요소들(단어들이 지칭하는 대상들)의 결합으로 간주한다면, 논의는 앞서 지적된 문제로 되돌아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태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존재론적 범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앞서와 유사한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즉, 그러한 문장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런 문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장치들(이를테면 영어에서 절을 이끄는 ‘that’의 기능 등)을 사전에 이해하지 않은 채로 그러한 사태라는 범주가 납득 가능할 수

---

70) ibid. 그리고 pp. 84-85, 참조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 3-3. ‘표상’ 개념의 애매성

표상을 의미 이론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표상하다’라는 표현이 지닌 이중적인 의미를 혼동하곤 한다. 문장이 표상하는 대상으로 사태라는 존재론적 범주를 끌어들이는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문장을 통해서 **표상되는 것(what is represented)**과 문장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what is expressed)**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71)</sup>

진술 혹은 믿음이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포적인’ 의미에서 무언가를 표상하거나 혹은 무언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반면, 그것이 대상 혹은 대상들을 갖기 위해서는 ‘외연적인’ 의미에서 무언가를 표상해야 한다.<sup>72)</sup>

이것은 곧 언어적 표현의 내용은 분명히 그것이 바깥 세계의 어떤 대상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도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원을 갖지만, 그것이 어쨌거나 어떤 내용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도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브랜덤은 이런 애매성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모두를 ‘표상’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전자는 그대로 ‘표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후자는 ‘표상 기도(purporting to represent)’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전자는 표상된 것으로 대상이나 사태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표상과 그렇지 않은 표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그런 대상이나 사태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표상하기(representing)’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표상을 통해서 언어적 표현의 의미 즉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가라면, 이 두 가지 차원의 표상하기가 어떻게 구별되며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표상하기의 일의성을 유지하려는 두 가지 시도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오로지 성공적인 표상만을 표상하기로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표상하기를

---

71) MIE, p. 70.

72) MIE, pp. 70-72, 참조.

성공적인 표상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브랜덤에 따르면 그 두 가지 입장 모두 납득할 수 없는 함축을 갖는다. 전자의 입장은 잘못된 표상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후자의 입장은 마이농의 경우에서처럼 모든 믿음의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에 관한 표상적 차원을 가져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경제성이 없는 존재론을 끌어들여야만 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두 의미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표상하기’의 이러한 두 의미가 혼동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 두 의미가 너무 동떨어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브랜덤은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표상하고자 의도하는 것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혹은 올바르게 표상하고자 함이며, 그것은 성공적인 표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 없이는 그러한 표상 의도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명제적 내용성이 표상적인 차원을 갖는다는 부인할 수 없는 통찰이 납득하기 어려운 설득력 없는 개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한 가지 대안은 우리의 모든 표상적 내용을 성공적인 표상의 내용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시도를 로크, 버클리, 흄을 비롯한 영국의 근대 경험론자들이나 20세기의 논리 실증주의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환원주의적인 전략은 결국은 유지하기 어려운 노골적인 경험론의 입장이 되고 말 것이며, 그런 입장의 결정적인 난점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기회가 있을 것이다.<sup>73)</sup>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한 가지 유의미한 방식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표상할 때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개입하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앞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표상 개념의 애매성이 근본적으로 상반된 방향에 위치한 요소들이 동시에 표상함이라는 지향적 상태를 형성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브랜덤은 이렇게 말한다. “표상 기도(企圖, purport)의 개념은 암묵적으로 그렇게 기도함의 어떤 소비자 혹은 목표물로서의 표상적인 이해력(uptake)을 동반한다. 표상이 바로 그 표상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무언가가 표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에서일 뿐이다.”<sup>74)</sup> 무언가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서 주장하고 있

73) 브랜덤은 프레게의 후기 철학에서 그가 뜻(sense)과 지시체(reference)를 구분한 것은 우리가 표상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그것이 바로 문장의 ‘뜻’이다)와 그러한 뜻이 올바른 것인지에 관하여 지시체의 문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MIE, p. 72.)

74) MIE, pp. 72-73

는 것이다. 그러한 기도는 진실일 수도 있고 위조일 수도 있다. 즉 그 표상은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한 혹은 오류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표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것을 표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표상적인 기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은 곧 무언가가 표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혹은 누군가에게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브랜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앞서의 단락에서, 현재 고려되고 있는 표상주의적인 내용성의 모형에 따르면, 표상적인 기도는 만일 그것이 성공적일 경우에 그것에 의해서 **표상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표상함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다(이를테면, 기호 설계처럼). 그리고 지금의 요점은 표현된 것에 대한 담화는 오로지 표현된 것을 파악하는 활동에 대한 담화의 맥락에서만 납득가능하다는 것이다. 초점을 조금 더 넓히면, 이것은 한 일반적인 관점의 표명이 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의미와 이해는 통합적인 개념들이라는 것이다.<sup>75)</sup>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표상주의적인 내용성 모형의 문제점은 분명해진다. 표상주의 모형은 그것이 성공적인 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애기되지만, 실은 어느 것이 성공적인 표상이고 어느 것이 잘못된 표상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은 표상함이라는 지향적 작용을 그보다 더 폭넓은 맥락, 즉 우리의 언어 사용과 이해라는 맥락에서 조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표상주의 모형은 성공적인 표상 뿐 아니라 표상적 기도 그 자체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이해력, 파악 그리고 이해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야만 하지만, 이해에 선행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객관적 표상의 관계를 ‘설명되지 않는 설명자(unexplained explainer)’로 수용하는 한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브랜덤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지향적 내용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발전은 표상적 관계들을 표상함들을 표상된 것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표상함으로 파악 가능한 것으로 혹은 납득 가능한 것으로

---

75) MIE, p. 73.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의 맥락 속으로 끌어들이므로써만 이루어진다. 그것은 표상적 내용의 이해력 혹은 소비의 문제인 것이다. 표상적인 내용이 표현하는 표상적 기도와 별개로, 그리고 그렇게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과 별개로 표상함이란 그것이 표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또 다른 세계 구성물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된다.<sup>76)</sup>

실제로 우리가 자연의 거울일지도 모른다.<sup>77)</sup>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자연을 왜 반영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표상의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런 차원에서의 표상이란 호숫가에 비춘 사물의 그림자나 다름없는 것이 될 것이다. 호수에게 그런 사물의 그림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브랜덤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안되었다. 즉, 한 문장이 명제를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상태가 그것의 내용으로 명제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 채로 명제(혹은 명제적 내용)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명제를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즉 표상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묻지 않는 채로, 한 명제가 참인지 혹은 어떤 표상이 성공적이거나 혹은 옳은 것인지 묻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명제 혹은 다른 내용을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표상하고자 의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기도를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 채로 묻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sup>78)</sup>

따라서 브랜덤에게 의미를 해명함에 있어서 더 근본적인 차원은 인식 주체가 외부 대상을 수동적으로 반영함으로서 성립하는 언어와 세계의 사이의 표상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사용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드러내 표현해 보이고자 하는 언어 사용 주체의 규범적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브랜덤은 이것을 표

---

76) MIE, p. 74.

77) 실제로 그리스어 'psyche'의 어원적인 의미는 전신거울을 뜻한다고 한다. 굳이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정신이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78) MIE, p. 75.

상에 대한 표현의 우선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개괄적인 입장에 중요한 두 가지 단서를 덧붙인다.<sup>79)</sup> 하나는 표현의 과정을 무언가 내적인 어떤 것을 외적인 것으로 전화시키는 문제로 보기 보다는 암묵적인 것을 명시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애초에는 우리가 그저 **할** 수 밖에 없는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는 과정이 곧 표현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 얘기한 명시성은 바로 개념적인 명시성이라는 것이다. 즉 명시화의 과정은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브랜덤은 자신의 입장이 개념적 표현주의<sup>80)</sup>로 불릴 수 있다고 말한다.

#### 4. 사용으로서의 의미

이번 단원의 맨 앞에서 언어의 의미에 관한 두 가지 일상적인 직관을 대비한 바 있다. 하나는 표상 관계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용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전자의 설명 전략은 여러 가지 이론적인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설명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단원들에서 다루게 될 본 논문의 남은 과제이다.

##### 4-1. 브랜덤의 철학적 의미론

앞에서 표상적 관계에 기반 해 있는 형식적 의미론은 적절한 형태의 철학적 의미론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의 언어에 관한 진정한 의미 이론인지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브랜덤에 따르면, 언어 L의 모든 표현들에 대해서 ‘x는 y를 의미한다.’라는 정리를 만족시키는 관계항들의 집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의미론에 철학적인 차원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요점은 언어적인 표현들이 갖는 내용성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탐구가 판단하고 추론하는 우리의 언어적 실행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말한다.<sup>81)</sup> (왜냐하면 표상적 관계 그 자체는 아예 그러한

---

79) AR, p. 8

80) AR, p. 9

형식적 의미 이론을 개념적으로 보완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앞 선 단락인 3-3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 의미 이론이 이렇게 더 포괄적인 설명적 모델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따라서 의미론적 해석향과 피해석향의 결합이 단일임의적인 것이 아닌 문자 그대로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우리의 직관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한다. 다시 말해, 아무런 실행적인 설명력을 행사하지 않는 의미론적인 구조나 내용을 특정한 언어에 귀속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작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랜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요점은, 결과적으로 철학적인 의미 이론이라면 의미에 관한 이론들이 호소하게 되어 있는 의미론적 개념들이 좀 더 커다란 맥락에서 그것들 나름의 실행적인 유의미성에 의해 납득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진리’나 ‘지칭’ 등의 개념에 호소하는 표상주의 의미 이론은 특정한 형식적 의미론을 적절한 의미론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진리나 지칭 혹은 표상의 개념까지도 그것이 어떠한 실행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해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하는 이해에 의존적인 것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의 철학적 의미론은 사용적 속성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이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sup>82)</sup> 브랜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철학적 의미론은 한 편으로는 의미론적 개념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러한 개념들을 적용하는 것의 채택을 지배하는 실행의 적절성에 대한 실행적인 설명들 간의 관계에 명시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의미론과 구분된다. 철학

81) MIE, p. 144.

82) 예를 들어 ‘진리’의 개념이 브랜덤이 주장하는 철학적 의미론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는 사용적인 속성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명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설명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Horwich, *op. cit.* chap. 9 참조.) 이러한 설명 방식에 따르면 문장의 진리 조건은 그 자체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세 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로부터의 귀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우리는 ‘놀부는 심술궂다’의 의미를 그 문장의 구성 양식과 그 문장의 요소 단어들이 어떤 규범적 원칙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앎으로써 알게 된다.

㉡ 우리는 ‘The proposition that p is true iff p’의 예화들, 이를테면 무수히 많은 (T)-문장들을 수용하고, 결과적으로 ‘(u)[u is true iff (∃x)(u expresses x & x is true)]’에 찬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다음 탈인용 도식 “p” is true iff p’의 예화들을 추론함으로써 ‘true’의 의미를 알게 된다.

㉢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쌍조건문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게 되는 한에서, 우리는 “놀부는 심술궂다”는 참이다, iff 놀부는 심술궂다’임을 알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놀부는 심술궂다’의 진리 조건에 대한 앎은 결과적으로 그 문장의 의미에 대한 앎으로부터 도출된다.

적 의미론은 내용, 진리, 추론, 지칭, 그리고 표상 같은 개념들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몰두한다. 반면 형식적 의미론은 그런 개념들을 이미 암묵적으로 납득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 채로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만족한다. 인공 언어를 위한 의미론과 자연언어를 위한 의미론을 수행하는 차이는 전자의 경우에는 의미론 이론가들이 책임을 져야할, 표현들의 사용을 지배하는 선행하는 적절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언어는 아직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가는 표현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자유롭게 내용과 표현의 결합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언어의 경우에는 그 이론가가 의미론적인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은 종합적이 아니라 분석적이다(선행하는 기존의 채택 적절성을 기호화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점에서).<sup>83)</sup>

위 인용문의 맨 마지막 문장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의 자연언어는 이미 사용 중이다. 우리의 의미 이론이 이미 사용 중인 언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덧붙여 더욱 곤란한 문제는 의미 이론을 구성하는 언어 역시 이미 사용 중인 자연언어라는 것이다. 실제로, 언어 자체가 철학적인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어떤 분야의 탐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아이러니를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탐구 역시 일종의 언어적 활동이며, 따라서 언어를 탐구하는 작업에 필연적으로 언어가 동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언어는 언어에 대한 탐구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탐구의 대상으로서의 언어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탐구의 도구로서의 언어의 역할이다. 어떤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다시 언어적인 표현이 동원되고, 그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또 다시 언어적인 표현이 동원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언뜻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아 보인다. 이러한 퇴행성 혹은 순환성에 대한 우려는 언어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지닌 일종의 원죄이자, 그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묵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표상주의 의미 이론의 불합리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한 모든 과정은 이미 사용 중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언어의 의미에 숙달해 있지 않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

---

83) MIE, p. 145.

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단 하나의 표상 관계를 설정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완벽한 개념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4-2.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과 해석 이론

3-1에서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을 검토하면서 데이빗슨 자신이 어떤 진리 이론이 상대방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세 가지 질문(“형식언어의 진리 이론이 자연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진리 이론은 해석이 시작되기 이전에 활용 가능한 증거에 호소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어떤 진리 이론이 기술된 형식적이고 경험적인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이론의 대상이 되는 언어의 발화를 해석할 수 있는가?”)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곧 브랜덤이 구분한 바와 유사한 형태의 철학적인 의미론의 필요성을 데이빗슨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브랜덤은 그러한 차원에서 표상된 것과 표상하는 것 사이의 지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벽돌쌓기 식 설명 전략은 성공적일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번 단락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데이빗슨의 입장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제로 데이빗슨 또한 브랜덤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바로 여기에 지칭의 역설이 놓여 있다. 의미 이론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단순한 것들을 가지고 출발하여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벽돌쌓기 식 방법과 복잡한 것들(어쨌거나, 문장들)에서 출발하여 부분들을 뽑아내는 전체론적인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지칭에 대한 비언어적인 성격 규정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점에 관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언어와 비언어적으로 기술된 행동을 연결시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점(문장들)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문장의 부분들이 갖는 의미론적인 특징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런 설명이 없이는 명백히 우리는 진리를 설명할 수 없다.<sup>84)</sup>

이러한 딜레마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데이빗슨이 내린 결정은 이것이다.

나는 일종의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을 옹호하고 경험적인 언어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지칭의 개념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sup>85)</sup>

그리고 데이빗슨이 이러한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구분이 바로 3-1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이론 내의 설명’과 ‘이론에 대한 설명’의 차이이다. 3-1에서도 인용했듯이, 만족이나 지칭 같은 개념들은 이론 내의 설명을 완성하고자 할 때 요청되는 일종의 이론적 가설들이다. 그러나 “단어들의 의미론적인 특징들은 그 이론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sup>86)</sup> 다시 말해, 만족이나 지칭의 개념들을 동원함으로써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이론 내적으로 개별적인 문장들의 진리값이 그것들의 의미론적인 구조에 의존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론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험적 증거들에 부합하는,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론인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지칭의 개념은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T)-문장들은 그러한 문장을 이론 내적으로 산출하는데 동원된 의미론적인 속성들의 근본적인 본

---

84) Davidson, ‘Reality Without Reference’, in *Inquiries into Truth & Interpretations*, p. 221. 또한, 사 이먼 에브닌(Simon Evnine)은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이 단순히 상향식 설명 구조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데이빗슨에게 최우선적인 의미의 단위는 문장이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문장들 안에서 의미론적인 구조를 분별해야만 하며 그럴 때의 방식은 문장들의 의미가 어떻게 그것들의 부분들의 의미에 의존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것이어야 하며”(Evnine, *op. cit.* p. 75.),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연 언어가 지닌 조합적 특성을 해명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플래트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좀 더 명확하게 주장한다. “우리가 새로운 문장들의 T-문장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하게 명시적이고 반성적인 방법은 술어-요소들에 대한 만족-조건에 의거하는 것이다. 그건 마치 우리가 새로운 문장들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러한 문장들의 술어-요소들의 뜻들에 의거하는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문장-의미의 우선성은 만족 개념을 통한 진리 정의가 야기하는 불편한 심경을 설명해 준다. 문장 구성 요소들의 뜻이 가진 불가피한 독립성은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불필요한 것임을 보여준다.”(Platt, *op. cit.* p. 24.) 정리하자면, 진리 조건적 의미론에서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독립적인 의미를 갖게 된 이유는 자연 언어가 지닌 조합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이론적 선택이었을 뿐, 문장은 여전히 의사소통과 언어 학습의 기본 단위이자 최우선적인 의미의 단위로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때도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그런 구성 요소들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곧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만 납득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플래트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단어들은 그것들이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바를 통해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기여란 의미 이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ibid. p. 51.)

85) Davidson, *loc. cit.*

86) ibid.

성을 규명해 줄, (T)-문장의 해석에 관련된 별도의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설명하는 의미 이론은 언어 사용의 규범을 제공할 수 없으며,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그런 이론에서 채택된 핵심적인 개념들, 이를테면 표상, 진리, 지칭 등의 의미론적 개념들은 브랜덤이 제시하는 차원에서의 철학적 의미론의 틀 안에서 그 역할을 부여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홍부는 착하다’라고 발화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문장과 관련해서 생성되는 (T)-문장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그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발화를 했으며, 그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들을 발화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말해서 ‘특정한 사용 속성을 가진 단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됨으로써 갖게 된 특정한 사용 속성’이 그 문장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식의 설명을 데이빗슨 자신도 제공하고 있으며<sup>87)</sup>, 그것이 바로 그가 제안한 해석 이론과 ‘자비의 원리’의 기반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88)</sup>

거칠게 말해서, ‘자비의 원리’는, 피해석자의 발화에 대해 진리 조건을 할당할 때, 합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숫자의 발화들을 해석자 역시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 호워치(Paul Horwich)는 그러한 입장 안에는 다음 두 가지 생각이 암묵적으로 들어 있다고 주장한다.<sup>89)</sup> 첫째, 어떤 사람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 안에는 관찰 가능한 상황, 배경적 믿음, 추론적 성향, 그리고 단어 사용의 기본적 규범성이 포함된다. 여기서의 규범성은 표상주의에서 지칭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규범성과는 달리 다른 요소들과 함께 작용하여 어떤 문장이 참으로 주장될 수 있는지를 함수적으로 명세화해준다. 둘째, 특정 언어 문장들의 진리 조건을 훌륭하게 할당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본적

87) 에브닌은, 비록 데이빗슨이 “누군가에게 심적 상태들의 귀속시키고 그의 언어적 생산물들에 의미를 할당하는 기획들을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화자의 심적 상태들을 통해 문장-의미를 해명하는 길을 거부하지만, 그는 분명히 명제-태도 심리학에 관한 사실들에 의해 의미 이론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Evnine, *op. cit.* p. 73.)고 밝힌다. 따라서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이 이론의 해석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언어의 사용적인 속성을 전혀 배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의미의 조합적 구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화자 중심의 사용적인 속성이 동원되지 않을 뿐이다.

88) Horwich, *op. cit.* chap. 9 참조.

89) *ibid.* 참조

인 규범성을 충실히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최적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데이빗슨의 자비의 원리는 요컨대 넓은 의미의 의미 사용 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셈이다.<sup>90)</sup>

#### 4-3. 비트겐슈타인과 사용으로서의 의미

표상주의적인 설명 프로그램에 입각한 완성된 형태의 고전적 언어 의미 이론의 전형으로 우리는 마땅히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이하 논고)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언어와 실재 간의 지시적 관계, 이른바 그림(picturing) 관계를 기반으로 언어와 의미의 문제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 이론의 성공이 비단 언어의 문제 뿐 아니라 기존 철학의 모든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일소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철학의 종언을 선언한 채 명시적인 모든 철학적 활동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표상주의적인 모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언어의 의미에 접근하는 전혀 상반된 방향을 제시한 사람은 바로 앞서서 그런 모형에 입각하여 언어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노라고 공언했던 비트겐슈타인 자신이었다. 7년여에 걸친 공식 활동의 휴지기를 거치고 1930년대 강단 철학에 복귀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바라보는 이전의 관점을 철저히 수정하고 전혀 새로운 언어관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유고로 출간된 『철학적 탐구』(이하 『탐구』)는 그러한 기존의 의미 이론을 비판하고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바로 그것의 사용에 있다는 새로운 언어관을 집약하고 있다.

90) 이런 측면에서 데이빗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이, 문장 의미의 해명을 그 문장의 진리 조건에서 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문장의 진리값은 그것의 구조와 부분들에 의존적으로 조합된다는 점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표면적으로는 표상주의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전형적인 표상주의적인 이론으로 단순히 분류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다. 전형적인 표상주의의 의미 이론의 노선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데비트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진리 조건적 의미론의 한 형태는 데이빗슨에 의해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의 접근 방식은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가 가진 ‘해석적인’ 관점에서 의미론의 과제는 해석 이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다. 내가 선호하는 ‘사실적인’ 관점에서 그 과제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성립되는 경우 바로 그 경우에만 어떤 문장이 참이 되는 속성(특정한 진리 조건을 갖는다는 바로 그 속성)이 바로 그 설명에 핵심적이다. 이 속성 자체는 그 문장의 구조적인 속성들과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지시적 속성들을 통해서 차례로 설명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에게는 지칭 이론이 필요하다. 해석적 관점은 그런 설명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Devitt, *op. cit.* p. 138.)

§43. “의미”란 단어를 이용하는 경우의 많은 부류에 있어서 -비록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아닐지라도- 그 단어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즉, 한 단어의 의미는 언어에서의 그것의 사용이다.<sup>91)</sup>

서론에서 밝혔듯이 브랜덤의 기본적인 입장은 큰 맥락에서 볼 때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이 『탐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주장한 소위 ‘사용으로서의 의미(meaning as use)’라는 언어관을 계승하고 있다.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중요한 성질들은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적인 표현들을 이용하여 언어 행위를 수행하는 이른바 ‘사용’의 관점에서 해명되어야 하며, 그 점은 의미 이론가들이 언어 의미 이론의 근본 원리로 흔히 채택하곤 하는 (기본적으로 지시 관계와 진리 술어에 입각한) 표상적인 담론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를테면 표상적 속성 등은 단어가 구체적인 사용 규범을 획득하게 되는 이른바 ‘언어게임(language game)’ 안에서 부차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앞서서 자신이 『논고』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표상하는 것’과 ‘표상된 것’ 사이의 특정한 관계(그에게는 그것이 이른바 ‘그림 관계’였다)를 의미론적인 기본 틀로 설정하고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언어의 실제 사용에 앞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미리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통칭 표상주의 언어 의미 이론은 원리상 가망성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논고』식의 표상주의 프로그램에서 받아들이는 지시 관계는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는 불합리한 형이상학적 가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sup>92)</sup> 또 다른 더욱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언어의 사용적인 속성들을 전혀 해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브랜덤은 전반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브랜덤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이 계획을 이끌어가는, 방법론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채택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그것의 사용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비트겐슈타인의 실행론(pragmatism)의 **한 차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91)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p. 20

92)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절대적 한계를 구획하고 싶어 했다. 칸트가 사유의 절대적 한계를 구획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이다.……그의 후기 철학은 그것이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이론에 바로 그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판철학이 제거하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다.” (D. Pears, *Wittgenstein*, p. 37)

다.<sup>93)</sup>

그런데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의 『탐구』가 브랜덤이 핵심적인 개념들로 생각하는 언어의 규범적 특성과 사회적 실행을 통해 사용으로서의 의미를 조명하는 언어적 실행론의 성격을 분명히 띠고는 있지만, 그러한 통찰이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를 띤 의미 이론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탐구』 안에는 사용으로서의 의미에 관한 정연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sup>94)</sup> 그리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의 탁월한 통찰 속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절한 의미 이론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틴 데이비스(Martin Davis)는 우리가 보통 ‘의미 이론(theory of meaning)’이라고 부르는 탐구 영역은 제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다음의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 ㉠ 어떤 특정한 언어 L에 대해서, L의 모든 적형식 문장(well-formed sentence)에 대한 확정적인 의미 세목을 산출할 수 있게 만드는 형식적인 요소. 다시 말해 L의 각 문장 s에 대해 ‘s는 (L에서) p를 의미한다.’와 같은 형태의 정리(theorem)를 산출하는 측면.
- ㉡ 의미 개념을 조명하는 (논증적인) 철학적 요소. 다시 말해, 다른 개념들을 이용하여 의미를 분석하거나, 최소한 다른 개념들과 관련하여 의미 개념의 올바른 위치를 드러내는 측면.<sup>95)</sup>

정상적인 의미 이론이라면 ㉠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인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 이론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의 요소는 어떠한가? 그 점에 관해서는 두 요소 사이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데이비스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특정한 인구 G가 사용하는 특정 자연 언어 L에 관한 ㉠의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그에 관련된 조건들을 일

93) MIE, Preface xii. 강조의 필자의 것임.

94) R. Fogelin, *Wittgenstein*, p. 122.

95) M. Davis, *Meaning, Quantification, and Necessity : Themes in Philosophical Logic*, P. 3

반화시켜 진술할 수 있는 ⑥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sup>96)</sup> 그것은 다시 말해, ‘의미’ 개념에 대한 일종의 철학적 해명을 제공되었을 때 비로소 언어의 의미에 관한 형식적인 요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에서의 논의를 고려할 때, ④의 요소는 형식적 의미론의 영역이고, ⑥는 철학적 의미론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탐구』는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하나의 커다란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미와 관련된 주요한 개념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는 건설적인 측면에서 분명 ⑥의 요소를 갖춘 철학적 의미 이론으로 불릴 만하다. 그러나 『탐구』에서 수행된 비트겐슈타인의 탐구가 ④의 요소까지 갖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탐구』 속에 ‘s는 (L에서) p를 의미한다.’라는 정리를 모든 유의미한 언어적 표현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기는커녕 비트겐슈타인은 아예 의미가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거부한다.

§99.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 문장의 뜻은, 이것 혹은 저것을 열린 채로 남겨 놓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은 하나의 확정된 뜻을 가져야만 한다. 불확정적인 뜻, 그것은 실제로는 전혀 아무런 뜻도 아닐 것이다.<sup>97)</sup>

§89. ……그러나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만은 우리가 이해하자!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sup>98)</sup>

실제로 『탐구』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수행한 작업은, ‘지시적인 표상 관계’에 대비되는 ‘사용’이라는 언어적 속성이 의미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요소임을 통찰하고 있지만, 그는 그런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들의 의미에 관해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비슨(Davidson)의 기준에 따라 ④의 요소를 올바른 의미 이론이 갖추어야 할 적절성 조건 중의 하나로 설정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은 실제로 적절한 의미 이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된다. 그러나 그런 이론적인 결함은, 익히 알

96) Davis, *op. cit.* P. 6.

97) Wittgenstein, *op. cit.* p. 45.

98) *ibid.* p. 41

려져 있듯이, 바로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의도한 바였다.

비트겐슈타인의 두 번째 답변(\*<탐구>에서의)은 언어비판이 그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은 언어를 그 고유한 적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으로 마치 휴가를 보내듯이 끌고 가는 모든 시도를 비난한다. 그러나 비판이 언어의 본질에 관한 사변적인 이론에 근거한다면, 그 이론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자신을 그러한 질서 속에 자리 잡게 해야 하고 그 자신의 집 안에서는 언어적인 고통을 멈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비트겐슈타인의 새로운 사유는 언어에 대한 이론화를 중단하고 언어에 관한 사실들을 수집하는데 집중하자는 것이다.<sup>99)</sup>

실제로 그의 철학적 목표는 ‘사용으로서의 의미’라는 근본적인 통찰을 기반으로 형식적 의미론 차원의 의미 이론을 완성하고자 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언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의미 문제에 관한 일관된 설명을 시도하는 모든 체계화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 자체야말로 지금껏 철학이 야기한 비정상적인 문제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0)</sup>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행위를 바라보고 언어적인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그의 근본적인 입장은 무엇일까? 아마도, 답은 이것이 아닐까 한다. ‘그대로 두라.’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의 서재에 들어가 그의 책들과 논문들이 온통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엉망진창이군! 우리가 이 방을 싹 치워야겠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처음 방과 매우 비슷해 보이는 방에 들어가서도, 방안을 둘러본 뒤에 그 방을 원래대로 내버려 두어야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심지어 먼지까지도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

---

99) Pears, *op. cit.* p. 38

100) 엄정식, 『분석과 신비』, p. 212.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철학적 문제들은 어느 특정한 철학적 관심이나 요구 때문에 언어를 인위적으로 확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다. 말하자면, 철학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일반화된 전칭명제를 찾으려 할 때 문제가 발단된다는 것이다.” 이론화 혹은 체계화의 목표는 바로 일반화된 전칭명제의 수립에 있는 셈이고,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에 있어서 아니, 적어도 언어에 관해서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고 본 셈이다.

하면서 말합니다.<sup>101)</sup>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란 두 번째 방의 경우에서처럼 무질서하게 벌려져 있지만, 손 끝 하나 대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 어떤 것이다. 굳이 언어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면, 그것은 단지 그 방 안에 무엇이 어떻게 널브러져 있는지 그 자체로서 기술하는 일 뿐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언어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바로 그것의 ‘사용’에 있으며, 그러한 성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머지 모든 언어적 특징들이 설명되어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바로 그런 언어적 표현의 근본적 성질 때문에 의미 문제에 대한 해명이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방식으로 일관되게 제공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더뎃(Dummett)은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해 주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의미는 사용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각각의 특수한 형태의 문장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생각을 동반한다. 이를테면, 주장적이거나 혹은 명령적인 문장들 같은 어떤 커다란 집합에 속하는 한 임의의 문장의 사용을, 미리 알려져 있다고 전제된 그 문장의 진리 조건들을 통해 명세화하기 보다는 말이다.<sup>102)</sup>……비트겐슈타인에게서 제기된 이러한 구절들을 받아들이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그가 의미 이론에 어떤 하나의 결정적인 개념이 존재한다는 전반적인 생각을 거부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각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의 사용이 지닌 모든 상이한 특징들의 직접적인 묘사를 통해 설명된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특징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획일적인 수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sup>103)</sup>

이렇듯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의미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화를 거부하는 이유로서 아마도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의 언어 사용은 규범적인 것이며, 그것은 곧 규칙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

---

101) 비트겐슈타인이 1946년부터 1947년까지 강단에 재직하던 시기에 적은 단평.(A. Janik & S. Toulmin, 석기용 역, 『빈, 비트겐슈타인, 그 세기말의 풍경』 pp. 340-341.) 그리고 “§ 98.……한편으로는, 우리 언어의 모든 문장이 각각 ‘있는 그대로 정돈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Wittgenstein, *op. cit.* p. 45)

102) M. Dummett,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p. 360.

103) Dummett, *op. cit.* p. 361.

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 사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언어 행위 속에서 어떤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규칙을 구체화하려는 순간 우리는 무한퇴행에 빠지고 만다. 왜냐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칙이 올바르게 적용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 또한 규범적인, 다시 말해 규칙 지배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 이론을 체계화하기 위해 언어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려 함으로써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대신에, 다소 느슨한 듯 보이는 ‘언어게임’과 ‘삶의 양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우리의 언어 사용과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둘째는, 언어가 우리의 삶과 맺고 있는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말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간들의 의사소통은 일상적인 담화의 형태를 띠 수도 있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협상을 하거나, 합의를 이루거나 등등 셀 수 없을 만큼 다양각색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한 언어적인 활동들은 우리의 삶의 분투 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것들이다. 인간의 거의 모든 삶의 에피소드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언어를 동반한다. “『논고』에 나타난 언어에 대한 이해와는 대조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단어들의 사용이 인간의 삶과 행위 속에 통합되는 잡다한 방식들을 열심히 강조하고 있다. 말(words)는 행위(deeds)라고 그는 말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단어들의 사용은 인간 삶의 테피스트리 속에 함께 짜여 있다.”<sup>104)</sup> 따라서 답은 간단하다. 우리 인간의 삶에 법칙이 있는가? 그런 법칙을 다룬 이론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삶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없다. 마찬가지로 언어에 대해서도 이론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종의 침묵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다소 거친 방식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논증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104) G. P. Baker & P. M. Hacker, *Wittgenstein: Understanding and Meaning*, p. 145

P① 언어적 표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사용된다는 것이다.<sup>105)</sup>

P② 나머지 특징들은 사용적인 속성에 종속적이다.<sup>106)</sup>

P③ 적절한 언어 의미 이론이라면 언어적 표현의 사용의 측면을 체계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P④ 본성상 언어적 표현의 사용의 측면을 체계적으로<sup>107)</sup> 해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sup>108)</sup>

---

C. 언어의 의미에 관한 적절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입장은 세 가지의 상이한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P①-P③를 옹호하는 언어적 실행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을 따라서 언어적 실행론을 받아들이고, 이론적 체계화를 더 이상 의미 이론의 과제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역시 P①-P③를 인정하는 언어적 실행론을 기반으로 하되 P④를 거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언어 의미 이론을 구성해낼 수

---

105) “§43. ‘의미’란 단어를 이용하는 경우의 많은 부류에 있어서……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즉, 한 단어의 의미는 언어에서의 그것의 사용이다.”(Wittgenstein, *op. cit.* p. 20) “§20.……그러나 문장들의 같은 뜻이란 그것들의 같은 사용에 있지 않은가?”(ibid. p. 10) “나는 ‘단어의 의미’를 ‘단어의 사용’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단어의 사용**은 ‘단어의 의미’로 의도하는 바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A. Ambrose, ed. *Wittgenstein's Lectures, Cambridge 1932-35, from the Notes of Alice Ambrose and Margaret MacDonald, Baker & Hacker, op. cit.* p. 145에서 재인용.)

106) “§10.……그런데 이 언어의 낱말들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그것들의 사용 방식에서가 아니라면, 그것들이 지칭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단 말인가?”(Wittgenstein, *op. cit.* p. 6) “§30.……낱말이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이미 명료하다면, 지시적 정의는 낱말의 사용-의미-를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ibid. p. 14) “§31.……이름을 가지고 이미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유의미하게 이름을 물을 수 있다.”(ibid. p. 15)

107) 여기서 말하는 ‘체계성’의 의미는 언어게임 의존적인 차원에서의 상대적 체계성이 아니라 언어 일반에 관한 총체적인 차원에서의 체계성이다.

108) “§23. ……그러나 얼마나 많은 종류의 문장들이 존재하는가? 가령, 주장, 물음, 그리고 명령? 이런 종류는 **무수히 많다**. 우리가 ‘기호들’, ‘낱말들’, ‘문장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무수히 많은 상이한 종류의 사용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다양성은 고정된 것, 딱 잘라 주어진 것이 아니다.”(ibid. p. 11) “§107.……우리가 실제의 언어를 더욱 정확히 고찰할수록, 그것과 우리의 요구 사이의 충돌은 더욱 강해진다. (논리학의 수정체 같은 순수성은 실로 나에게 탐구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요구였다.)” (ibid. p. 46.)

없다는(또는, 그래서 안 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다.

대체로 사용의 속성보다는 지시적 속성을 더 근원적으로 간주하는, 의미에 관한 표상주의적인 설명 모형을 근본 전제로 삼는 사람들이 전자의 입장을 택한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표상하는 것’과 ‘표상된 것’ 간의 관계를 기본 값으로 설정하는 유형의 의미 이론이 결과적으로 적절한 형태의 체계적인 의미 이론을 산출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후기 프레게, 리셀, 그리고 논리실증주의의 분석철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지칭 관계의 해명에 주력해온 카르납, 크립키, 퍼트남 등 현대 언어 철학자들과 드레츠키, 밀리칸, 포더 등과 같은 인지과학 분야의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

두 번째 입장을 지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는 아마도 리처드 로티일 것이다. 그는 20세기의 언어적 전회의 결말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유가 세계의 거울이 아니며, 우리의 언어가 세계를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며, 철학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의 의미 이론의 과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 편, 세 번째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탐구』에서 제시된 비트겐슈타인의 근본적인 실행적 언어관에 동조하며 그런 차원에서 ‘사용으로서의 의미’라는 기본 관점을 수용하지만, 동시에 비트겐슈타인의 태도와는 달리, 언어적 표현들의 의미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체계적인 적절한 의미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sup>109)</sup> 브랜덤의 주론주의 의미 이론은 바로 이러한 후자의 부류에 속하는, 근래에 제기된 가장 설득력 있는 체계적 이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른바 사전적 의미 혹은 객관적 의미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와 의사소통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어적 실행론을 정교하게 이론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브랜덤이 자신은 비트겐슈타인의 실행론의 ‘한 차원’만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던 이유는 이제 분명하다.

왜냐하면, 비록 그(\*비트겐슈타인)가 그런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납득시켜 주었음

---

109)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에 대한) 첫 번째 견해에서 두 번째 견해로 넘어갔을 때, 그는 의도적으로 세 번째 가능성을 건너 뛰어 버렸다. 언어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에 관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와 동시에 철학이 언어에 대한 이론화의 모든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Pears, *op. cit.* p. 39.)

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유에 담긴 다른 특징들, 특히 그의 이론적인 침묵주의는 그의 추종자들이,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사용에 관한 하나의 세밀한 의미 이론을 구성해내려는 시도를 좌절시켜왔기 때문이다.<sup>110)</sup>

그렇다면, 언어적 실행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브랜덤이 도입하는 결정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어적 표현들 사이에 성립하는 ‘추론(inference)’ 관계, 혹은 특정 개념이 갖는 추론적 역할이다. 브랜덤에 따르면, 어떤 언어적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것이 우리의 언어적 실행 속에서 주장되었을 때, 그것이 무엇의 이유로 역할하고 있으며 무엇의 귀결로서 역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주장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련된 추론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적 실행론을 근본적인 관점으로 택하고 거기에 ‘추론’이라는 결정적인 장치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언어 의미 이론을 제공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비트겐슈타인과는 대조적으로, 개념에 대한 추론적 확인이 이루어졌을 때, 언어는 중심을 갖는다. 그럴 때, 언어는 누더기가 아니다.<sup>111)</sup>

## 5. 맺음말

만일 누군가가 포괄적인 언어 의미 이론을 제공하고 싶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모두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언급된 중요한 언어적 성질이라면, 언어의 조합성, 규범성, 표상성, 객관성, 그리고 사용에 관련된 속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의미에 관련된 이런 사실들을 모두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 의미 이론을 과연 구성할 수 있을까?

적절한 의미 이론에 부과된 이러한 요구 조항들은 한 번에 하나씩 조차도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훨씬 더 요원해 보인다.

---

110) MIE, Preface xiii.

111) AR, p. 14.

우리의 언어가 지닌 이러한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일상의 상식에 가장 가까운 접근 방식은 언어적 표현이 지닌 표상적인 속성을 일종의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그 성질에 기반 하여 나머지 모든 특성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표상주의적인 프로그램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아마도 사용적인 속성에서 출발하여 언어의 의미에 관련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설명 언어의 사용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그것은 직관적인 호소력의 우월성을 얘기해 줄 뿐이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와 관련된 많은 성질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러한 직관적인 호소력은 힘을 잃고 말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은 사용적인 속성을 가지고 이론 체계를 수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언어의 조합적인 성질을 어떻게 사용적인 속성들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인가? 복합 문장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 문장들의 의미에, 단순 문장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아문장적인 부분들에 의존적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표상주의 의미론자들은 이러한 성질이 사용 이론과는 부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데이빗슨, 데비트, 포더, 플래트 등은 언어의 사용적인 속성들은 의미의 속성인 조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 조건적인 접근 방식의 결정적인 이점은, 오로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언어의 조합성, 즉 어떻게 복합적인 의미가 그것의 구성요소들의 의미를 통해서 발생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언어의 사용적인 측면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의미론자라면,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직관적인 통찰에 덧붙여,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이 언어의 중요한 성질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만 한다. 언어적 실행론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중대한 통찰을 계승한 브랜덤의 전략은 추론이라는 결정적인 개념을 이용하면 언어 사용 이론이 그러한 종류의 과제를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Ⅲ.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배경

#### 1. 들어가는 말 - 추론주의의 지형도

본격적으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론을 고찰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의 입장이 전반적인 철학적 풍경 속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윤곽을 그려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브랜덤이 주장하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려보고자 한다.

하나는, 브랜덤의 입장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그에 상응하는 반대 입장들과 대비해보는 것이다. 브랜덤은 자신의 추론주의 의미론이 의도한 전체적인 기획은 ‘개념적인 것(the conceptual)’의 본성<sup>112)</sup>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우리가 개념을 사용하고 또 그러함으로써 그 개념에 내용을 부여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면서 그는 몇 가지 주요한 입장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이를테면, 개념 사용자와 비(非)개념 사용자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 개념의 내용을 통해서 개념의 사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사용을 통해서 개념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 개념적 활동은 근본적으로 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표현의 문제로 간주한다는 점, 개념의 특징은 특별한 종류의 내포적인 요인들이 아닌 추론적인 관점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아(亞)문장적인 벽돌 조각들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의미 구성 대신에 명제의 내용에서 출발하는 하향식 의미 구성의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 ‘표상’보다 ‘표현’을 중시하며, 그러한 표현의 과정을 통해 개념적 내용의 명료성과 추론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간주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개념적인 것’의 성격과 자신의 입장이 지닌 방법론적인 특성을 그에 대비되는 몇 가지 입장들과 함께 대조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성격을 좀 더 선명하

---

112) 브랜덤은 ‘개념 혹은 개념적인 것(the conceptual)’에 대한 정의를 특히 칸트의 생각과 비교하고 있다. 칸트에게 있어서 개념은 내용(content)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형식(form)에 해당하고, 특수한 것들(particulars)에 대비하여 일반적인 것(general)에 해당하며, 수용성의 산물인 직관에 대비되는 자발성의 산물이다.(MIE, p. 616, 참조) 반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브랜덤이 생각하는 ‘개념’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조직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추론적 역할과 더불어 이해되어야 하며, 추론적인 역할을 갖는 한 특수한 것(이를테면, 단칭명사)에도 개념적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또한 수용성과 자발성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수용성의 산물들 자체가 개념적인 다시 말해 추론적 역할을 갖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MIE, pp. 618-622, 참조)

게 드러내고자 한다.<sup>113)</sup>

다른 하나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는 것이다. 브랜덤은 추론주의적인 관점이 서양 철학의 주요한 전통에 맞닿아 있으며, 그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철학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의 입장을 새로이 해석한다. 그는 그러한 시도가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음을 밝히면서<sup>114)</sup> 20세기 초창기의 분석 철학적 전통이 체계와 역사를 모두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sup>115)</sup> 그럼, 먼저 개념적인 측면에서 추론주의가 무엇에 찬동하고 또 무엇을 거부하는 입장인지 먼저 살펴보자.

## 2.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이론적 배경

### 2-1. 인간 대 온도계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명체 더 나아가 온도계까지 모두 일종의 자극-반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브랜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개념 사용적인 유기체인 반면 인간 이외의 동물들이나 온도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며, 브랜덤은 그러한 차이점이 그들 간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 철학의 지배적인 경향은 브랜덤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 사실이다. 철학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데카르트 이래로 인식론과 의미론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바로 표상 혹은 표상 작용이었고, 그러한 표상 능력이 특정한 생물 종 즉 인간에게 독점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sup>116)</sup>. 그리고

---

113) AR, Introduction 참조. pp. 1-44.

114) “나의 앞서의 책인 *Making it Explicit*에서는, 체계적인 고려 사항들이 전면에 나와 있었고, 역사적인 고려 사항들은 배경으로 물러나 있었다. 이 책은 그러한 모양-배경의 계슈탈트를 뒤집은 것이다……” (TMD, p. 1.)

115) “……유년기의 분석 철학은 역사적인 철학적 기획과 체계적인 기획 둘 다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하였다.” (ibid.) 물론, 여기에 언급된 ‘체계적인 기획’이란 과거의 철학이 보여 주었던 거대한 형이상학적 골조물과 같은 것을 말하며, 따라서 그것은 앞 장에서 거론된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적 침묵주의의 논의와는 다른 맥락이다.

116) AR, p. 7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개념적인 활동 역시 넓은 의미에서 표상적인 인지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이 현대의 철학적 탐구에서 하나의 전형적인 연구 경향을 만들어냈다고 브랜덤은 지적한다. 즉, 일반적인 표상의 개념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주로 비(非)개념 사용적인 피조물들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형태의 표상들을 토대로 우리가 개념적인 표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표상을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sup>117)</sup>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인간과 온도계 사이에 의미 있는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고 그들이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과 온도계가 연속선상에 있다고 간주할만한 분류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브랜덤은 그러한 비본질적인 유사성보다는 근본적인 차이성이 훨씬 더 유의미한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온도계가 공히 표상적인 인지 작용을 수행하는 자극 반응 체계이며 또한 외부의 자극에 일정한 반응을 산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빙성 있는 지표<sup>118)</sup>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둘 다 지향적인 체계로 간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현대 철학의 자연주의적 경향성<sup>119)</sup>에 대해서, 브랜덤은 그러한 두 지향적 체계가 지닌 지향성에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지향성을 구분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sup>120)</sup> 그리고 그 구분의 기준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다른 존재자의 행동에 대한 지향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오로지 지향적인 체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 모든 체계가 지향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브랜덤은 귀속된 지향성과

117) *ibid.*

118) “암스트롱(Armstrong)에 따르면, 한 인식 체계는 온도계와 다름없다. 온도계가 외부 세계와 역학적 관계를 맺고 그 온도를 눈금을 통하여 표시하듯이, 한 인식 체계, 예를 들어, 시각은 세계와 일정한 역학적 관계를 맺으면서 세계에 존재하는 사태를 시각적 믿음을 통해서 표시한다.”(김기현, 『현대인식론』, p. 85.)

119) 브랜덤은 지향적 체계에 대한 지향적 설명을 시도했던 데넷(Dennett)의 소위 ‘자세를 취하는 자세(the Stance Stance)’라는 주장을 이러한 경향성과의 대비 하에서 새롭게 해석한다. 타 존재자의 행동을 지향적 태도로 해석하고 그 존재자에게 지향성을 귀속시킴으로써 그것을 지향적 체계로 간주하는 데넷의 설명 전략은, 나중에 다뤄지겠지만,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론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측면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브랜덤은 지향성을 귀속시키는 일종의 규범적인 태도를 설명의 도구로 제시한 데넷의 이러한 시도가, 흔히 받아들여지듯, 반드시 그러한 지향성과 규범적 태도의 자연화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향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에 의해 지향적인 체계로 적절히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대우된다는 차원에서 지향적 체계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지향성을 비(非)지향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환원적인 전략이 되는 것은 아니다.”(MIE, p. 58.)

120) MIE, pp. 55-62, 참조.

그렇게 무언가에게 지향성을 귀속시키는 해석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향성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며, 전자를 파생적인 차원의 지향성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이른바 본래적 지향성(original intentionality)으로 부를 수 있다고 제안한다.<sup>121)</sup> 그것은 다시 말해 ‘지향성을 생산하는 것’과 ‘생산된 지향성’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sup>122)</sup>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론이 전제로 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 중의 하나는 오로지 개념 사용적인 존재자들만이 본래적 차원의 지향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오로지 그런 존재자들만이 다른 존재자들을 지향적인 체계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브랜덤에게 있어서 인간과 온도계의 차이는 단순한 정도가 아닌, 결코 한 부류로 취급될 수 없는 결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종종 참인 믿음들을 주장하곤 하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믿음들을 신뢰할만한 메커니즘들에 의해 획득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런 믿음들에 대한 이유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은 그러한 믿음 소유자들의 공동체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는 좋게 보아도 분명치 않다.……믿음들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신빙성의 개념조차도 가질 수가 없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개념 역시 마찬가지이다.<sup>123)</sup>

## 2-2. 도구적 합리성 대 추론적 합리성<sup>124)</sup>

인간과 인간 사회가 지닌 결정적인 특징으로서 합리성(rationality)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철학적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도구적인 합리성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가진 합리적 추론 능력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가진 욕망, 기호, 믿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행위 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시 말해 어떤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도구적 합리성 모형과

121) MIE, p. 60.

122) MIE, p. 59.

123) AR, p. 107.

124) TMD, pp. 1-17, 참조. 여기서 브랜덤은 최소한 다섯 가지의 합리성 모형을 구별한다. 논리적, 도구적, 해석적, 추론적, 역사적 합리성의 모형이 그것이다.

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 논리적으로 훌륭한 논증을 준별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논리적 합리성 모형은 믿음들 간의 근거-주장 관계를 형식적으로 명시화하는 이론적 추론에 관련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이 결국은 최선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구적 합리성 모형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브랜덤에 따르면, 이러한 도구적 합리성 모형(논리적 합리성 모형도 마찬가지이다)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내용을 가진 믿음과 욕망을 일종의 입력 값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일단 일군의 믿음과 욕망의 집합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들 간의 합리적 관계를 설정하려 하는 것이 바로 도구적 합리성 모형의 근본적 태도인 것이다. 따라서 도구적 합리성 모형 하에서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들의 내용이 그들 간의 합리적 관계에 대한 고려에 앞서서 그러한 고려와는 독립적으로 납득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전제된다.”<sup>125)</sup>

이와는 달리 브랜덤은 추론적 합리성이라는 독특한 의미의 합리성 모형을 제시한다. 그러한 의미의 합리성 모형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가 이유를 제시하고 또 이유를 요청하는 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며, 그가 내뱉는 발화와 그가 보유한 심리적 상태들은 그것들이 상호간에 추론적 관계 속에 놓여 있게 될 때, 즉 그것들이 상호 간에 이유로서 기여하고 또 이유를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을 때, 바로 그 경우에 명제적으로 내용을 가지게 된다.<sup>126)</sup> 한편, 이유를 제공하고 요청하는 행위는 대화 상대자들이 찬동하고 있는 바(commitments)를 스스로 책임지고 또 상대방에게 귀속시킬 뿐 아니라 그러한 책임과 귀속에 수반되는 권한(entitlements)을 입증하는 규범적 실행론의 맥락 속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추론적 합리성의 모형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찬동과 권한의 필연적 관계 구조의 형태로 귀결된다.

### 2-3. 개념적 실재론 대 개념적 실행론

브랜덤의 추론주의는 언어적 표현의 사용 혹은 지향적 상태의 기능적 역할이 어떻게 그러한 표현에게 개념적인 내용을 부여하게 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내용에 대한 선행하는 이해를 통해 개념의 사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와 대비된다. 브

---

125) AR, p. 4

126) AR, p. 6

랜덤은 후자의 입장을 이른바 플라톤주의적인(즉, 개념 실재론적인) 설명 전략이라고 부르며, 이런 의미에서 평서문이나 믿음의 내용을 가능세계의 집합이나 진리조건과 동일시하는 의미론적인 입장을 개념적 플라톤주의의 한 변형이라고 평가한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이데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실제로 플라톤의 대화편은 언어적 쓰임새에 관한 철학적 논쟁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이를테면, 『유티프론』편에서 소크라테스는 유티프론이 ‘경건’이라는 표현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있는지 추궁한다. 여기서 플라톤의 존재론은 궁극적으로는 언어적 표현의 올바른 쓰임새를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황이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을 개념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불변의 절대적 형상 즉 경건함의 이데아와 모종의 유사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언어적 표현의 올바른 사용을 결정하는 일종의 언어적 규범이자 동시에 언어적 표현의 내용을 제공하는 원형으로서 우리가 언어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획득해야만 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이에 반해 브랜덤의 추론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혹은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knowing how)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knowing that), 일종의 기능주의적인 설명 전략을 택한다는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방법론을 이어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개념적으로 명시적인(explicit) 명제나 원리의 내용을 표현을 사용하고 믿음을 획득해서 배치하는 실행 속에 내재된(implicit) 것 쪽으로부터 접근한다.”<sup>127)</sup>라는 측면에서 개념적 실행론(conceptual pragmatism)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2-4. 지향성 : 언어 대 마음

지향성(intentionality)<sup>128)</sup>의 근본적인 소재지는 어디인가? 언어인가, 아니면 마음인

127) AR, p. 4. 칸트가 근대 철학의 인식론적인 탐구에 처음으로 의미론적인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은 언어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역사에서 분명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그와 20세기의 언어 철학자들 간에 중대한 설명 순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칸트에게 우선적으로 설명을 요하는 것은 과학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정신의 선험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었다.

128) 브랜덤은 자신이 주제로 삼고 있는 지향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기서 탐구될 주제는 뜻

가? 언어는 마음이 특정한 지향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 표현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마음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적 행위에 담긴 지향적 태도로부터 역으로 상정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전통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언어는 사유의 표현 수단이다. “데카르트에서 칸트에 이르는 철학적 전통은 개념 사용의 본래적인 원조 소재지로서 마음에 특권을 주고 언어를 개인의 선행하는 심적 활동 무대 안에서 기존에 잘 형성된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부차적인, 단지 도구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격하시켰다.”<sup>129)</sup> 그러나 20세기의 언어철학적 탐구는 언어를 단지 마음의 지향적 상태 혹은 사유의 내용을 표현하는 편리한 도구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유일한 수단이거나 혹은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라면, 그것은 단지 ‘수단’일 수 없기 때문이다.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사유의 한계는 곧 언어의 한계”라고 주장하였고, 그것은 마음이 최소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유의 내용을 갖거나 그러한 특정한 지향적 상태에 놓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더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장(assertion)을 판단이라는 내적 행위의 (외적) 표현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철저하게 반대한다. 오히려 주장이라는 외적 행위가 내재화된 것이 판단”<sup>130)</sup>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유와 표현 간의 내외(内外) 관계를 뒤집어버렸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브랜덤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의 입장은 “언어와 사유는 어느 쪽도 개념적인 우선성을 갖지 않는다.”<sup>131)</sup>고 보고 그 둘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최소한 언어에 부차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입장을 부인했던 데이빗슨의 노선을 따른다.

브랜덤에 따르면, 개념은 “문장이나 다른 언어적 표현들의 공적인 사용을 통해 언어의 영역에 적용되며, 믿음이나 다른 지향적 상태들의 사적인 수용과 이성적인 의존에 의해서 마음의 영역에 적용되는”<sup>132)</sup> 것이지만, 두 활동 영역이 제각기 배타적으로 개념적인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브랜덤의 관심사이자 설명 전략은, 셀라스의 표어를 따라서, 개념의 파악을 단어의 사용법을 숙달하는데서(좀 더 구체적으

---

의 함합성(directedness)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태도의 명제적 내용성이라는 의미에서의(만일 그 둘이 다른 것으로 밝혀진다면) 지향성이다.……이 탐구는 가장 멋진 유형의 지향성, 즉 언어적 실행 속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표현적 능력들에 관련된 지향성을 지향한다.”(MIE, p. 7)

129) AR, p. 5

130) Dummett, *op. cit.* p. 362

131) Davidson, ‘Thought and Talk’ in *An Inquiry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p. 156

132) AR, p. 5

로 말하자면 단어의 사용법이란 그것의 추론적 역할이다), 나아가 그러한 언어적 실행들이 어떻게 명제적으로 내용을 갖는 지향적 상태를 그러한 실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언어적 실행론(linguistic pragmatism)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구체적인 개념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사용적인 측면으로부터 문제에 접근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랜덤에게 언어의 사용을 파악하는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언어적인 표현들이 추론의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추론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명시적인 언어적 표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지향적 상태에 대한 찬동과 권한귀속의 복잡한 구조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브랜덤의 언어적 실행론은 마음의 지향적 상태가 지닌 개념적 내용을 명시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지향적 상태를 설명의 도구로 요청하게 된다는 점에서 마음과 언어의 상보적 관계를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5. 추론주의 설명 전략 : 전체론 · 하향식 대 원자론 · 상향식

우리는 이미 앞에서 표상주의자들이 전형적으로 채택하는 의미 설명 전략을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해보자. 브랜덤에 따르면, 데카르트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지적인 내용성을 이해하는 주도적이고도 전형적인 개념은 바로 표상이었다. 일반적으로 표상주의는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의 구체적인 사용의 맥락이나 사용자의 의도 등과 독립적으로 대상 혹은 대상들의 집합과의 지칭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고,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에 따라 함수적으로 구성되는 진리 조건들로서 주어지며, 문장들 간의 추론 관계는 그렇게 문장의 의미가 결정된 이후에 상호 간의 집합론적인 포함 관계를 통해 그 적절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서 단어와 문장은 다른 언어적 의미체를 동원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사전적 혹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며, 바로 그 요소가 그러한 언어적 표현들의 사용에 있어서 적절성의 규범을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통적인 논리학이나 특히 로크와 같은 언어 의미 이론에서 나타나는 의미에 대한 설명 방식을 보면, 우선 항(terms)에 해당하는 것들(단칭적인 것이건 보편적인

것이건)을 개개의 개념들(술어에 해당하는)과 연결시키고, 그러한 개념들의 연결 관계에 의해서 문장이 형성된다고 간주하며, 따라서 문장의 의미란 그러한 연결 관계를 통해 합수적으로 결정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표상주의적인 설명 전략은 단어들을 의미의 기본적인 단위로 채택하여 그것들의 조합적인 특성으로 문장의 의미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칸트 이래의 문장 혹은 명제 차원의 담론 즉 이른바 명제주의(propositionalism)와 달리 본질적으로 상향식 설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sup>133)</sup>, 또한 개개의 원초적인 의미 단위들이 상호 의존성 없이 독자적으로 의미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원자론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브랜덤이 선택한 추론주의적인 설명 전략을 표상주의의 전략과는 상반된 입장을 견지한다.

추론주의자들은 표상주의자들과는 거꾸로 언어적 표현이 가지는 추론적인 속성을 통해서 그것의 표상적인 속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언어적 표현의 내용이 대상과의 지시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이 갖는 추론적인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추론주의 의미론은 “무엇이 무엇의 이유(reason)가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의 내용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진리와 표상을 단지 현시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론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해당하는 생각들의 특징들로서 이해한다.”<sup>134)</sup> 의미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개념의 추론적 역할, 즉 무엇이 무엇의 이유가 되는가에 있다면, 그것은 곧 그러한 개념의 성격이 명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추론의 기본 단위는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 사용의 핵심은 개념들을 명제적으로 내용을 갖는 주장들, 믿음들, 그리고 사유들에 적용하는 것이다.”<sup>135)</sup> 왜냐하면 명제적인 차원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들만이 추론에서 전제와 결론이 갖는 기본적인 추론적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추론주의 의미론은 전형적인 명제주의적인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명제적 내용성으로부터 표상적인 내용성을 설명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표상주의의 상향식 설명 전략과 대비

---

133) 그러나 표상주의적인 설명 전략이 이러한 상향식 설명 체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점은 브랜덤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이를테면, 타르스키(Tarski) 형식의 전형적인 상향식·표상주의적 설명 전략과는 달리 “평서문에 의미론적 해석값(예를 들면, 가능 세계의 집합 등)을 할당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플라톤주의적인 표상주의적 의미 이론들도 존재한다.” (AR, p. 13.)

134) AR, p. 47.

135) AR, p. 12.

는 하향식 설명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하향식 설명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의미 전체론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향식 설명 순서를 채택하는 표상주의적인 의미론은 의미론적인 해석 값을 개별적인 요소들에 할당하고 각 요소들이 갖는 의미는 제각기 독자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원자론적인 성격을 띤다. 그와 대조적으로, “추론주의 의미론은 단호히 전체론적이다. 개념적 내용에 대한 추론주의적인 설명에 의하면, 누구든 많은 개념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단 하나의 개념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각 개념의 내용은 다른 개념들과의 추론적 관계들에 의해서 명료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개념들은 묶음들로 제기되어야 한다.”<sup>136)</sup> 브랜덤에 따르면, 의미 전체론은 의미에 관한 추론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귀결이다. 그리고 추론주의가 바로 그런 함축을 갖는다는 점에서 포더, 데비트 등의 표상주의자들은 추론주의 의미론의 이론적 성공 가능성에 회의를 품는다. 이와 관련된 추론주의와 의미 전체론의 문제는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 2-6. 거울 대 램프

철학사적으로 보통 근대철학기라고 불리는 계몽주의시기에 의미론과 인식론 분야에서 다뤄진 가장 대표적인 철학적 개념은 표상(representation)이었고, 그 시기의 주요한 철학적 과제 중의 하나는 어떻게 인식 주체가 성공적으로 외부 세계를 표상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브랜덤에 따르면, 이러한 그 당시에 이런 주도적 개념에 맞서 있던 또 다른 중요한 전통적 개념이 바로 당시의 예술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표현(expression)의 개념이다. “거울로서의 마음이라는 계몽주의적인 구도에 대하여, 낭만주의는 램프로서의 마음이라는 이미지를 대비시켰다. 광범위하게 인지적인 활동은 일종의 수동적인 반영으로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드러냄으로 이해되었다.”<sup>137)</sup>

그러나 여기서 브랜덤은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주의와 합리주의적인 표현주의를 구분한다. 전통적인 낭만주의적 표현주의는 우리가 그 시기의 예술 작품들에서

---

136) AR, pp. 15-16

137) AR, p. 8. 브랜덤은 M. H. Abrams의 저서 *The Mirror and the Lamp: Romantic Theory and the Critical Tradition*에서 거울과 램프의 이미지를 인용하였다고 밝힌다.

흔히 접할 수 있듯이, 감정과 열정으로 가득 찬 내면세계를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표현물로 외재화함으로써 예술의 창작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브랜덤이 말하는 합리주의적 표현주의에서의 표현이란 무언가 안에 있는 것으로 밖으로 끄집어낸다기보다는 사유자로서의 인간이 암묵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무언가에 개념적인 형식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등잔을 비추듯 그러한 암묵적(implicit)인 것들을 명시적(explicit)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논의에서 ‘표현’이란 다음과 같은 방식의 개념화를 뜻한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개념화한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장하거나 혹은 판단하는 것이며, 그것에 관해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것을 이유들로서 그리고 이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형태 안에 집어넣는 것이며, 그것을 추론적으로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sup>138)</sup>

표현이라는 추론적 명시화의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암묵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브랜덤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하나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암묵적인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up>139)</sup>

(1) 문제의 바로 그 주장 가능한 내용에 대한 찬동들로의, 그리고 그것들로부터의 추론적 수순을 지배하는 적절성(propriety).

(2) (1)에서 언급된 실행적 적절성에 따라서, 바로 그 최초의 주장으로부터의 추론적으로 귀결되는 다른 주장들.

(3) (1)의 추론들에 의해서 명료화 되는, 바로 그 주장의 개념적 내용.

브랜덤에 따르면, 이러한 암묵성의 개념은 명시성에 대한 기본적인 추론적 모형으로부터 얻게 되는 직접적인 산물이다. (3)에 해당하는 암묵성은 바로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명제적 내용성에 해당하는 것이며, (2)는 (1)로부터 파생되는 암묵성이다. 문제는 (1)에 해당하는 암묵성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추론의 적절성을 지배하는 개념적인 규범들인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암묵성을

---

138) AR, p. 16.

139) AR, p. 19.

납득 가능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결국은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궁극적 성패를 가르는 문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합리주의적 표현주의가 함축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의의를 다루어 보자. 표상주의 의미 이론에서 설명되지 않는 설명자 즉 원초적인 개념들로 받아들여지는 논리, 진리, 지칭 등의 개념들이 이러한 합리주의적 표현주의의 구도 하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브랜덤의 주장에 따르면, 논리는 진리에 접근하는 인식적인 도구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만약 논리가 없었으면 명시화될 수 없었을 무언가를 말하기 위한 특별한 도구의 집합으로서, 표현적인 어휘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sup>140)</sup> 앞에서 언급했듯이, 브랜덤에게 있어서 표현이란 암묵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doing)’을 명시적으로 ‘말하는(saying)’ 과정이다. “암묵적인 행위 지식(know how)을 명시적으로 만드는 것은(know that) 그것을 어떤 것이 이러저러하다는 주장의 형태에 집어넣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에 그렇게 하기 위한 핵심적인 표현적 재료는 기본적인 논리적 어휘들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다.”<sup>141)</sup>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표현적인 도구는 바로 대표적인 논리적 어휘인 조건문(conditional)을 만드는 연결사이다. 그것은 추론의 기본적인 골격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조건문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추론의 과정으로 통해 암묵적인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논리적인 어휘들을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나는 일상적인 명시적 주장을 하는데 적용하는 개념들의 내용을 명료화하는 암묵적인 추론적 찬동들을 명시화할 수 있다. 여기서 의식(생각한다는 의미에서의)의 본래적적인 추론적-명제적 모형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적용된다.<sup>142)</sup>

이렇듯,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론에서 논리와 논리적 어휘들은 추론적 명시화의 과정을 고차원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표현상의 도구로서 이해된다. 그런 방식의 이해는

---

140) ibid.

141) ibid.

142) AR, p. 20.

진리와 지칭의 개념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진리 술어와 지칭 술어는 표상주의자들의 입장에서처럼 원초적인 의미론적 장치들이 아니라, 추론적 역할을 통해 드러나는 명제적 내용성이 갖는 표상적인 측면을 명시화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연산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어휘들로 간주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4장에서 명제적 내용이 갖는 표상성과 객관성 문제를 검토할 때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 3. 추론주의의 철학사적 배경

이번에는 브랜덤의 추론주의가 기존의 철학적 전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브랜덤이 자신의 이론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과거의 철학자들에게서 어떻게 찾아내고 있는 검토해 보자.

#### 3-1.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브랜덤이 내세우는 추론주의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와 지향적 상태, 더 나아가 의식(awareness, 즉, perception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지각) 그 자체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추리 과정에서 수행하는 특징적인 유형의 역할로서 이해되어야 한다.”<sup>143)</sup>고 주장한다. 이렇듯 표상(representation)보다 추론(inference)에 특권적인 우선성을 부여하는 브랜덤의 입장과 이른바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이 충돌하던 근대 철학 전성기의 철학적 담론을 비교해 보자.

근대 철학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인식론적인 확실성의 근거를 찾는 것이었고, 우리가 가진 지식의 확실성을 무엇이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근대 인식론의 문제를 주도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표상(representation)이었으며, 중심 과제는 외부 세계를 성공적으로 표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필요한지 탐구하는 것이었다.<sup>144)</sup> 로크, 버클리 흄 등의 경험주의자들은 우리의 인식이 선행하는 개념이나 인식의 구조 없이 전적으로 감각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인식론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이를테면 로크의 경우, 우리 언어에서 단어의 의미는 단일한 경험을 통해

---

143) AR, p. 1.

144) MIE, p. 93

형성된 단순한 관념을 지칭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주의적인 언어 의미론은 고전적인 형태의 표상주의 언어 의미이론의 전형으로 성립되었다.<sup>145)</sup>

합리주의자들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경험적 인식이 그 자체로 지식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그 주된 이유는 여전히 인식론적인 확실성의 문제 때문이었다. 즉, 경험적 내용의 유의미성 문제라기보다는 성공적인 인식의 조건은 무엇인지 해명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과제였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경험적인 인식만으로는 지식의 확실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우리의 경험적 지식이 어떻게 참되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되지 않는 설명자(unexplained explainer)’를 찾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경험론과 합리론을 막론하고 칸트 이전 시기의 근대 철학의 공통점은 “관념들의 질서와 관계들”이 갖는 **규범적인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sup>146)</sup> 브랜덤의 해석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철학사적인 의의는 이전까지 유사성(resemblance)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해된 정신적인 현상(appearance)과 실재(reality) 사이의 관계를 표상적 관계 즉 표상과 표상되는 것 사이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관계로 전환시킨 것이었다.<sup>147)</sup> 결과적으로, 데카르트는 현상과 실재의 관계를 표상하고자 의도하는 본성을 가진 마음 실체와 그것에 의해서 표상되는 물질적 실체를 구분하게 되었다. 하지만 데카르트에게는 오직 성공적인 표상만이 관심사였을 뿐 마음 실체의 본성, 즉 무언가를 표상하고자 기도한다는 바로 그 특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의 공헌은 표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외연을 지배하는 수학적 법칙들에 대한 연구인 분석 기하학의 방법을 도입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브랜덤은 평가한다.<sup>148)</sup> 브랜덤은 데카르트가 이런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유사성 관계가 아닌 표상 관계를 철학의 전면에 끌어들이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합리론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sup>149)</sup> 하나는, 전체론적인 관점이다. 즉, 표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상물들의 전체적인 구조적 체계를 살펴보아야

---

145)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각각의 단어는 다른 단어 따위를 동원하지 않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독자적인 의미를 소유하며, 그 때의 바로 그 말 그대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단어가 어떤 문장이나 맥락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된다.

146) *ibid.*

147) TMD, p. 24.

148) AR, p. 25.

149) AR, pp. 25-26.

한다는 것이다. 유사성의 관점에서의 현상과 실제의 관계를 고려할 때는 당연히 문제가 유사성 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두 항목들만의 것에 한정되는 원자론적인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표상 관계에는 수학적 체계가 동원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분히 전체 체계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2$ 라는 수학적 문장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수학이라는 전체 체계에 의존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측면이 드러난다. 즉, 표상과 표상된 것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는 그 표상과 다른 표상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유와 대상 간의 수직적 관계는 근본적으로 사유와 사유들 간의 수평적 관계에 의존한다.”<sup>150)</sup> 브랜덤은 이러한 특징들에 영향을 받은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합리론에서 기능주의(functionalism)와 추론주의의 면모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브랜덤은 스피노자가 이성지(ratio)와 직관지(scientia intuitiva)를 구분하고 있음에 주목한다.<sup>151)</sup> 그에 따르면, 스피노자의 직관지란, 인과적이고 추론적인 관계를 통해 부분들로부터 더 큰 총체성을 형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이성지의 행사에 의해서 준별된 관계적인 총체들에서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분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유형의 특징적인 이성의 능력으로서, 그것은 바로 그러한 더 큰 총체들의 맥락 안에서 더 작은 총체들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들 혹은 기여들을 고려하는 능력이다. 이 점에서 스피노자는 이성적이고 인과적인 일종의 **기능주의**적인 관점을 기술하고 있다고 브랜덤은 평가한다. 그것은 이성지의 차원에서 통용되는 원자론적인 상향식 설명의 결과물들에 작용하는 본질적으로 총체론적인 하향식 개체화의 원리인 것이다.

우리들의 정신이 완전한 자연의 모상이기 위해서는 정신의 모든 관념들을 전체적인 자연의 근원과 원천인 관념에서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우리들은 여기서 당장 그가 『윤리학』에서 적용한 ‘기하학적인 질서’라고 하는 방법,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존재를 설명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 때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공리를 세우고, 정리와 증명을 해나가게 된다.<sup>152)</sup>

150) AR, p. 26.

151) AR, pp. 26-27, 참조.

152) 요하네스 힐쉬베르거, 강영계 역, 『서양철학사』 하권, p. 221.

또한 브랜덤에 따르면, 적어도 데카르트에 비해서는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을 표상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sup>153)</sup>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호소한 원초적인 원리는 추론적인 관계들, 즉, 무엇이 무엇의 이유가 되는가에 관한 사실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인식 주체가 무언가를 채택하여 무언가를 표상한다는 것이 어떤 함축을 갖는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중대한 생각은 표상물들이 그들 자체를 넘어서서 표상된 그 무언가를 가리키는 방식은 표상물들 간의 추론적 관계들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54)</sup> 특히 라이프니츠는 개념적인 표상과 단지 지각적인 표상 사이의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 추론 혹은 논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그는 개념적인 지각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브랜덤은 말한다.<sup>155)</sup>

물론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는 칸트나 헤겔만큼 관념들 간의 질서와 관계가 갖는 규범적인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브랜덤 자신이 인정하듯이, 실제로 스피노자에게 추론 관계는 인과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라이프니츠가 추론의 개념을 이용한 것은 데카르트주의적인 분석 기하학의 보증하는 구조적 동형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칸트 이전 근대 철학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용하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구분은 개념의 추론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좀 더 심원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브랜덤의 평가이다.

### 3-2. 칸트

20세기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특히 영미 언어권의 철학에서 ‘언어’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탐구의 대상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철학이 그러한 성격을 띠는 데 결정적인 물꼬를 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의 확연한 철학적 흐름의 변화에 흔히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라는 의미심장한 명칭을 부여하곤 한다.

19세기 말에 소위 언어적 전회가 촉발된 표면적인 계기는 당시 영국의 철학계를 지

---

153) TMD, pp. 28-31, 참조.

154) TMD, p. 28.

155) TMD, p. 30.

배하고 있던 절대적 관념론 철학에 대하여 무어(G. E. Moore)와 러셀(B. Russell)로 대표되는 신진 철학 세력이 반발하게 된 것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다. 초기에 관념론 철학에 심취해 있던 러셀과 무어는 점차 그런 철학적 입장에 회의를 품었고, 결국 당시의 절대적 관념론이 안고 있던 문제란 그 입장 안에 무언가 구체적으로 잘못된 주장이 들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주장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게 사용된 언어적 난맥상 그 자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언어적 전회의 전모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시각이다. 왜냐하면, 오랜 철학의 전통을 되돌아볼 때, 철학적 논쟁이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결국 언어적 표현들의 올바른 쓰임새와 관련된 논쟁이라는 관점으로 조망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어적 전회의 진정한 의의는 언어는 우리의 사유와 믿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혹은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며, 우리의 언어적 표현들 역시 ‘무언가를 뜻함’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님으로써 우리를 언어 외적인 무언가와 관계 맺게 해 준다는 성격을 인식한 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56)</sup> 그럴 때 언어에 대한 분석과 탐구는 ‘무언가를 뜻함’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구조와 본성에 관한 이해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 보인다. 기성 철학에 대한 무어와 러셀의 반발 직후에 특히 러셀은 이러한 전회의 진정한 의의에 충실한 탐구 작업을 전개하였고, 그의 작업 속에는, 단지 언어에 대한 예비적이고 도구적인 활용 대신에, 언어적인 접근 자체가 철학적 문제 해결의 본질적인 요소를 구성하며 더 나아가 언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언어적 전회의 뿌리를 우리는 칸트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세기에 언어가 철학적 탐구의 주제가 된 변화의 흐름은, 칸트의 비판철학에서 촉발된 철학적 탐구 방법의 혁명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조망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알려져 있는 칸트 철학의 진정한 과제 중 하나는 인간의 사유에 관한 체계적인 비판을 통해서 독단적인 형이상학적 사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철학적 사유의 대상은 다름 아닌 인간의 사유 그 자체가 되었으며, 그러한 사유 양식에 대한 비판적인 검증이 철학적 작업의 핵심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칸트는 현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정신이 세계와 맺는 주체적인 협력 작업

156) “특정하게 배열된 소음이나 혼적의 계열은 자연 속에서 찾아보기 드문, 시급하게 설명을 요하는 한 가지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Lycan, *op. cit.* p. 4.)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칸트 이전의 독단적 형이상학에서와는 달리, 그러한 개념을 제공하는 사유의 구조와 능력에 대한 탐구는 표현한 현상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요소가 되었다. 브랜덤에 따르면, 칸트 철학의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20세기의 언어적 전회에 미친 영향을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세분하여 분석한다. 그 하나는 소위 규범적 전환(normative turn)이다.

칸트의 주된 생각 중의 하나는 사유자이자 행위자인 존재를 단순한 자연적인 피조물들과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특정한 유형의 규범적인 승인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이라는 것이다.……칸트는 규범적인 전환을 이룩한다. 그것은 데카르트가 사유하는 존재로서 우리들 자신에 관하여 제안한 존재론적인 유형의 구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책임의 소재지로 간주하는 의무적인 구획으로의 전회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칸트의 가장 특징적인 주장들의 일부를 떠받친다.<sup>157)</sup>

칸트에 따르면, 법칙에 따르고자 하는 규범적 태도의 소유자로 분별된 인간의 정신 및 정신의 작용은 더 이상 투명한 거울처럼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투사하는 수동적인 매개체가 아니며, 그럴 때 인간의 행위는 바깥의 환경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수동적인 행동에 머무르지 않는다. 브랜덤은 진리(ure), 이유(reason), 개념(concept) 이렇게 세 단어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행위 하는 자로서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한다.<sup>158)</sup> 지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납득 가능한 어떤 명제적 내용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take-true)’이며, 행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납득 가능한 어떤 명제적 내용을 ‘참으로 만드는 것(make-true)’이다.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지각적 반응으로서의 판단은 그것이 무엇의 이유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명제적 내용성을 갖는다는 바로 그 점에서 단순한 기계적인 반응과 다르며, 우리의 행위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계적인 행동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자극반응적인 유기체가 아니라 지각자이며, 또한 기계적인 운동자가 아니라 행위자라는 것은 지각 가능한 환경에 그리고 접근 가능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적절한 개

---

157) TMD, p. 21.

158) MIE, p. 8.

념을 적용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지각과 행위에는 본질적으로 개념의 사용이 동반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칸트의 중대한 공헌은 그러한 우리의 개념 사용이 규범적인 성격을 띠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점이라고 브랜덤은 평가한다. 브랜덤에 따르면 칸트의 독창적인 제안은 개념적으로 구조화된 행위는 그것이 규범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준별되며,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행위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특별한 방식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칸트는 개념들을 규칙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며, 그것은 다시 말해 개념들이 무언가가 (규칙에 따르면) 어떠한 야만 하는지 상술하고 있는 것이다.”<sup>159)</sup>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판단과 행위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며, 브랜덤에 따르면 그것이 데카르트에게는 지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의 부재로 인한 회의주의의 길을 걷게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칸트는 여기서 더 깊게 파고든다고 브랜덤은 말한다.

그는 (데카르트의) 인식론적인 논제는 의미론적인 논제를 전제한다고 생각한다. 데카르트적인 의심은 세계가 우리가 사유 속에 표상하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성공적인 표상의 조건들에 대한 탐구는 따라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가는 적절한 길이다. 칸트는 애초의 초점으로 지식보다는 지향성을 받아들인다. 그는 기도된 표상의 조건들에 대해서 묻는다. 우리의 관념이 그 자체를 넘어서서 그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칸트에게, 표상물들이 갖는 관함성의 성격은 규범적인 성과물이다. 표상물들은 그것들의 옳음에 관하여 그것이 표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관하여 부합한다. 어떤 것이 다른 것을 표상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후자에게 전자에 대한 특정한 종류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며, 그 표상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상된 것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종류의 규범성을 이해하는 것이다.<sup>160)</sup>

---

159) *ibid.*

160) TMD, pp. 22-23.

이제, 두 번째 측면을 고려해 보자. 물론 여기서의 논점 역시 첫 번째 측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칸트가 주술구조의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판단의 형식을 인식의 기본 단위로 채택했다는 것에 있다. 브랜덤에 따르면, 칸트는 ‘판단’을 인식의 최소 단위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판단이야말로 전통적인 논리적 위계 구조에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초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브랜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위해 프레게<sup>161)</sup>와 비트겐슈타인<sup>162)</sup>이 확인하고 보장해 준 칸트의 획기적인 통찰들 중의 하나는 명제적인 것의 우선성에 대한 그의 인식이다. 칸트 이전의 전통은 의미론적인 설명의 적절한 순서가 개념들 혹은 단어들에 대한 이론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칸트는 그것을 거부한다. 그의 주요한 혁신들 중의 하나는 의식 혹은 인지의 근본적인 단위, 즉 이해 가능한 최소한의 단위는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판단이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이다.……칸트에게 있어서, 내용에 관한 모든 논의는 판단의 내용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판단의 내용에 기여하는 한에 있어서만 내용을 가지기 때문이다.……교훈은 지시와 지시된 것 간의 관계는 오로지 무언가가 그렇다고, 즉 참이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주장한다는 측면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63)</sup>

이 점은 이전의 철학에서 언어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칸트 이전의 전통에서 그 전형적인 사례를,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는 로크의 인식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로크에게 인식의 기본 단위는 단순 관념을 야기하는 경험이며, 단어들은 그러한 단순 관념들을 표현하는 도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런 단순한

161) 이를테면, “이어질 탐구에서 나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원리를 견지한다.……결코 한 단어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묻지 말고, 오로지 명제의 맥락 안에서 물으라.”(Frege,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s*, (English translation by J. L. Austin), ‘Introduction’, x.)

162) 이를테면, “ § 49. ……명명은 아직은 전혀 언어놀이에서의 수(手)가 아니다. 하나의 장기 알을 세워 놓는 것이 장기에서 하나의 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즉, 어떤 한 사물의 명명에 의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다. 놀이 속에서가 아니면, 사물은 심지어 이름조차도 가지지 않는다. 하나의 낱말은 오직 문장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말로써 프레게가 뜻한 것도 역시 그것이었다.”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p. 24.)

163) AR, pp. 159-160.

재료들을 결합하여 우리는 복잡한 관념을 얻게 된다. 그러나 여기 어디쯤에 문장과 같은 의미의 단위가 등장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반해 칸트에게 있어서 사유의 논리적 형식이자 인식의 기본 단위인 판단의 형식들은 정확하게 주어와 술어의 구조를 가진 언어적인 표현물과 짝을 이룬다. 다만, 칸트가 판단을 인식의 기본 단위이자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20세기의 언어적 전회는 그러한 판단의 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이른바 명제 혹은 문장을 근본적인 의미의 단위로 간주하였던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 페어즈(Pears)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사유가 방향을 전환하여 사유 그 자체를 검증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그 탐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간단히 답하자면, 탐구될 자료가 제시되는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 그 자료는 관념, 사유, 그리고 사유의 양식 등과 같이 심리적인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고, 혹은 단어, 문장, 그리고 답화의 유형 등과 같은 언어적인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칸트의 비판은 첫 번째 종류의 자료들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비판철학의 두 번째 파장인 이 번 세기의 논리·분석적 사조는 두 번째 자료들에서 출발한다.<sup>164)</sup>

정리하자면,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 대한 칸트의 공헌은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 우리의 판단의 기본 단위는 문장의 차원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브랜덤은 칸트는 중대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답변은 헤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찾게 된다고 주장한다.

### 3-3. 헤겔

브랜덤은 칸트가 개념적인 것이 지닌 규범적인 성격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개념의 획득에 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즉, 어떻게 이유와 (그럼으로써) 개념들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sup>165)</sup> 그리고 브랜덤에 의하면, 그 설명을 제공한 사람이

164) Pears, *op. cit.* p. 27.

165) TMD, p. 30.

바로 헤겔이다. 20세기 후반기에 헤겔의 철학이 영미 언어 철학 진영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sup>166)</sup>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앞서도 언급했지만, 20세기 초 언어적 전회의 직접적인 촉발 계기는 바로 영국의 헤겔주의자들의 철학적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절대적 관념론에 대한 반발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브랜덤은 로티의 평가에 따르면 자신의 전체적인 기획이 셀라스의 기획을 확장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사유와 행위에 대한 칸트주의적인 접근 방식에서 헤겔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진일보한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밝힌다.<sup>167)</sup> 그리고 그러한 평가의 정당성은 브랜덤 자신이 선택한 몇 가지 전략적인 선택들로 인해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168)</sup> 첫째는, 앞에서 인간과 온도계를 대비시켰던 것처럼 브랜덤의 관심사는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여기서 문화의 영역이란 판단과 행위에 개념이 적용하거나 혹은 그런 능력을 전제로 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브랜덤은 헤겔의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en)의 고유한 목적은 바로 개념의 사용과 개념 사용자들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자신의 주요한 목적에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개념적인 규범들에 대한 헤겔의 사회적 실행론(social pragmatism)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브랜덤은 칸트가 규범성의 본성과 기원, 개념의 구속성, 친근한 경험적 현상의 영역에서 본체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을 답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었다고 지적한다. 브랜덤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천착한 것이 바로 헤겔의 철학이다. 헤겔에게 있어서 규범적인 지위들이란 사회적인 지위들로 이해된다. “무언가를 명시화하는 개념적인 활동이 납득 가능해지는 배경은 암묵적으로 규범적인,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실행으로서 받아들여진다.”<sup>169)</sup> 더 나아가 마찬가지로 사회적 실행을 강조하는 미국의 실용주의자들, 후기 비트겐슈타인 등과 헤겔의 차이점은 그들과 달리 헤겔은 무언가를 말하고 행한다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성적인 추론의 능력에 확고한 우위를 인정한다는 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헤겔의 실행주의는 이성주의적인 성격을 띠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헤겔의 철학은 표상주의적인 의미론 모형을

166) 또 다른 대표적인 영미권의 헤겔주의자로 우리는 존 맥도웰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맥도웰은 셀라스가 구분한 이성의 공간과 자연의 공간의 이분법적 균열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헤겔의 관념주의 철학을 제안한다.

167) AR, pp. 32-33.

168) AR, pp. 33-36, 참조.

169) TMD, p. 34.

거부하고 대안적인 표현주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성주의적인 표현주의를 말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른바 명시적인 것은 추론에서의 그것의 역할에 의해서 이해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할 때 그런 생각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바로 헤겔이라고 브랜덤은 평가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 대한 헤겔의 공헌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칸트가 남겨 놓은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칸트의 규범적 합리주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헤겔주의적인 수정들 중의 하나이다. 즉, 찬동, 권위, 책임 등의 규범적인 상태들을 사회적인 성취들로 이해하는 것이다. 헤겔은 개념의 적용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속하게 만드는 것을 특정한 종류의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개념 획득의 문제는 따라서 특별하게 개념적으로 (추론적으로) 명료화된 찬동을 떠맡거나 혹은 특별하게 개념적으로 명료화된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의 문제로 전환되었다.……헤겔의 생각은 지향적 상태의 규범적인 성격이 개념적으로 내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합리주의적인 전통에서 이미 특성화된 지향성에 관한 기능주의에 또 다른 차원을 보탬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사회적 기능주의만이 칸트의 규범적인 통찰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sup>170)</sup>

#### 4. 맺음말

이렇게 해서 먼저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론이 의미론의 개념 지도에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횡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입장이 철학사적으로 어떤 맥락에 닿아 있는지 종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개념지도상으로 볼 때 브랜덤의 입장은 인간이 다른 존재와 차별화되는 중대한 특징으로서 이른바 이성적 능력의 활용, 다시 말해 무엇이 무엇의 이유인지 구명하는 추론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전통적인 철학적인 주제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브랜덤의 입장과 어긋나고 있

---

170) TMD, pp. 31-32.

는 오늘날의 철학적 주장들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브랜덤은 자신의 추론주의 의미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인 추론, 규범성, 그리고 사회적 실행의 개념들이 모두 근대 철학의 역사 속에서 발견해낸다. 브랜덤은 현대 철학에서 이러한 근대 철학의 철학적 전통에 대한 수용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이를테면,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들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적 표현이 사용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개념 사용의 기능적인 측면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전체론적인 성격을 받아들이는 점에서 헤겔의 사회적 실행론을 따르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론주의의 노선에 서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프레게는 특히 초장기 입장에서 언어적 표현이 갖는 추론적 혹은 기능적 역할에 주목하였지만, 언어의 규범적 측면과 사회적 실행의 측면을 다루지 않았고, 더군다나 후기에 이르면, 오히려 진리, 지칭 등을 원초적인 개념으로 채택하는 표상주의적인 경향의 의미론으로 회귀하였다. 콰인은 의미의 전체론적인 성격을 강조하였으나, 언어 규범성의 사회적 실행의 측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자연주의적인 입장을 택하는 표상주의적인 철학자들은 의미론적 규범들의 원천을 궁극적으로 자연 세계로부터 즉, 모종의 인과적 관계들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은 브랜덤의 전체적인 이론적 기획과는 대척점에 있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브랜덤은 전통 철학의 세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을 다시 한 번 통합해낸 현대 철학자로 윌프리드 셀라스를 꼽고 있으며, 실제로 브랜덤의 추론주의의 의미 이론은 이미 셀라스의 이론 안에 그 원형적인 형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

### 1. 들어가는 말

추론주의(inferentialism)란 기본적으로 언어의 의미(브랜덤에게 의미란 곧 명제적인 형태를 띠는 개념적인 내용을 말한다)가 궁극적으로 지칭이 아니라 추론에 의해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어떤 진술이 의미를 갖고 그것이 어떤 지향적인 취지를 갖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진술이 특정한 사태와 맺고 있는 지시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진술과 다른 진술들 간의 추론적 관계들에 의해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추론은 단순한 기계적인, 혹은 형식적인 추론 이상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제 1장에서 브랜덤의 추론주의가 근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소, 즉 추론, 규범성, 그리고 사회적 실행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첫째, 의미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고 문장의 의미는 그것이 놓이게 되는 추론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때의 추론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다. 둘째, 그러한 추론주의 의미론은 궁극적으로 규범적인 화용론에 부합되어야 한다. 즉, 추론의 적절성은 찬동(commitment)과 권한(entitlement)이라는 이른바 규범적인 상태(normative status)들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추론적 관계들이 그러한 규범적 상태들로서 존재할 수 있는 맥락은 본질적으로 이유를 추궁하고 또 제시하는 사회적인 게임(game of asking and giving reasons)의 맥락이어야 하며, 그것은 찬동, 권한이라는 규범적 상태들이 실제로 사회적인 실행 속에서 귀속되고(attributed), 승인되고(acknowledged), 보증되는(undertaken) 과정 속에서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sup>171)</sup>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말하자면, 문장의 의미란 그 문장으로 어떤 추론적 관계들이 형성되느냐에 의해 결정되며, 그런 추론적 관계들은 그 문장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러한 공언과 관련하여 이유를 추궁하고 제시하는 일련의 사회적 실행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부여하고, 인정하고, 보증한 찬동과 권한의 규범적 상태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요약

---

171) Bransen, J, "Normativity as the Key to Objectivity: An Exploration of Robert Brandom's *Articulating Reason*", in *Inquiry* 45, p. 374. 참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금 언급된 추론주의 의미론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차례로 고찰해 가면서 추론주의 의미론의 체계를 구성해보고, 그러한 의미 이론이 의미의 문제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

## 2. 추론

브랜덤에게 있어서 의미론을 탐구하는 올바른 방향은 표상으로부터 추론으로가 아니라 추론으로부터 표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추론이라 함은 명제적 차원의 내용들 간의 관계이므로 문장 차원에서 아(亞)문장적인 것에 대한 설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론’은 이제 언어적 표현의 의미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소위 ‘결정적인’ 개념이 된다. 따라서 그의 의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가 추론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가 될 것이다.

### 2-1. 추론적 역할로서의 의미와 개념 전체론

추론주의 의미론의 근본 전제는 물론 ‘의미는 사용’이라는 것이다. 사용으로서의 의미는 추론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는 앞에서 인간과 온도계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인간과 온도계 모두 신빙성 있는 지표로서 외부 환경에 규칙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둘이 내보내는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가? 브랜덤에 따르면(브랜덤도 인정하고 있듯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셀라스의 입장에 따르면) 어떤 반응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주장을 하고 이유를 제공하고 또 이유를 추궁하는 추론적인 놀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그러한 추론의 놀이 안에서 그러한 반응이 실제로 ‘사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개될 내용과 이해에 대한 접근 방식에 관한 우선적인 생각은 셀라스에게 빚진 것이다. 셀라스의 제안은 앵무새와 측정 도구에 게서 빠진 핵심적인 요소는

이유를 제공하고 추궁하는 실행들에 대한 숙달이다. 그런 실행들 안에서 그들의 반응은 정당화의 믿음과 주장들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sup>172)</sup>

앞에서 설명했듯이 온도계는 그런 놀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온도계의 반응이 어떤 종류의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개념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온도계의 반응을 추론적인 놀이 안에 끌어들여 그 추론적 역할을 이유의 제시와 추궁을 통해 추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된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온도계가 외부의 환경에 공변적으로 반응하여 신뢰할만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아무런 개념적인 내용을 갖지 않는다. 온도계가 현재 섭씨 30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개념의 사용자들은 ‘지금은 얼음이 얼지 않는다.’, ‘지금은 겨울이 아니다.’, ‘어제보다 덥다.’ 등의 주장들을 추론해낼 수 있고, 그럴 때 온도계의 반응은 개념적인 내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중요한 귀결이 주어진다.

개념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추론적인 구획으로부터 어떤 개념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개념들을 숙달해야 한다는 결론이 즉각적으로 뒤따른다.……또 다른 귀결은 하나의 개념을 비(非)추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개념들을 추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sup>173)</sup>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사실 엄밀히 말해서 브랜덤의 입장을 따를 경우, 개념을 비(非)추론적으로 적용한다는 표현 자체가 아예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념을 적용하는 실행 자체가 이미 넓은 의미에서 추론적인 유의미성을 갖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2-2. 실질적 추론

이유를 제시하고 또 추궁하는 놀이에서 개념적 역할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서의 추론

---

172) MIE, p. 89.

173) AR, p. 49

이란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 브랜덤이 채택하는 추론의 개념은 셀라스가 제안한 이른바 ‘실질적 추론’(material inference)이다. 그리고 브랜덤은 그러한 실질적 추론의 개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소위 형식주의적 추론의 개념과 대비시킨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유형의 추론이란 주장을 포함한 진술들로 구성된 논증에서 전제로부터 결론 즉 주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그럴 때 추론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요구 조건은 바로 어떠한 경우에도 전제의 참이 결론의 거짓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논리적 형식을 그 추론의 과정이 구현하고 있는가 여부가 된다. 다음의 두 추론을 비교해보자.

(a)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사람 남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남자는 아니군. 그렇다면 여자란 애기지.

(b) 모든 자동차는 하늘을 날 수 있다. 거북선은 자동차다.  
그러니 거북선은 하늘을 날 수 있다.

형식논리의 적절성 평가에 따르면, b는 올바른 논리적 형식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추론이고 따라서 논증은 타당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b의 전제들이 과연 실제로 찬동할 만한 것인지의 문제는 오히려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논리적 탐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로 본다. 한편, a의 경우에는, 올바른 논리적 형식에 어긋난 잘못된 추론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이른바 ‘자비의 원리’에 입각하여 올바른 논리적 형식을 갖춘 추론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제, 이를테면 ‘남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여자다’와 같은 전제를 추가하는 방식의 수정을 가하게 된다. 즉,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여러 가지 논리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셀라스는 이러한 처방에 관하여 그것은 “‘비가 온다, 그러니 땅이 젖을 것이다’라는 표현 속에서 발견되는 추론을 생략삼단논증이라고 보는 전승된 독단”<sup>174)</sup>이라고 평가한다.

---

174) Sellars, ‘Inference and Meaning’, in *Pure Pragmatics and Possible World*, ed. J. Sicha, p. 261, AR, p. 53에서 재인용.

그 ‘독단’은 모든 추론을 오로지 그것의 논리적인 형식에 의해서만 좋거나 나쁜 것으로 간주하며, 그러한 추론에 동반되는 주장들의 내용은 오로지 전제들의 참임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설명의 이치에 찬동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설정하면, 실질적 추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추론’을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견해는 추론에 대한 형식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sup>175)</sup>

브랜덤은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 만일 어떤 표현이 추론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의해서 개념적인 내용을 확보하게 된다고 할 때, 오로지 형식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추론만으로는 전혀 어떤 표현에 개념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놀이가 될 수 없다. 이를테면, 우리는 b를 올바른 논리적 형식에 입각한 추론으로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그 추론에 사용된 표현들의 의미를 결정할 수 없다. 실제로 거북선이 무엇인지, 자동차가 무엇인지, 하늘을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b의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추론이 진정한 차원에서 의미 구성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때의 추론은 우선적으로 명제적 형식이 아니라 명제적 내용에 관련된 추론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브랜덤은 실질적인 추론의 규칙의 성격에 관한 셀라스의 다음과 같은 입장을 수용한다.

실질적 규칙들은 의미에(따라서 언어와 사유에) 형식적인 규칙들만큼이나 본질적이며, 논리적 형식이라는 벽 날개 안에서 그것의 구조에 관한 건축 상의 세부 사항들에 공헌한다.……이에 따르면, 실질적인 변환 규칙들은 논리적 변환 규칙들에 의해 제공되는 틀 안에서 언어의 표현들의 기술적인 의미를 결정한다.<sup>176)</sup>

브랜덤의 추론주의는 그러한 논리적 틀과 실질적 내용 중에서 후자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더 나아가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은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개념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옳은 추론으로부터 정의 가능하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sup>177)</sup>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일군의 실질적으로 옳은 추론들 중에

175) AR, p. 53.

176) Sellars, *op. cit.* p. 265와 p. 284, AR, pp. 54-55에서 재인용.

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을 골라내고 싶다면, 먼저 여러 가지 논리 연결사 등과 같은 특권적인 지위를 갖는 논리적인 어휘들을 선정한 다음, 실질적으로 옳은 추론들 중에서 어떤 추론이 그런 특권적인 어휘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논리적인(즉, 비(非)특권적인) 어휘들을 다른 비논리적인 어휘들로 대체했을 때에도 여전히 원래의 추론적 옳음이 보존된다면 그 추론을 논리적인 형식 때문에 옳은 추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와 같은 추론은 실질적으로 옳은 추론이지만 논리적인 형식상으로는 결함을 갖고 있는 추론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고려해 보자.

(c) 거북선은 천하무적의 배이다. 그리고 천하무적이라면 어떤 전투에서도 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거북선은 어떤 전투에서도 지지 않았을 것이다.

추론 c에 연언, 조건, 부정 기호가 논리적 특권을 갖는 어휘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휘들을 제외한 나머지 어휘들, 예를 들면 거북선과 같은 비(非)특권적 어휘를 다른 비(非)특권적 어휘, 예를 들면, ‘메이플라워’로 바꿔도 추론적인 옳음은 계속 보존될 것이다. 따라서 c는 그 논리적 형식으로 인해 좋은 논증이었던 것이다. “이런 방식의 사유를 따르자면, 추론의 형식적 좋음은 추론의 실질적 좋음으로부터 도출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설명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추론의 실질적 좋음을 설명할 때 (형식적 옳음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sup>178)</sup>

## 2-3. 소크라테스의 방법과 표현적 합리성

브랜덤은 쉘라스가 언급한 소위 ‘소크라테스의 방법(Socratic Method)’에 주목한다. 우리가 흔히 산파술이라고 부르는 소크라테스의 방법의 특징은 실제로 전형적으로 이유를 제시하고 추궁하는 놀이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의미를 추적해 나가자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소크라테스의 방법이 지닌 특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날 토론 주제에 관하여 발언에 나선 총 7명의 발언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소크라테스만이 질문과 대답의 방법을 사용하

177) AR, p. 55

178) ibid.

여 특정한 주장들에 대한 이유를 상호간에 묻고 제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셀라스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매우 독특하게 해석한다. 셀라스의 해석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우리의 실행들을 그것들이 반박과 대안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명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합리적인 통제 하에 불러 오는 방법이다.”<sup>179)</sup> 예를 들어, ‘A가 B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양상 문장은 A와 B라는 단어의 용법을 지배하는 규칙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주는 이른바 추론 면허(inferential licence)들로서, 추론적 전이를 한 주장의 내용으로 형식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브랜덤은 셀라스의 이런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전반적인 생각은 셀라스가 ‘소크라테스의 방법’이라는 표제 하에 요청하고 있는 전형적으로 합리적인 과정은 암묵적인 찬동들을 주장의 형태로 명시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을 ‘표현한다(expressing)’는 것은 그것들을 무언가가 개념적인 역할, 이른바 추론의 전제와 결론으로서의 추론적인 역할을 갖게 해 주는 특별한 유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유를 제공하고 추궁하는 놀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합리성은 그렇게 해서 적절한 추론적 움직임을 만드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유형의 합리성과는, 분명히 연결되기는 하지만, 구분되는 것이다.<sup>180)</sup>

이런 측면에서 논리와 논리적 어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앞에서 살펴본 듯이, 논리적 형식과 규칙 자체가 합리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추론의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 논리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표현적 합리성의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건문이 역할은 무엇인가? 브랜덤의 설명에 따르면<sup>181)</sup>, 우리는 조건문이라는 어법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무언가를 ‘할(do)’ 수 있었고, 어떤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수반하는 다양한 추론들을 승인하고 또 다른 추론들은 거부함으로써 그 판단이 특정한 내용을 갖는다고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건문의 어법이 도입되고 난 후에는 우리는 한 주장의 갖는 내용의 일부로서 특정한 추론이 수용 가능하다고 ‘말할(say)’ 수

---

179) AR, p. 56.

180) AR, p. 57.

181) AR, p. 60.

있게 된다. 추론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념적 내용은 암묵적으로 인정된 실질적 추론의 관계들에 의해 구성된다. 조건문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첫째, 추론의 형식적 타당성은 실질적으로 옳은 추론들과 몇몇 특권적인 어휘들에 의해서 정의된다. 둘째, 그러한 특권적인 어휘들은 논리적 어휘들로 간주한다. 그리고 셋째, 무언가가 논리적 어휘의 일부로 인정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것의 의미론적으로 표현적인 역할에 의해서 설명된다.<sup>182)</sup>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논리에 대한 표현주의는 논리적 어휘들이 비논리적 개념들의 개념적 내용 안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추론들을 명시화 한다는 입장을 의미한다. 개념적인 내용에 관한 추론주의란 그것들을 그것들이 가진 추론적 역할에 의해 동일시되고 개체화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이 두 견해는 함께 다음을 요구한다. 즉, 구체적인 논리적 어휘들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추론을 형식에 따라서 옳은 것으로 확인하기에 앞서서, 추론에 관해 말하는 것이 정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83)</sup>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있다. 우선 살펴볼 문제는 브랜덤이 현대적인 언어 철학에서 셸라스보다 앞서서 개념의 추론적 역할과 논리의 표현적 역할에 처음으로 주목했던 인물로 프레게를 꼽고 있다는 점이다. 「뜻과 지시체」라는 기념비적인 논문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추론주의의 노선에 따른다고 하는 주장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만 브랜덤이 특별히 관심을 두는 것은 『개념기호(Begriffsschrift)』(1879)를 출간했을 당시 젊은 시절의 프레게이다. 브랜덤은 『개념기호』를 쓸 당시의 프레게가 가졌던 설명의 목표는 후기의 목표였던 진리

---

182) AR, p. 60.

183) AR, p. 61.

라기보다는 추론에 관한 것이며, 여기서의 추론은 파생적인 형식적 추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부여적인 실질적 추론을 말한다고 주장한다.<sup>184)</sup> 브랜덤에 따르면, 전기 프레게에게 있어서, 내용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내용이었고 그것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그러한 개념들의 추론적 역할이었다. “두 주장은 그것들이 동일한 추론적인 역할을 가질 때 오직 그 때에만 동일한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다. 동일한 개념적인 역할을 갖는 두 주장을 서로 대치했을 때 결코 원래의 좋은 추론은 나쁜 추론으로 바뀌지 않는다. 판단에 대한 개념적 내용의 근본적인 의미론적 할당은 궁극적으로 추론의 흐름이라는 실천적인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sup>185)</sup>

애초의 출발점과는 대조적으로, 1890년대에 시작된 전통의 프레게는 추론이라기보다 진리를 의미론적인 설명 순서에서 우선적인 것으로 만든다. 더멧은 이런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오로지 이런 측면에서만) 프레게의 논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퇴행적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논리를 특징짓는다. 즉, 모든 과학은 진리를 그들의 목적지로 삼지만, 논리학에서는 진리가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연구의 대상이라고 말이다. 그렇지만 논리학의 주제가 무엇이나에 관한 전통적인 답변은 진리가 추론 혹은 좀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논리적 귀결들의 관계이다.”<sup>186)</sup>

프레게가 논리학을 추론을 기호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특별한 종류의 진리를 찾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그것이 바로 더멧이 탄식했던 부분이며 동시에 우리가 현대 논리학의 많은 부분을 빗지고 있는 부분이다)으로 치명적인 단계를 이행하기 이전에, 그의 목표는 사람들이 오로지 (암묵적으로) 할 수 있었을 뿐인 것을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해 줄 어휘들을 도입하는 것이었다.<sup>187)</sup>

그런데, 프레게에 대한 이러한 브랜덤의 해석에 대해서 맥도웰은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실제로 맥도웰은 브랜덤이 프레게와 더멧 같은 철학자들의 권위에 잘못 호소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sup>188)</sup> 맥도웰이 지적하는 것은 논리학에 대한 관점의 전환

184) AR, pp. 57-61.

185) MIE, p. 96.

186) MIE, pp. 96-97. 위 인용문 안에 언급된 더멧의 주장은 *Frege's Philosophy of Language*, p. 432에서 인용된 것이다.

187) MIE, p. 108.

이 불러일으킨 더뎃의 탄식은 표현주의적인 전기 프레게에서 표상주의적인 후기 프레게로의 전환 때문이 아니라, 논리학에 대한 프레게 이전의 사고방식 즉, 논리학을 논리적 귀결에 대한 연구로 생각했던 방식에서 프레게 식의 방식 즉, 논리학을 진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sup>189)</sup> 다시 말해, 프레게 자신은 논리학에 대한 관점을 시종일관 유지했으며, 브랜덤이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주의에서 표상주의적인 입장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맥도웰은 『개념기호』에서 프레게가 조건문을 설명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실연적 조건문(material conditional)’<sup>190)</sup>에 대한 설명 즉, 전건이 승인되고 후건이 부인되는 경우에만 승인되지 않는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그럴 때 조건문의 어법은 브랜덤이 고려하고 있는 표현적 합리주의의 도구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이 되는 셈이다. 물론, 맥도웰 역시 프레게의 『개념기호』를 추론적인 적절성을 명시화하고자 하는데 일면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올바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맥도웰에 따르면, “『개념기호』에서의 모든 추론은 형식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실제로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형식을 갖는다. 그리고 프레게는 바로 그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의 조건문이 명시화하고자 한 것은 브랜덤의 구도에서처럼 추론의 실질적 적절성들이 아니다.……그가 성취한 명시화는 특정한 추론들의 전제들을 그것들의 결론들이 논리적인 추리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직관을 통한 비약이나 가정된 또 다른 전제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로, 그 전제들로부터 따라나오도록 배치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명료화 하는 데에 있다.”<sup>191)</sup> 만약 프레게에 대한 맥도웰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최소한 브랜덤이 논리적 어휘들을 표현적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생각을 프레게의 권위를 빌어 정당화하려 했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브랜덤에 따르면, 명제의 개념적인 내용을 결정해 주는 것은 실질적 추론이며, 논리적 형식에 따른 형식적 추론은 실질적 추론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논리와 논리적 어휘들의 역할은 실질적인 추론을 표현해 줌으로써 단지 추론의 행위만을

188) J. McDowell, ‘Motivating Inferentialism : Comments on Making It Explicit Ch. 2’, in *Pragmatics & Cognition* (2005), pp. 129-136. 참조.

189) *ibid.* p. 130.

190) ‘만일 A이며 B이다.’를 ‘A가 거짓이거나 B가 참이다.’와 같은 값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며, A와 B 사이에 어떠한 실질적인 혹은 내적인 관련성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의 조건문 해석이다. 이 용어와 관련하여 ‘질료적 조건문’, ‘실질적 조건문’ 등 여러 가지 번역어들이 존재하나, 여기서는 ‘실연적 조건문’으로 번역한다.

191) *ibid.* p. 131.

할 수 있었을 상황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곧 논리적인 수단을 통한 표현 이전에 추론적 적절성에 관한 규범이 선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브랜덤은 추론에 관한 프레게의 초기 관점이 자신의 그런 입장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맥도웰에 따르면,

실제로, 프레게의 사유 속에서 어떤 실행이……그것이 이미 참여자들로 하여금 논리적 추리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합리성을 전혀 나타낼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한다고 애기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 관점에 따르면, 논리적인 어휘를 갖지 않는 언어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에 입각한 입장이라면, 브랜덤의 생각이 제공하는 방식의 “형식주의”를 차단하는 방화벽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sup>192)</sup>

따라서 만약 프레게에 대한 맥도웰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논리적인 표현에 의해 명시화되는 추론적 적절성에 선행하는 비논리적 개념들에 관련된 암묵적인 추론적 적절성이 존재한다는 브랜덤의 입장은 더 이상 프레게에 의해 지지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맥도웰의 해석에 따르면 프레게의 견해는 결과적으로 모든 추론에는 논리적인 추리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93)</sup>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형식적 추론과 실질적 추론의 관계에 관해서 브랜덤이 프레게를 해석하는 문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 2-4. 추론의 양면적 성격

브랜덤은 개념적 내용을 개념적 역할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모형으로 더멧이 제안한 입장을 고려한다. 더멧이 제안한 모형에 따르면,

언어적인 표현이나 개념의 사용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그것이 올바르게 적용되거나, 발화되거나 혹은 사용되는 상황들(circumstances)과 그것의 적용 혹은 발

---

192) *ibid.* p. 134.

193) *ibid.*

화 혹은 사용이 갖는 적절한 귀결들(consequences)이 그것이다.<sup>194)</sup>

언어 사용에 수반되는 이러한 양면적 조건에 대한 고려는 일면적인 조건만을 고려했던 이전의 이론들, 예를 들면, 검증주의, 주장가능성 조건, 신빙성주의 등 주로 개념 적용의 상황들에 초점을 맞추거나 실용주의처럼 그러한 적용의 귀결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입장들에 비해서 언어적 표현이 갖는 추론적 속성을 훨씬 더 잘 드러내 줄 수 있다고 브랜덤은 평가한다.<sup>195)</sup>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추론이란 단지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나아가는 논리적인 추리의 과정이 아니라, 특정한 명제적 내용을 가진 언어적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주장될 수 있는지, 즉 그러한 조건 하에서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도래할 것인지, 즉 그것을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것까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지의 문제도 포함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추론주의적인 여건에 입각하여 명료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특정한 주장을 함으로써 무엇에 찬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에게 그러한 찬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지를 아는 문제이다. 명료하게 글을 쓴다는 것은 독자에게 자신이 각각의 주장을 통해서 무엇에 찬동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그러한 찬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자신이 받아들인 것이 무엇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sup>196)</sup>

특히, 개념 적용의 문제에 관련하여 이러한 양면적인 이해가 우리의 현실적인 언어 사용에 어떤 함축을 갖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서 살펴본 논리의 표현적 역할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들 중에는 그 자체로 사람들 사이에서 심한 논

---

194) AR, p. 62.

195) 브랜덤은 동일한 주장 조건을 가진 발화가 상이한 귀결들을 함축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그와는 반대로 동일한 귀결을 갖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를테면 사람과 앵무새의 발화에서처럼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근거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에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이에 관해서는 MIE, pp. 121-123, 참조할 것.)

196) AR, p. 64.

쟁을 불러 일으킬만한 것들이 있다. 그런 어휘들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그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descriptive)’ 상황이 그로 인한 ‘평가적인(evaluative)’ 귀결과 짝을 이루는 특별한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nigger’라는 단어는 그 단어로 가리키는 대상의 피부가 검은 경우가 적용의 조건이지만, 그렇게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귀결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하적인 함축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대화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A : ‘쥔들러 리스트’란 영화에서 유대인들이 참 불쌍하게 나오더라.

B : 그런데 그 영화감독도 유대인이야.

여기서 B의 주장은 그 감독이 실제로 유대인이라는 기술적인 적용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그렇게 주장됨으로써 우리는 A의 발언에 대한 평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B가 실제로 그런 효과를 의도하고 발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우리는 B의 발언의 의미를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B의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브랜덤의 답변은 이것이다.

편견과 선동으로 인해 타락한 사유에 맞서는 이성의 싸움에서 첫 번째 규칙은 잠재적으로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실질적 추론의 찬동들이 주장들로서 명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것들을 합리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합리적인 옹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노출시키는 것이다.……조건문과 같은 논리적인 어휘가 그 자신의 명시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 안에서이다.<sup>197)</sup>……논리적 어구들은 관련된 근거와 귀결들을 배열하고 그것들의 추론적 관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sup>198)</sup>

따라서 우리가 B의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B의 발화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과 그로부터 함축되는 귀결들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B가 찬동하고 있는 것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럴 때 논리적인 어휘들은 B가 실질적으로 어떤

---

197) AR, pp. 70-71.

198) MIE, p. 127.

추론들에 찬동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테면, B는 ‘만일 감독이 유대인이라면, 영화의 내용은 편향적일 것이다’, 혹은 ‘유대인 감독이 만든 영화라면 더욱 현실감이 있을 것이다’ 등의 조건문에 대해 찬동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 이유의 제시와 추궁의 놀이에 B를 끌어들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용 안의 추론적 찬동을 명시적인 주장으로 형성하는 것은 그것을, 모든 주장의 경우에 그런 것처럼, 정당화의 도전과 요구에 적절하게끔 공론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화된 표현은 해명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 우리의 추론적 찬동들을 손질하고 개선하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개념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sup>199)</sup>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편 속에서 소크라테스의 대화 기법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따라서 셀라스가 자신이 규정한 표현적인 합리성을 ‘소크라테스적 방법’이라고 부른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 2-5. 강한 추론주의와 광의(廣義)의 추론적 명료성

앞에서 브랜덤이 인용한 셀라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셀라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실질적 규칙들은 의미에(따라서 언어와 사유에) 형식적인 규칙들만큼이나 본질적이며, 논리적 형식이라는 벽 날개 안에서 그것의 구조에 관한 건축 상의 세부 사항들에 공헌한다.”<sup>200)</sup> 이것으로부터 추론이 개념적 내용의 결정에 공헌하는 세 가지 가능한 대안이 존재한다고 브랜덤은 말한다.<sup>201)</sup>

첫째는, 약한 추론주의 논제로서, 실질적 추론이 의미에 본질적이라는 말을 추론은 어떤 표현이 구체적인 개념적 내용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강한 추론주의 논제로서, 위의 주장을 개념적 내용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광의의 추론적 명료성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광의의 추론적 명료성 이외에 언어의 개념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 더 필요한 요소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과도한 추론주의 논제로서, 모든 유형의 개념적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협의의 추론적 명료성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세 가지 입장 중에서 브랜덤

199) *ibid.*

200) AR, p. 54.

201) MIE, p. 131.

이 받아들이는 것은 두 번째인 강한 추론주의이다.<sup>202)</sup> 여기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은 다음의 세 차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다.<sup>203)</sup>

첫째, 광의의 개념은 적용의 비(非)추론적인 상황과 귀결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것은 셀라스가 언급한 바대로, 추론 관계의 성립은 언어-언어(language-language) 간에 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상황, 즉 지각(perception)으로부터 언어적인 표현으로의 추론인 언어-진입(language-entry)의 추론, 그리고 언어로부터 비언어적인 것으로의 귀결 즉 행위(action)로의 추론인 언어-이탈(language-exit)의 추론까지도 추론주의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브랜덤에 따르면, 지각-언어, 언어-행위의 추론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추론주의는 현실적인 개념들의 내용을 재구성하지 못할 것이며, 그럴 경우 추론의 범위가 이를테면 수학의 영역 등에 한정되고 말 것이다.

둘째, 개념들 간의 양립불가능성 관계도 광의의 추론적 관계로 간주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추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형태로 명료화 된다.<sup>204)</sup>

① 찬동 보존적인 추론적 관계는 주로 연역적인 관계들에 관한 실질적 추론들의 경우를 일반화한 것이다. 즉, 전제에 찬동하였을 때 그 결론에도 찬동하게 되는 추론이다.

② 권한 보존적인 추론적 관계는 주로 귀납적인 관계들에 관한 실질적 추론들의 경우를 일반화한 것이다. 즉, 전제에 찬동하고 또 그럴 권한이 있을 때 그 결론에도 찬동할 권한을 갖게 되는 추론이다.

③ 양립불가능성의 함축들은 양상적으로 확고부동한 관계들의 실질적 추론의 경우를 일반화한 것이다. 즉, 두 주장 중에 하나의 주장에 찬동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주장에 대한 주장 권한을 배제하는 경우 두 주장은 양립 불가능한 추론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

202) 맥도웰은 이러한 입장이 과연 셀라스가 말한 ‘...의미에 본질적이다’라는 주장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행동적 항목이 만일 비형식적인 추론의 적절성에 의해 특성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전혀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럴듯한 얘기이다. 이것은 추론의 실질적 규칙이 의미에 본질적이라는 셀라스의 논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독해이다. 추론주의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즉, 어떤 표현이 실제로 갖고 있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특정한 실질 추론적 적절성이 그것의 올바른 사용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있으며 따라서 어떤 표현의 의미를 포함한 모든 의미론적 개념들이 더도 아닌 바로 그런 적절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말이다.” (McDowell, *op. cit.* p. 129) 이 문제에 관한 맥도웰의 요지는 브랜덤이 셀라스에 잘못된 권위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분명히 그 자체로도 앞으로의 논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3) MIE, pp. 131-132.

204) TMD, pp. 7-8.

셋째, 광의의 추론적 명료화의 개념은 핵심적인 하부구조인 대체(substitution)와 대용어(anaphora)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된다. 대체와 대용어에 대한 추론적 명료화는 실질적 추론과 더불어 언어 사용 이론의 약점으로 여겨져 온 언어적 내용성이 갖는 표상적인 측면을 해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2-6. 의미론과 화용론(pragmatics)<sup>205)</sup>

일반적으로 말해서, 의미론은 언어적 표현, 수행, 지향적 상태 등의 내용에 관한 탐구인 반면, 화용론은 그러한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의 실제 사용에 있어서 작용하는 소위 힘(force) 혹은 실행적인 유의미성에 관한 탐구라고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화용론은 특정한 개념적 내용, 즉 의미를 갖고 있는 담지자들이 특정한 맥락과 조건 하에서 어떠한 실행상의 유의미성을 갖게 되는지 탐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입장에서 화용론은 의미론적인 탐구를 전제로 하는 탐구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언어적 표현이 실행적 유의미성 즉 힘을 가지려면, 그것은 우선 의미론적인 내용을 가져야만 하고 그러한 내용이 바로 그 맥락에서의 실행적 유의미성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언어적 표현의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 맥락에서 사용되기 이전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앞에서 브랜덤의 추론주의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이론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추론주의에서 언어적 표현의 명제적 내용은 실질적으로 옳은 추론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살펴본 브랜덤의 추론주의는 언어적 표현이 갖는 소위 사전적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한 의미론적인 원초자(primitives)로 실질적으로 옳은 추론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이 표상주의 의미론에서 진리와 지칭의 관계가 수행하는 설명되지 않는 설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론이 그 자체로 완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전체적인 이론을 절반밖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브랜덤은 자신이 실질적인 추론의 중요성을 제기한 것은 우선적으로 의미에

205) ‘pragmatics’는 보통 ‘화용론’ 혹은 ‘어용론’으로 번역된다. 본 논문에서는 ‘화용론’을 택한다.

관한 표상주의 설명 전략과 형식적 추론에 대비시키고자 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sup>206)</sup>

개념적인 내용에 관한 추론주의는 개념들의 실제적인 적용에 내재해 있는 규범들에 관한 실행론으로부터 완벽하게 떼어내서 추구될 수 있는 설명 전략이 아니다.……의미론 이론가들이 그러한 원초적 값들을 설명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의미론적인 이론의 계획을 좀 더 넓은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개념적인 내용, 전형적으로는 명제적인 내용들은 언어적 표현들의 올바른 사용을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부로서 언어적인 표현들과 결합된다.<sup>207)</sup>

브랜덤에게 있어서 실제로 추론주의 의미론 그 자체는 의미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원리를 담고 있지 않다. 이번 장의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엄밀히 말하자면 원천적인 개념적 내용, 즉 의미의 결정은 추론 그 자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추론은 그 자체로 무언가에 대해 판단하고 주장하는 일종의 실행의 과정이며, 그럴 때 추론의 옳고 그름이 우리 언어 사용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추론을 실행한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론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규범성이 언어적 표현들의 표상적인 관계들로부터 도출될 수 없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실제로, 개념들 간의 추론적 관계들은 이유를 제공하고 추궁하는 실제적인 우리의 실행 속에 암묵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들이며, 그러한 정당화 과정의 실행들을 지배하는 규범들이 그러한 실행들에 종속해 있는 상태들, 태도들, 그리고 수행들에게 추론적으로 명료화된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다.

브랜덤의 의미 이론은 기존의 통상적인 철학의 이론적 관행을 여러 차례 뒤집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미를 해명하는 근본적인 순서를 표상에서 추론으로 뒤집은 데서 그치지 않는다. 브랜덤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의미론과 화용론의 관계 또한 거꾸로 반전시킨다. 그는 그러한 반전을 다음과 같은 표어를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의미론은 화용론에, 내용의 귀속은 사용에 관한 설명에 부합해야 한다.”<sup>208)</sup>

---

206) MIE, pp. 134.

207) MIE, pp. 132-133.

의미론적인 내용에 의해서 화용론적인 유의미성이 지엽적으로 결정될 때에 관련된 설명의 방향과는 별개로, 화용론적인 유의미성에 의해서 의미론적인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여되는 뒤에 관련된 역방향의 설명 또한 존재한다.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었기에 그 표현들에게 지금의 바로 그 내용을 부여하게 되었는지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한다.……그러한 설명은 어떤 상태, 태도, 수행 혹은 표현이 명제적으로 내용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해당된다.<sup>209)</sup>

의미론의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옳은 추론들이 의미론적인 원초적 값들에 해당하는 것들이지만, 그러한 실질적 옳음은 결국은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옳거나 혹은 그른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실행적인 태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표현들의 사용을 지배하는 추론적 규범들은 그러한 내용이 무엇에 귀속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실행적인 태도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현들은 그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사용됨으로써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의미하게 된다.……내용은 추론의 적절성에 의해서 이해되고 그리고 추론의 적절성은 수(手, moves)들을 실제적으로 적절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받아들이거나 대하는 규범형성적 태도들에 의해서 이해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의미하는 것으로의, 그들의 실행으로부터 그들의 상태와 표현의 내용으로의 이론적 통로가 유효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적절한 화용론은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근거지울 수 있다.<sup>210)</sup>

이로써 우리는 구체적인 개념적 내용을 부여하는 실질적으로 옳은 추론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해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방법을 얻게 된다. 실행적 태도들의 귀속으로부터 의미론적 내용의 귀속으로 나아가는 이론적 통로의 가능성은 개념적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옳은 추론들을 요청하는 추론주의의 설명 전략이 야기하는 듯 보이는 순환성의 문제를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된다.<sup>211)</sup> 추론의 형식적

---

208) MIE, p. 188.

209) MIE, p. 133.

210) MIE, p. 134.

옳음에 우선적으로 호소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그러한 추론의 실질적 옳음은 어디에서 정당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브랜덤은 우선적으로 의미론을 화용론에 부합시키는 방식으로 그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화용론의 성격은 규범적인 것이다.

### 3. 규범성과 사회적 실행

브랜덤에게 화용론은 내용을 가진 상태와 수행들의 유의미성에 관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내용에 관한 이론인 의미론과 구분된다.<sup>212)</sup> 따라서 화용론의 문제는 개념 사용적인 담화에 참여하는 언어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지향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것을 서로에게 귀속시키는 문제에 관한 것이 된다. 그리고 브랜덤의 입장은 그러한 지향적 상태의 귀속은 궁극적으로 규범적인 어휘들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관한 지향적 상태들의 유의미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sup>213)</sup> 지향적인 내용을 갖는 상태들의 귀속이 규범적인 어휘들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브랜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표어로 요약된다. “지향적 상태의 귀속은 규범적 상태의 귀속이다.”<sup>214)</sup> 그리고 브랜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규범성의 핵심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지향적 상태와 행위는 그것들이 “더 나은 이유의 힘”에 의한 평가에 본질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내용을 갖는다.<sup>215)</sup>

그럼, 이제부터 브랜덤이 제시하는 규범적 화용론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먼저 화용론이 갖는 규범적 성격의 요점들을 확인하고, 우리의 실행 속에서 기능하는 핵심적인 규범적 상태와 지위들을 차례로 살펴 볼 것이다.

---

211) *ibid.*

212) MIE, p. 22.

213) MIE, p. 23.

214) MIE, pp. 16-17.

215) MIE, p. 17.

### 3-1. 규범적 화용론의 요점

주론주의 의미론이 규범적 화용론에 부합해야 한다고 할 때, 브랜덤이 염두에 두고 있는 화용론의 성격은 무엇인가? 브랜덤은 다음의 요점을 제시한다.<sup>216)</sup>

첫째는, 규칙, 원리, 혹은 주장의 형태 안에서 명시화되는 규범들은 실행 속에 암묵적으로 내재해 있는 좀 더 근본적인 형태의 규범들에 의존적으로 납득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명시화된 규칙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혹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말해진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해진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실행 속에 내재해 있는 규범들을 통해 명제적으로 명시화된 주장을 하게 만드는 역할은 그러한 실행들에 있음을 말해 준다.

둘째는, 실행 속에 내재한 규범의 성격은 소위 규칙주의(regulism)나 규칙성주의(regularism)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칙주의란 “실행의 적절성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근원적인 원리들(즉 규칙들)의 구속에 의한 표현들로서 이해되어야 한다.”<sup>217)</sup>는 입장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따르고 있는 명시적인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한 바대로 그러한 규칙주의는 실행의 적절성의 기준이 되는 규칙의 적절성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그 과정이 무한히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난점을 갖고 있다.<sup>218)</sup> 규칙성주의는 규칙주의에서 발생하는 무한퇴행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 주체가 실제로 명시적인 규칙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그 행위자의 행위가 규칙성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규칙들은 오로지 규칙성을 기술하는 것에만 관계가 있으며, 행위 주체가 그런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sup>219)</sup> 그러나 이러한 규칙성주의의 문제점은 어떤 행위가 규칙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실제로는 규칙성이 발견되는 상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임의적인 구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한 임의적인 구분은 결국 이른바 ‘게리맨더링의 문제’가 되고 만다고 브랜덤은 지적한다.<sup>220)</sup>

---

216) MIE, pp. 62-64.

217) MIE, p. 20.

218) MIE, pp. 20-26, 참조.

219) MIE, p. 26.

220) MIE, pp. 26-30, 참조.

셋째는, 실행 속에 암묵적으로 내재해 있는 규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호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행해진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도 주목하는 것이다. 평가란 곧 어떤 행위를 옳거나 혹은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물론 여기서 그런 평가적인 태도 자체가 명제적으로 명시적인 내용을 갖는 믿음들이나 찬동들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또 다시 퇴행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평가적인 태도 또한 실행 속에 암묵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행위가 된다는 것이 지니는 규범적인 지위가 오로지 평가에 의해 표현된 규칙성에 호소해서만 확인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럴 경우 게리맨더링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이다. 브랜덤은 그러한 평가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제재(sanction)의 경우를 고려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재의 평가를 통해 주어지는 상벌의 개념을 자연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규범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자연주의적인 설명 모형 안에 놓이게 되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염두에 둘 때 그것은 브랜덤이 찬동할 수 없는 귀결이다. 브랜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규범적 제재’로서, 이를테면 특별한 권리를 허용하거나 혹은 특별한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상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규범들이 지닌 전체론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만일 행위에 대한 어떤 반응이 제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 오로지 규범적인 어휘들로만, 즉 다른 규범들에 따르는 다른 행위들의 옳고 그름에 의해서만 구체화될 수 있다면, 그런 종류의 제재란 분별되고 있는 규범들의 체계 내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내적인 제재는 그 자체로 또 다른 규범들에 의존하는 내적 제재에 의해서 규정되는 규범적인 상태들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다. 상보적인 패러다임에 따라 하나의 규범이 다른 규범에 의존하는 이러한 유형의 의존성은 상호의존적인 규범적 상태들의 복잡한 거미줄을 이해하게 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분파될 수 있다.<sup>221)</sup>

---

221) MIE, p. 44.

이러한 규범의 전체성(브랜덤의 표현을 빌자면, “모든 곳에서 내내 규범들뿐이어야 한다.”<sup>222)</sup>라고 말할 수 있는)은 특히 앞으로 다루게 될 규범성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 넷째는 이른바 규범에 대한 현상론적인 이해 방식이다. 즉, 규범들의 신비성을 타파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그러한 규범들은 실행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의 실천적인 태도들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랜덤은 그러한 실천적인 인정의 태도가 아니라면, 행위가 갖는 규범적인 성격은 자연적인 속성으로 모두 환원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위는 자신들의 실행 안에 규범들이 암묵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린 평가나 인정을 언급함 없이 옳거나 옳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활동이 규범들을 형성하고, 본성적으로 행위의 지침이나 평가를 위한 유의미성을 갖지 않는 자연 세계에 규범적인 유의미성을 부과한다.<sup>223)</sup>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규범을 형성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규범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념 사용적인 실행에 내재해 있는 개념적인 규범들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에 관한 중요한 한 가지 기준으로 그것이 그러한 규범들의 객관성을 납득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정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상태가 우리의 태도들에 의해서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옳은 것이 단지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옳다고 간주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규칙에 따르는 한 행위의 옳음의 상태는 그 행위를 옳다고 판단하는 태도로 내려앉는 것이 아니다.<sup>224)</sup>

따라서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 위해 판단하고 승인하는 사회적 실행의 태도들에 의해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한 규범들이 형성됨과 동

---

222) *ibid.*

223) MIE, p. 48

224) MIE, p. 52.

시에 그러한 규범들이 단지 그들 구성원들이 옳은 규범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규범들을 옳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객관성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브랜덤 자신도 인정하는 규범적 화용론의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 3-2. 의무적 상태들 : 찬동(commitment)과 권한(entitlement)

의미론이 화용론에 부합해야 한다는 브랜덤의 주장은,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암묵적으로 규범적인 사회적 실행들이 추론적으로 명료화됨으로써 그러한 실행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표현이나 행위들에 구체적으로 명제적인 내용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풀어 설명될 수 있다. 명제적인 내용성은 이유의 제공과 추궁의 놀이라는 추론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러한 놀이는 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의 규범적인 실행에 의해서 유의미성을 얻는다. 그러한 놀이의 본성은 개념 사용적인 것이고 따라서 규범적인 실행들은 개념 사용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유를 제공하고 추궁하는 놀이에서 가장 근본적인 수법은 무언가를 주장(claim)하는 것이다. 주장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으면서 또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필요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명제적인 내용을 갖는 행위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미론이 화용론에 부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누군가가 내놓은 주장을 대하는 놀이 참가자들의 규범적인 태도들이 그러한 놀이의 핵심부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개념 사용적인 실행의 핵심부에 이유를 제공하고 추궁하는 놀이가 놓여 있다.……  
개념 사용적인 실행은 암묵적으로 규범성을 갖는다. 그것은 놀이에 사용된 수(手)들이 옳은지 그른지, 혹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다. 놀이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실행적인 평가에 의해 형성된 그러한 적절성은 그들이 내는 소리와 표시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이 갖는 의미의 궁극적인 원천이다.<sup>225)</sup>

브랜덤은 이러한 모형에서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규범적 개념이 바로 찬동

---

225) MIE, p. 159.

(commitment)의 개념이라고 말한다.

그 모형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주장으로 다룬다는 것은 그것을 특정한 종류의 찬동을 보증하거나 인정하는 것으로서 다루는 것이다. 여기서의 찬동은 ‘믿음적(doxastic)’ 혹은 ‘공언적(assertional)’ 찬동<sup>226)</sup>을 말한다. 믿음적으로 찬동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믿음적 찬동들은 규범적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의무적인 상태들이다.<sup>227)</sup>

무언가에 찬동한다는 것은 모종의 규범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의무적 상태(deontic status)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언가에 찬동함으로써 그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혹은 ‘할 권한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브랜덤에 따르면 그러한 의무론인 상태는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지금 언급한 찬동이고, 그 찬동과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의무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게 찬동할 수 있는 권한(entitlement)이다. 실제로 브랜덤은 찬동과 권한을 규범적 화용론의 의무적인 원초자(deontic primitives)로 간주하고 있다.<sup>228)</sup> 따라서 찬동과 권한이라는 의무적인 상태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유의 제공과 추궁의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귀속되고 어떻게 보증하게 되는가가 궁극적으로 언어적인 표현들에 구체적인 명제적 내용을 부여하는 열쇠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3-3. 의무적 태도들 : 찬동의 귀속과 보증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찬동과 권한이라는 의무적인 상태들은 누군가가 스스로 부여하여 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바로 그 사람에게만 특권적인 접근이 허용되는 어떤 특정한 심적인 상태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226) 브랜덤에 따르면 믿음(belief)은 주장을 함에 의해서 보증되거나 인정되는 그런 유형의 추론적으로 명료화된 찬동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바로 이런 종류의 찬동을 믿음적 혹은 주장적 찬동들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것을 기본적인 개념 사용적 찬동의 유형으로 간주한다. (MIE, p. 157, 참조)

227) MIE, p. 142.

228) MIE, p. 160.

여기서 고려되고 있는 유형의 의무적인 상태들은 실행적인 태도들의 산물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무언가에 찬동하고 있는 것으로 대우하기 이전에 찬동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한 찬동들은 세계의 자연적인 구비물들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사회적인 상태들이며, 개인들이 그러한 상태들을 서로에게 귀속시키고 그런 상태들을 인지하거나 혹은 인정함으로써 형성되는 것들이다.<sup>229)</sup>

어떤 사람이 종이 위에 글을 쓰는 물리적인 행위가, 예를 들어 자동차대여 계약서에 자신이 찬동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 계약 과정에 개입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필기 행위를 그가 계약에 찬동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행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가 그 계약서의 내용에 찬동하고 그 행위가 계약의 상대방에 의해 인정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권한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약서에 서명한 자동차 대여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행위이다. 그것이 바로 그 자동차의 운전이라는 물리적 사건을 의무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으로 만들어주며, 동일한 운전이지만 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와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찬동의 보증과 권한의 귀속이라는 문제는 권위(authority)와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유사한 의무적 상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A가 B에게 음악회 초대권을 제공하였고 B가 그 초대권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럴 때, A는 B에게 해당 음악회에 입장할 수 있는 권위를 제공하였고, 따라서 초대권을 받은 B는 그 음악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즉, B는 권위의 귀속자로서 특정한 행위를 허가 받은 권한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B에게 반드시 그 음악회에 참가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책임 없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이다. 그리고 B가 그 초대권을 받고 그 내용에 찬동하였더라도, 여전히 참가 권한의 행사 여부는 B의 선택의 문제이며 B에게 불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B가 그 내용에 찬동하고 A에 의해서 B의 찬동이 보증된다면, B에게는 모종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B가 음악회 참가에 찬동함을 보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로부터 B는 그 참가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B에게는 음악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할 책

---

229) MIE, p. 161.

임이 따르는 것이다.

지금 고려하고 있는 방식의 찬동과 권한의 구조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고 브랜덤은 말한다.<sup>230)</sup> 첫째, 누군가가 자신이 무언가에 찬동하는 것을 보증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러한 찬동을 귀속시키는 일을 적절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B는 A에게 자신이 음악회 참가에 찬동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A가 B에게 음악회 참가에 찬동한다는 상태를 귀속시키기에 충분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참가 약속을 서면이나 구두로 제시하는 등의 일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B가 자신의 찬동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상태 즉 찬동의 귀속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의거해야 한다. 둘째, 책임 혹은 찬동이라는 기본 개념은 권위 혹은 권한의 개념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무언가에 찬동함을 보증한다는 것은 그러한 찬동을 귀속시킨 사람들에게 그가 그러한 보증에 따르는 적절한 행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 3-4. 의무적 태도와 사회적 실행

언어적 표현의 명제적 내용성은 이유를 제공하고 추궁하는 놀이를 통한 추론적 명료화를 통해 주어지고, 그러한 추론의 적절성의 지배하는 규범은 그 놀이에 참가한 사람들의 규범적 상태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하며, 그러한 규범적 상태의 근본적인 형태는 찬동과 그에 따른 권한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논의에서 그러한 규범적 상태가 그 놀이의 참가자들이 상호 간에 인정하고 귀속시키는 규범적 태도들의 변주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 점에 관하여 브랜덤은 다음과 같이 요점을 정리한다.

언어의 사용이 그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형의 암묵적으로 규범적인 실행은 두 가지 유형의 의무적 상태들에 의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른바 찬동과 권한이다. 규범적 상태의 개념 그리고 규범적 상태를 바꾸는 행위의 유의미성에 관한 개념은 차례로 누군가를 무언가에 찬동하고 있거나 혹은 무언가에 대한 권한

---

230) MIE, pp. 162-163.

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혹은 대우하는 실행적인 의무적인 태도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찬동 혹은 권한을 귀속시키는 일이다.<sup>231)</sup>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앞서 언급했던 예에서 B는 자신이 음악회에 참석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즉 그것에 찬동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A가 B에게 음악회 참석 문제에 찬동하고 있다는 태도를 귀속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찬동에 대해서 채택될 수 있는 실행적인 의무적 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그러한 찬동을 다른 누군가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찬동을 그 자신이 인정하거나 혹은 보증하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태도 중에서 더 근본적인 것은 찬동을 귀속시키는 태도이다.<sup>232)</sup>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누군가가 자신이 무언가에 찬동하고 있음을 보증하려면, 타인이 그에게 그런 내용에 찬동하고 있음을 귀속시킬만한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타인에 의한 찬동의 귀속 없이 스스로 찬동을 보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추론의 적절성을 지배하는 규범적 태도가 지닌 사회적 실행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암묵적으로 규범적인 사회적 실행들에 관해 사유하는 한 가지 방법인 셈이다. 사회적 실행은 참여자들이 각자 다양한 의무적 상태들, 즉 찬동과 권한들을 드러내는 놀이이다. 그리고 각각의 실행적으로 유의미한 행위가 그러한 상태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 행위의 유의미성은 그것이 어떻게 참여자들의 의무적인 상태들을 바꾸어 놓는가에 달려 있다.……참여자들은 스스로와 타인들을 다양한 찬동과 권한을 가진 존재들로 간주하거나 그렇게 대우한다. 그들은 그러한 상태들을 타인들에게 귀속시키고 또 스스로 보증함으로써 의무적인 상태들에 관한 점수를 기록한다. 한 행위의 유의미성은 그것이 의무적인 점수에 야기한 차이이다.<sup>233)</sup>

---

231) MIE, p. 166.

232) ibid.

233) ibid.

다시 말해, 그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호간에 찬동과 권한을 귀속시키고 또 스스로 찬동을 보증하고 상대의 권한 인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의 자신의 찬동 보증을 인정 받음으로써 권한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의무적 상태들이 의무적이 태도들에 의해서 변동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행위의 유의미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규범성이 갖는 사회적 실행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4. 추론, 규범성, 사회적 실행, 그리고 명제적 내용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화용론의 규범적 성격과 사회적 실행의 차원이 분명해졌다. 남은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실행 속에서 규범성을 획득하는 화용론의 모형 안에 의미론을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 4-1. 언어적 실행과 공언

지금까지 살펴 본 것은 암묵적으로 규범적인 사회적 실행들이 어떻게 의무적 태도들의 변경 과정에 작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언어적인 실행은 분명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사회적인 실행의 일부이며, 브랜덤에 따르면 언어적 실행의 특징은 그러한 실행에 동반되는 규범적 유의미성이 언어적 실행의 경우에는 추론적으로 명료화되며, 그럼으로써 그러한 규범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태도, 수행, 그리고 표현들에 구체적으로 개념적인 내용을 부여한다는 점에 있다.<sup>234)</sup> 따라서 문제는 사회적 실행에 근거하는 규범적 화용론과 추론적 의미론의 결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무언가를 주장한다는 특정한 행위를 ‘언어적인’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공언하거나, 주장하거나, 혹은 선언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doing)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그럴 때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찬동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35)</sup> 따라서 이제 공언적인 찬동과 그에 따르는 권한의 관계를 설명할 수

---

234) MIE, p. 167.

235) *ibid.*

있다면, 명제적 내용을 다루는 의미론의 차원과 의무적 태도에 입각한 규범적 화용론의 차원이 결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의무적인 사회적 실행의 점수 기록 모형이 어떻게 주장을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열쇠는 바로 셀라스의 개념인 ‘이유를 제공하고 추궁하는 놀이’이다. 그 발상은 이런 것이다. 즉, 공언(assertion, 믿음적 찬동들을 공공연하게 보증하는 행위인)이란 근본적인 경우에 이유들이 요청되는 것이며 언제나 이유를 제공하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다.<sup>236)</sup>

공언적인 유형의 찬동이 갖는 특징은 무언가를 주장한다는 것이 이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의 무언가에 대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무언가에 대한 이유로서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무언가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브랜덤에 따르면 다른 유형의 찬동들은, 예를 들면 행위에 들어 있는 실행적 찬동의 경우에는 주로 그에 대한 정당화를 요구하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의 증명을 요구하는데서 그치게 되거나, 혹은 감각 지각에 들어 있는 실행적 찬동들은 공언적 찬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귀속할 수 있게 하는 데서 그친다는 점에서,<sup>237)</sup> 이유의 제공과 추궁이라는 두 측면을 놓고 볼 때 일면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오직 공언적인 찬동만이 그 두 관계 모두를 동반할 수 있다.<sup>238)</sup> 즉 이유의 제공과 추궁의 놀이에서 그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주장(claim)들이 정당화시키는 자로서의 역할과 정당화가 요구되는 대상으로서의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그러한 유형이 공언적인 찬동이라고 제대로 불리기 위한 필요조건이다.……구체적으로 언어적인 실행은 정확히 사회적 실행들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행위들이 공언적인 찬동의 보증이라는 유의미성을 갖는다.……서술문(declarative sentence)은 그런 공언적인 행위들 속에서 발화되고 기록되는 표현들로서 선택된다.<sup>239)</sup>

---

236) *ibid.*

237)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브랜덤이 주장하는 강한 추론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물론 감각지각이나 행위도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게 한다는 점, 그리고 행위 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추론적인 맥락에서 그 유의미성이 설명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238) *ibid.*

무언가를 공언하는 언어적인 실행은 근본적으로 추론의 재료가 되는 주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공언적인 힘이나 유의미성을 담아서 어떤 문장을 발화한다는 것은 그것을 잠재적인 이유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주장들은 이유들이 되기에 안정맞춤이다.<sup>240)</sup>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주장의 기능은 문장들을 추론에서 전제나 결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혹은 이런 차원의 유의미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대한 공언적인 승인 혹은 찬동이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해 승인하거나 찬동할 수 있는 권한 혹은 의무를 주어야만 한다. 그러한 찬동에 대한 공언적인 찬동과 권한의 화용론적 유의미성은 그러한 찬동과 권한들이 보존적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간단히 말해서, 상속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상속 가능성이 바로 추론적 명료화가 취하게 되는 형식이며, 바로 그러한 형식 덕분에 그러한 의무적 태도들은 의미론적으로 내용을 갖는다고 간주되는 것이다.<sup>241)</sup>

#### 4-2. 공언과 추론

브랜덤에 따르면, 앞에서 보았듯, 공언적 실행의 유의미성과 상호 관계적인 속성을 공유하는, 그럼으로써 그러한 실행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표현, 행위, 상태, 태도 등에 명제적인 내용을 부여하게 되는, 추론적 실행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 규정된다.<sup>242)</sup>

첫째, 앞의 2-5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추론적인 실행 속에도 마찬가지로 찬동과 그러한 찬동에 따른 권한이라는 두 가지 의무적인 상태들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찬동의 상속, 혹은 찬동 보존적인 추론은 흔히 일반적인 논리학에서 연역 추론으로 알려져 있는 추론적 관계에 해당하며 소위 찬동적 추론(committive inference)이라고 불린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찬동 보존적인 추론이 반드시 진리가 보존적인 논리적으로 타당한 연역적 추론에만 상응하여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지금 천둥소리가 들린다. 그러니

239) MIE, p. 168.

240) ibid.

241) ibid.

242) MIE, p. 168-172, 참조.

앞서서 번개가 친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추론에서 전제에 찬동한 사람은 결론에도 찬동하게 된다. 한편, 권한의 상속에 관련된 추론은 허가적 추론(permissive inference) 혹은 권한 보존적 추론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인 논리학에서 귀납적 추론으로 분류되는 것과 유사하다. 누군가가 ‘날씨가 잔뜩 흐린 걸 보니, 얼마 있다가 비가 오겠군.’이라고 추론한 경우, 그는 전제에 찬동함으로써 마땅히 결론을 주장할 권한을 얻는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결론에 찬동함을 보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는 찬동을 보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제에 찬동함으로써 발생한 권한이 결론을 주장할 권한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찬동과 권한이라는 두 가지 의무적 태도 이외에도 2-5에서 언급한 대로 내용들 간의 추론적 관계에는 찬동 보존적인 것과 권한 보존적인 것 말고 양립불가능성의 관계에 의한 추론도 존재한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두 주장이 있을 때, 어느 한 쪽에 찬동함으로써 다른 한 쪽에 찬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시키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추론적 명료성과 공언적 실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론적 실행에서 의무적 상태들의 동반적인(concomitant) 상속과 전달적인(communicative) 상속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한 주장을 전제로 사용할 때 개인내적(intrapersonal)인 사용과 개인간(interpersonal)의 사용이라는 사회적 차이에 해당한다. 누군가가 무언가에 찬동할 때 그로 인한 추가적인 찬동과 권한의 관계들을 그 사람 본인이 동반하게 되지만, 이러한 의무적 상태들의 변화에 따른 개인내적인 추론적 귀결들은 공언적인 행위의 유의미성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한 행위들은 또한 개인간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유의미성을 갖는다.<sup>243)</sup> 어떤 공언적 찬동의 보증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찬동을 귀속시킬 수 있는 권한 혹은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적인 귀결에 해당한다.

화자에 의해서 참으로서 제기된 것이 청자에 의해 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로 전달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공언은 찬동의 개인간 상속에 해당한다.<sup>244)</sup>

셋째, 개념 사용상의 권위(authority)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responsibility)에 연결되고 또 그것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공언의 한 가지 기능은 추가적인 주장들에 찬동할 수

243) MIE, p. 170.

244) ibid.

있는 권위를 허가하는 것이지만, 책임의 개념을 통해 설명되어야 하는 측면도 존재하며, 그런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찬동과 권한이라는 의무적 상태들 간의 차이와 다른 한편으로 개인내적 추론과 개인간 추론 사이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공언했을 때 그는 그 무언가에 공언적인 찬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주장들에 찬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은 개인간의 상속 관계를 통해서 대화 상대방에게 이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의 그 권한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언어적 실행의 경우에는 다른 실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과 권한의 관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음악회 입장권을 구입하였을 경우 그는 음악회 참가에 그런 방식으로 찬동함으로써 음악회장에 출입할 권한을 얻는다. 언어적 실행, 즉 공언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 전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의 차원에서 권한 발생의 문제가 설명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무언가에 찬동하는 공언을 하였을 때, 그에게는 추가적인 주장에 찬동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찬동하는 바를 정당화함으로써 그러한 찬동에 자신이 권한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언어적 주장에 관련된 찬동의 유형은 주장된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당화의 책임의 보증을 수반한다. 한 문장을 공언할 때, 그는 추가적인 주장들을 (타인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허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애초의 공언을 정당화하고 있음에 찬동하는 것이다.<sup>245)</sup>

주장들을 생산할 때, 행위자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첫째 추가적인 주장들(그리고 그것들이 표현하는 찬동들)에 권위를 주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동반적인 찬동들(추론적 귀결들)과 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장들(전달적 귀결들) 둘 다에 해당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들은 자기들의 공언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해, 그들은 또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책임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이 자신들의 공언을 통해 표현한 찬동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다. 만일 그러한 권한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말이다.<sup>246)</sup>

---

245) MIE, p. 172.

246) MIE, p. 173.

정리하자면, 추론적인 명료화를 통해 공언적인 실행과 그에 따른 찬동의 유의미성을 확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찬동과 권한이 개인내적으로 그리고 개인간에 상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위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4-3. 권한의 구조와 입증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하면(특히 권위와 책임의 관계 구조를 염두에 둘 때), 공언이 갖는 화용론적인 힘 혹은 유의미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어적 실행, 서술문, 명제적 내용 등의 개념들의 유의미성까지도 주장이 이유의 제공과 추궁의 놀이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인 추론적 역할 즉 무언가를 정당화시키는 역할(따라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과 무언가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역할을 통해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권위와 책임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공언의 화용론적 유의미성과 더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갖는 개념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권위와 책임의 구조를 분별하는 과정은 ‘사회적으로’ 명료화 된다는 것이다.<sup>247)</sup> 즉, 누군가가 무언가를 공언할 때 그는 스스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책임에 따라 좌우되는 공언적 실행의 권위가 이번에는 새로운 차원으로 통로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공언을 듣는 청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무언가를 공언할 때 보증해야 할 책임들을 만족시켜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언적인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애초의 공언(타인에게 전달되어 타인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랜덤은 공언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증명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공언하는 행위와 결합된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sup>248)</sup> 첫째는, 이유의 제공과 추궁의 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바로 그렇게 공언하는 이유를 대는 것이다. 무언가에 대한 주장의 이유를 낸다는 것은 언제나 더 많은 공언을 하는 것에 해당하며, 그러한 찬동의 입증을 수용한 대화 상대자들은 결과적으로 특정한 종류의 추론을 승인하게 되는 셈이다. 무언가를 정당화 시키고 또 무언가로부터 정당

---

247) MIE, p. 174.

248) MIE, p. 174-176.

화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장은 이렇게 해서 명제적인 내용을 갖게 되고, 결국은 하나의 믿음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sup>249)</sup>

둘째, 또 다른 주장자의 권위에 호소하여 권한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찬동의 공유뿐만 아니라 그러한 찬동의 권한 또한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상대방의 공언에 찬동하는 사람은 그가 공언한 것을 재차 공언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전받게 되며 따라서 그는 그러한 권한의 증명에 애초에 그 공언에 찬동했던 상대방의 권위에 호소할 수 있게 된다. 브랜덤은 이점에서 주장이 또 다른 의미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주장은 정당화의 측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도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장들은 한편으로는 소통되는 것(타인들이 활용 가능해지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소통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 대화 상대자의 주장은 타인들에게는 또 다른 주장들을 위한 추론의 재료인 것이다.”<sup>250)</sup>

행위로서 공언이 갖는 특징은 권한의 증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명제적 찬동에 대한 개인내적이자 내용내적(intra-content)인 권한 상속에 호소하는 정당화의 메커니즘과 개인간의 내용간(inter-content) 권한의 상속에 호소하는 의사소통의 메커니즘, 달리 말하지만 개인-기반적인 권위와 내용-기반적인 권위의 상호 결합 방식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찬동과 권한에 관한, 권위와 책임에 관한, 그리고 개인내적이고 내용간의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내용내적이기도한 공언적 찬동에 대한 권한의 상속에 관한 이러한 배열이 지금 제시된 공언적 실행의 모형에서 근본적인 하부 구조를 구성한다.<sup>251)</sup>

이제 권한의 배열과 구조에 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고려해보자. 권한의 원천은 무엇인가?<sup>252)</sup> 위에서 두 가지 형태의 권한 상속의 경우를 구분하였다. 하나는 의사소

---

249) MIE, p. 174.

250) MIE, p. 175.

251) ibid.

252) MIE, pp. 176-178, 참조.

통적인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개인간의 권한 상속이다. 이 경우 공언적 찬동의 내용은 내용내적인 상속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며, 찬동의 권한은 최초 주장자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서 멈추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공언자는 정당화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자신의 찬동 권한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는 개인내적인 내용간 권한 상속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내용간 권한 상속의 과정이란 곧 최초 공언자가 자신의 찬동 권한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내용을 가진 다른 주장에 찬동할 권한이 있음을 제시하여 그러한 추론 관계에 실질적 옹호를 타인들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초의 주장에 대한 찬동 권한을 입증할 다른 공언들에 찬동할 권한은 또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한의 원천에 관한 무한퇴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브랜덤의 답변은 단호하다.

권한의 퇴행에 관한 우려는 확연히 토대론적인 것이다. 그 문제는 규범적인 상태들(이 경우에는 권한)이 이유의 제공과 추궁을 지배하는 사회적 실행들 속에 암묵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간주하는 입장에 대한 근본적인 화용론적 찬동에 호소함으로서 응수될 수 있다.……설령 찬동의 권한을 증명하는 모든 방법들이 퇴행적이라고 하더라도(즉, 권한의 상속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토대 구하기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오로지 권한은 그것이 증명되기 전에는 그리고 증명이 될 때까지는 결코 귀속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만 발생한다. 만일 많은 주장들이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면……전반적인 퇴행의 위협은 해소된다.<sup>253)</sup>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브랜덤이 제시하는 권한의 구조 모형은 이른바 ‘기본값과 도전(default and challenge)의 구조’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무언가에 찬동할 때 우리는 그에게 기본값으로 그것에 찬동할 권한이 발생한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권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찬동 권한에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이다. 따라서 그러한 의문이 제기되기 전까지 애초의 공언자는 기본값으로 주어진 찬동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문시 될 수 있는 찬동 권한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화 참가자들이 취하는 실행적인 태도들의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실행의 문제인 것

---

253) MIE, p. 177.

이다. 그리고 문제의 제기가 어디에서 멈추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권한의 증명이 대화 참가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내재하는 규범들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 의해 해소된다.

권한의 증명이나 정당화에 대한 요구가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 미리 결정된 지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가 끝을 볼 수 있어서 허약한 퇴행의 총체적인 위협이 불필요할 정도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한다.<sup>254)</sup>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실제로 어떤 찬동의 권한도 결정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증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런 측면에서 권한의 증명은 늘 잠정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합당한 수준의 권한의 증명에 도달했던 공언적 찬동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어느 시점에는 그 권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4-4. 언어게임의 의무적 점수기록 모형

화용론적인 유의미성과 의무적 상태들이 의미론적인 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브랜덤은 데이빗 루이스(David Lewis)의 소위 점수기록 모형을 활용한다.<sup>255)</sup>

루이스는 우선 야구 경기를 예로 든다. 실제로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각 단계마다 그 경기의 점수라고 부를 수 있는 숫자들의 순서쌍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 2, 1, 7, 2, 3, 1>라는 점수는 7회 초 현재 홈팀이 3대 2로 원정팀에 지고 있으며 2스트라이크 3볼에 1아웃 상황을 표시한다. 두 가지 유형의 경기 구성 규칙이 이러한 점수 즉 숫자들의 순서쌍을 만들어낸다. 하나는 점수 변동 규칙이다. 이 규칙에 따라서 점수가 S인 특정 시점 T에 선수들이 M의 방법으로 플레이했을 때 T'에 점수 S'가 결정된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 올바른 플레이인지 정해주는 규칙이다. 이 규칙에 따라서 점수가 S인 특정 시점 T에 선수들이 M의 방법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

254) MIE, p. 178.

255) MIE, pp. 180-182, 참조.

데이비드 루이스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규칙을 이용하면 특정한 경기 단계에 합당한 숫자들의 순서쌍, 즉 점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주어진 단계에 점수를 결정해주는 함수를 점수 함수(score function)라 부르자고 말한다. 만일 점수 함수를 제대로 정의할 수 있으면, 각 단계의 점수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수 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족 상황들도 모두 정의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그 단계에서 무엇이 올바른 플레이인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이스의 생각은 이런 발상을 의사소통의 전개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의사소통 과정 역시 점수 함수의 형식으로 명시화할 수 있는 암묵적인 규범들에 의해 지배 받는 게임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의사소통의 게임은 야구 경기의 점수 기록과 유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것이다.

- 해당 단계마다 의사소통적 점수가 결정되며, 그러한 점수의 구성요소들은 추상적인 존재자들이다.

- 해당 단계의 점수에 따라서 그 단계의 올바른 플레이가 결정된다.

- 점수의 변동은 규칙 지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변동에 관련된 게임의 구성 규칙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적 점수가 S인 특정 시점 T에 게임 참가자들이 채택한 의사소통의 경로가 C라면, T'에 의사소통적 점수는 S와 C에 의해 S'로 결정된다.

- 의사소통의 특정 단계에서 의사소통적 점수를 결정해주는 의사소통적 점수 함수를 정의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정의되면 해당 단계의 점수와 올바른 플레이를 결정할 수 있다.

브랜덤은 이러한 루이스의 점수기록의 모형을 지금까지 논의한 언어적 실행에 관한 규범적 화용론과 추론주의 의미론의 내용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게임의 점수는 의무적인 점수가 되고 점수를 구성하는 추상적인 요소들은 찬동과 권한의 배열로 이루어진 의무적인 상태들이다.

- 의사소통의 각 단계의 점수에 따라서 그 단계의 올바른 행위가 결정된다.

· 언어적 실행은 각 단계의 점수와 각 단계에서 올바른 행위를 결정하는 규칙들로 구성되는 점수 함수에 의해서 설명된다.

· 점수 함수는 의사소통의 각 단계의 의무적인 점수가 그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적절하며 또 그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의 귀결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즉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점수를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제약한다.

점수기록 모형에 입각하여 말하자면, 언어 행위의 유의미성은 그 행위가 해당 단계의 의무적인 점수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해당 단계의 의무적인 점수가 그 시점에서 수행된 언어 행위의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단계에서 수행된 그 언어 행위가 다음 단계의 의무적 점수들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그 언어 행위가 갖는 화용론적 유의미성인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언어 행위의 유의미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단계의 의무적 점수와 점수 함수를 통해 그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실제로 수행된 후에 또 다시 점수 함수를 통해 그 다음 단계의 의무적 점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브랜덤에 따르면, “각 단계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은 그 점수에 따라서 결정되며, 따라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점수의 변동을 실제적으로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생각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게임에서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sup>256)</sup>

#### 4-5. 의무적 점수기록 모형의 특징<sup>257)</sup>

야구 경기에 관한 기록 모형에서 점수에 해당하는 순서쌍의 구성 요소들이 점수의 기록 과정에서 각자 수행하는 별도의 역할에 따라 형식적인 용어들, 이를테면 양 팀의 득점 현황, 히트, 현재의 볼카운트 등으로 규정되는 것처럼, 이유를 제공하고 추궁하는 언어적 실행의 게임에서 오고 가는 수(手)들을 추적하는 데, 즉 점수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용어들을 정의할 수 있다. 이 언어 게임의 경우에는 찬동과 권한의 보증과 책임에 관한 다양한 구조적 배열이 그러한 형식적인 용어들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

256) MIE, p. 183.

257) MIE, pp. 183-186, 참조.

이런 형식적인 특성 이외에도, 점수의 각 구성 요소마다 실질적인 측면이 또한 존재한다. T 단계에서 T' 단계로 이행할 때 점수를 변경시키는 방법 M, 혹은 의사소통의 경로 C 등이 바로 그런 측면에 해당한다.

그런 측면은 점수표에는 명시되지 않는 추가적인 개념들로 부를 수 있으며, 야구 경기의 경우에는 배팅, 포구, 투구 등의 방법들이 그런 개념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것들이 명시적으로 기록된 점수에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형태의 언어 게임에서 그런 실질적인 개념들은 의무적인 상태들(점수)을 변경시키는 의무적인 태도들에 해당된다. 이를테면, 어떤 발화를 어떤 찬동의 보증으로 간주하는 것, 혹은 자신이 무언가에 찬동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 비(非)추론적인 반응적 권위를 요청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sup>258)</sup>

한편, 특정한 행위에 점수 기록상의 어휘를 적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규칙 지배적인 행위이며, 그럴 때 대체로 그러한 규칙들은 점수 기록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어휘들로 표현된다. 앞서의 야구 경기의 점수 기록 모형에서 점수가 <1, 2, 1, 2, 2, 2, 0>인 단계에서 선수가 홈런을 쳤다고 가정해보자. 그 경우 그 다음 단계의 점수는 <2, 2, 1, 2, 0, 0, 0>이 될 것이다. 그 선수의 행위에는 방문 팀의 득점이라는 점수 기록상의 어휘가 적용되지만, 그 규칙은 이를테면, '타자가 타석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쳐서 외야의 담장을 넘기면 득점으로 인정한다.'라는 점수기록 상의 어휘들이 아닌 그런 어휘들로 표현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의 규칙을 적용하는 권위가 무엇에 귀속되는지 생각해 보자. 물론 규칙을 적용하는 최종적인 권위는 주심에게 있지만, 주심의 권위 자체가 규칙의 올바른 적용 여부를 구성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정 상황에 점수 기록에 관련된 어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규칙들이 점수 기록에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로 기술된다는 사실은 주심의 판단, 즉 주심의 규칙 적용 결정이 궁극적인 권위의 원천이 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즉, 실제로 선수가 친 공이 외야 담장을 넘어갔지만, 주심이 그 때의 점수 변경 규칙을 실수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언어 게임의 점수 기록의 문제에서도 이런 차원의 권위의 복잡성이 마찬가지로 상존한다. “한편으로 점수기록자들의 실제적인 태도가 점수를 결정할 때 본질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태도의 형성 그 자체가 규범에 종속된다. 즉 점수기록 행위 역시 올바르게 혹은 올바르게 않게 수행될 수 있는

---

258) MIE, p. 184.

그 무엇이다.”<sup>259)</sup> 이런 특성이 무척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언어 게임의 점수기록자가 특정한 언어적 실행의 유의미성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 즉 규칙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경우란 무엇인지 표상주의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객관적인 지시 관계 등을 동원하지 않고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언어게임의 점수기록 모형이 다른 유형의 점수기록 모형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두 모형 사이에는 결정적이면서 무척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언어게임의 점수기록이 관점 지배적인 본성을 갖는다는 것이다.<sup>260)</sup> 야구 경기는 양쪽 팀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단일한 점수기록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언어 게임의 점수기록표는 게임 참가자들 각자에게 점수기록표가 따로 할당된다. 그들 각각에게는 각각의 의사소통 단계마다 상이한 찬동과 상이한 권한들이 할당되는 것으로 기록된다. 언어 게임의 참가자들에게 각자 할당된 점수기록표의 내용은 서로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서로 겹치지 않는, 다시 말해 같은 단계에서 각기 다른 점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야구 경기에 공인된 기록원이 존재하는 데에 반해서, 언어 게임의 참가자들은 공식적인 점수 기록을 따로 제 3자에게 위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어적 점수기록은 또한 야구에서와는 전혀 유사성이 없는 방식으로 관점적(perspectival)이다. 대화참가자들 각자에 대해서 점수가 기록될 뿐만 아니라, 점수는 또한 대화 참가자들 각자에 의해서도 기록된다.……이유를 제공하고 추궁하는 놀이를 하는 것의 일부는 찬동과 권한을 귀속시킴으로써 다른 선수들의 찬동과 권한을 추적하는 것이다. 각각의 대화자가 각 단계마다 특징적으로 상이한 의무적 상태들의 집합을 부여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대화자는 특징적으로 각 단계마다 상이한 태도들 혹은 귀속들의 집합을 갖는다.……언어적 점수기록의 실행은 이 중적으로 관점적이다.<sup>261)</sup>

의사소통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언어적 실행의 게임에서 누군가가 k를 주장하였다

---

259) *ibid.*

260) MIE, p. 185.

261) *ibid.*

고 가정해보자. 이 때 A는 대화참가자들이 이러한 언어 행위에 대해 어떤 점수를 주고 있는지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대화참가자가 A에 의해서 동일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A는 B와 C가 k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점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B와 C에 대해서 D는 A와 다른 점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언어적 점수기록의 실행은 이중적으로 관점적이다.”<sup>262)</sup> 결과적으로 말해서 야구 경기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데, 언어 게임에 참가한 대화자들은 제각기 게임 참가자 전원의 의무적 상태들에 관하여 하나의 관점을 구성하는 의무적 태도들을 갖고 있는 셈이다. 즉 참가자 전원이 각자 자기 나름의 점수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누군가가 작성한 단 하나의 점수표가 그 언어 게임의 공식적인 점수기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이 정답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정답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언어적 실행의 게임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자가 나름의 점수기록표를 갖는 것으로 그 게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언어 게임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각자가 기록해 온 점수기록표를 대조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의 의사소통의 목적 또한 그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언어 게임의 진행 과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6. 의무적 점수기록 모형과 명제적 내용

공언과 같은 그런 유형의 언어 행위의 화용론적 유의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의사소통 단계에서 기록된 점수가 바로 그 공언 행위로 인해 그 다음 의사소통 단계의 점수를 변동시키는가 하는 차원의 문제가 그러한 공언 행위에서 보증되는 찬동의 의미론적인 내용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계 맺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sup>263)</sup> 브랜덤의 생각은 화용론적 유의미성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을 때, 이를테면 두 개의 찬동이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대화자가 두 개의 찬동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 상이한 내용을 가진 상이한 찬동을 개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262) *ibid.*

263) MIE, pp. 186-189, 참조.

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점수기록적인 의무적 태도들 간의 내용간의 정당화적이고 내용내적인 의사소통적인 연결고리가 내용과 그런 내용에 찬동하는 대화자들을 규정해줄 뿐 아니라,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궁극적으로 ‘표상’의 개념까지도 정의할 수 있다고 브랜덤은 말한다.<sup>264)</sup>

그렇다면, 실제로 의미론과 화용론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결합시킬 것인가?<sup>265)</sup> 우리는 언어적 표현물인 문장이나 기타의 언어적 표현들에 많은 것을 결부시킨다. 그러한 결합들 중에서 어떤 것이 그러한 표현의 내용과 관련된 의미론적인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브랜덤의 답변은 그러한 표현들의 사용을 지배하는 적절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결합이 바로 의미론적인 결합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바로 어떤 특정한 명제적 내용을 가진 문장을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화용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만든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화용론은 사회적인 특성을 갖는 의무적 점수기록 모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 모형에서 발화의 힘 혹은 언어 행위의 유의미성은 찬동과 권한의 귀속과 보증에 관련된 다양한 배열을 통해 이해되었다.

전형적인 언어 행위의 유형인 공언은 찬동의 보증(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찬동의 귀속들을 허가하는), 그러한 찬동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의 허가 혹은 위임, 그리고 보증된 찬동이 적절히 도전받았을 경우 그것의 권한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적인 과제 책임의 보증이라는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상술된다. 그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공언적 유의미성을 갖는 발화 덕분에 문장의 자격을 갖는 표현들과 결합된 의미론적 내용의 유형에 의해서 “일관된 패턴에 따라(더뫼트의 표현을 빌자면)” 결정되어야만 하는 그런 유형의 유의미성이다.<sup>266)</sup>

264) MIE, p. 187.

265) 프레게의 의미 이론에 대한 더뫼트의 해석에 의하면, 프레게가 ‘뜻(sense)’과 ‘힘(force)’을 구분한 것은 언어 행위의 유의미성이 그것의 내용과 거기에 결부되는 힘의 개념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하고자 한 것이었다.(MIE, p. 187, 그리고 Dummett, ‘Use and the Theory of Meaning’ in *Meaning and Reference*, ed. A. W. Moore pp. 137-149, 참조). 그 모형에 따르면 언어 행위는 동일한 ‘내용’에 상이한 ‘힘’이 결합됨으로써 나름의 유의미성을 얻는다. 그런데 더뫼트에 따르면 문제는 그러한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연히 표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해명하는 방법은 가망성이 없다. 그리고 더뫼트는 비트겐슈타인이 거부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 개념(이를테면 ‘표상’과 같은)의 도입이라고 평가한다.

266) MIE, p. 187.

공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명제적인 것의 자격을 갖는 내용에 대해서 추론적인 개념화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수한 추론적 역할이 주장된 것과 결합되었을 때, 공언이라는 언어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부터 특수한 공언적 유의미성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sup>267)</sup> 한 문장에 결합되어 있는 추론적 내용을 상술하려면, 우선 그 문장이 세 가지 유형의 광의의 추론적 구조(즉, 찬동적 추론, 허용적 추론, 그리고 양립불가능성)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광의의 추론적 구조는 모두 의무적 상태들의 변경시키는, 다시 말해 언어 게임의 점수 기록 모형에서 모두 점수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구체적으로 내용들 간의 광의의 추론적 관계들이 어떻게 언어 게임의 점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예를 통해 생각해 보자.<sup>268)</sup>

A가 점수기록자이고 B가 k를 주장한다고 가정하자. A의 점수기록은 k의 내용에 따라서 변동될 것이다. 우선 A는 k를 지금까지 B에게 귀속시킨 찬동들의 목록에 추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k로부터 가능한 찬동 보존적 추론의 귀결들, 이를테면 q, r도 그 목록에 추가한다. 물론 이러한 점수의 변동은 A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 가설들과 그간 A가 기록한 점수(즉, B에게 귀속시킨 찬동들)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또 다른 점수기록자 C는 A와 다른 점수를 매기고 있을 수 있다. 또한 A는 새로운 찬동을 추가할 뿐 아니라 기존에 B에게 귀속시킨 찬동들 가운데 이번의 점수 변화로 인해 그 찬동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찬동의 추가는 양립 불가능한 기존 찬동의 권한들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A는 B에게 k의 찬동을 귀속시킴으로써 B가 추가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찬동들이 없는지 허용적인 추론의 귀결들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B가 k를 주장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A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A는 B가 A 자신은 물론 기타 타인들에게도 k를 성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브랜덤은 이러한 광의의 추론적 적절성과 권한 및 찬동의 의무적 상태들 간의 관계가 매우 결정적인 이중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말한다.

한편으로……사회적인 의무적 점수기록은 표현들이 자신들과 결부된 그런 유형의

267) *ibid.*

268) MIE, pp. 190-192, 참조.

내용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다른 한편으로, 광의의 추론적 적절성과 그것이 동반하는 두 종류의 의무적 상태들 간의 관계는, 일단 그러한 적절성에 의해 명료화된 내용이 표현들과 결합되게 되면, 그런 표현들을 공언적으로 발화하는 것이 점수기록에 대해 갖는 유의미성을 찬동과 권한을 통해 “일관된 패턴에 따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69)</sup>

이런 귀결을 고려할 때, 브랜덤의 의미 이론의 추론하기(inferring)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다는 의미는 분명해진다.

추론하기는 따라서 의미론적 내용과 화용론적 유의미성을 연결시키는 결정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명제적인 의미론적 내용이 추론적인 역할로서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론의 적절성 또한 화용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공언적인 유의미성 역시 추론적인 역할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270)</sup>

#### 4-7. 사회-관점적(social-perspectival) 성격으로서의 내용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의미론적인 내용,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미라 부르는 것의 본성이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브랜덤의 주장에 따르면, 의미론은 궁극적으로 화용론과 별개로는 납득 가능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물론 의미론적인 내용은 의무적인 상태들에 관한 화용론적 점수기록의 유의미성과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언어 행위의 수행으로부터 따로 떼어내 탐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수학적 언어나 혹은 암호체계처럼 인공적으로 만든 언어, 아니면 일상 언어라 할지라도 그 표현이 갖는 내용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찬동과 권한의 기본 값을 할당한다고 전제한다면 추론적 명료화를 통해서 그 자체로 의미를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혹은 잠정적인 작업일 될 뿐이라고 브랜덤은 말한다.<sup>271)</sup> 의미론적 내용을 표현하는 찬동과 행위들은 그것들이 이유를 제공하고 추궁하

269) MIE, p. 190.

270) ibid.

는 놀이에서 수행하는 역할 때문에 바로 그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다.

그것들의 내용은 관점적이다. 왜냐하면 의무적 점수기록의 실행에 대한 추론적 명료화는 환원 불가능한 사회적 차원을 갖기 때문이다.……기본적인 현상은 개념 사용적인 규범들의 관점적인 성격이다. 의무적인 어휘로 말하자면, 무언가에 찬동하고 있음은 상이한 의무적 관점을 점유하고 있는 점수기록자들에 의해 찬동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sup>272)</sup>

브랜덤은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나-우리’의 관계라기보다는 ‘나-당신’의 관계로서의 사회성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성을 ‘나-우리’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내가 개념을 이러저러하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념의 올바른 적용(즉 객관적 적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주관성으로 이해하는 일견 표준적인 방식이겠지만, 브랜덤은 그런 방식의 이해를 통해서는 개념의 올바른 적용과 그렇지 않은 적용 간의 차이를 전체 공동체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한다.<sup>273)</sup> 무엇보다도 브랜덤의 언어 행위에 대한 점수 기록 모형이 담고 있는 사회성은 모든 사람이 그러그리하게 하는 것이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식의 입장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그것은 한 개인이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가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설명된다.

브랜덤의 의미론이 갖는 궁극적인 사회적 성격은 나의 개념 적용을 공동체 전체에 의해서 공인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나-우리’의 사회성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 서로의 언어 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호간의 규범적 상태와 태도를 확인하는 소위 점수기록의 과정 속에서 둘 사이의 협력적 작업을 통해 개념의 올바른 적용의 기준을 형성해간다는 의미에서의 현재 진행형적인 사회성이다. 다시 말해, 언어적 표현이 갖는 의미론적인 내용은 확정적이지 않으며,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나와 당신’이 기록한 점수표의 대조를 통해 특정 시점에 특정한 상황에서 변동의 가능성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결정되는

---

271) MIE, p. 593.

272) ibid.

273) MIE, pp. 593-594.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추론, 규범성, 그리고 사회적 실행의 개념을 중심으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의미론의 영역 안에서 개념 사용적인 찬동의 내용들은 추론적인 명료화를 통해서 명시화되며,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인 ‘추론’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다. 한편, 의미론은 넓은 의미의 개념 사용적인 실행의 맥락 안에 놓여야 하며, 따라서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언어적 행위에 대한 이해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론은 화용론에 부합해야 하고, 의미의 해명은 개념 사용적인 실행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해명하는 작업에 부합되어야 한다. 브랜덤에게 있어서 개념 사용적인 실행의 핵심적인 성격은 규범적인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개념 사용적인 행위의 유의미성은 찬동과 그에 따른 권한이라는 규범적인 상태들이 상호간에 보증되고, 귀속되고, 인정되는 규범적인 태도들에 의해 바뀌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규범적 태도의 변화를 명시화해주는 것은 바로 추론적인 명료화를 통해서이다. 즉, 어떤 근거로 무언가에 대해 개념 사용적인 찬동을 하게 되었는가, 특정한 개념 사용적인 찬동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찬동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특정한 개념 사용적인 찬동으로 인해 찬동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결과적으로 추론적인 명료화를 통해서 규범적 태도들은 명시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추론 혹은 추론함’은 브랜덤의 언어 의미 이론의 핵심에 위치하는 결정적인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범적 태도의 변동의 과정은, 이를테면 한 개인의 심적인 내적 처리의 결과물 같은 것이 아니다. 규범적 태도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규칙 지배적인 게임에서 점수가 기록되는 과정에 유비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유의 제공과 추궁의 게임’이라는 개념 사용적인 실행의 놀이의 특정 단계에서 게임 참여자들이 상호 간에 기록한 규범적 태도와 규범적 상태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 즉 기록된 점수는 그 시점에서 그 놀이에 변화를 언어 행위의 개념적 내용을 결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브랜덤이 주장하는 언어 의미 이론의 근본적인 성격은 ‘나와 당신’ 사이에 주고받는 규범적 상태와 태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사회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의미는 사용’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표어를 계승한 브랜덤의 언어적 실행론이 이전의 언어 사용 이론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의 이론적 정교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미 이론의 과제들, 즉 우리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론적 사실들을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상주의적인 의미 이론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기존의 언어 사용 이론이 약점은 바로 그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렇다면, 브랜덤의 언어적 실행론은 그런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여러 가지 의미론적 사실들을 해명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정교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살펴볼 본 논문의 남은 과제이다.

## V.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의의와 설명의 한계

### 1. 들어가는 말

앞에서 표상주의적인 의미 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표상주의가 갖고 있는 이론적인 장점과 우월성에 관해 다룬 바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표상주의 의미 이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론적 사실들’과 언어에 대한 일상의 직관들을 어떤 면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만일 설명되지 않는 설명자로서 모종의 표상관계를 언어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수용하는 것이 표상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입장이 다른 어떤 대안적인 이론들보다도 언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와 의미론적인 사실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표상주의를 굳이 포기해야만 할 정당성은 줄어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브랜덤의 의미 이론이 어떤 측면에서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시도에서 올바른 접근 경로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특성들을 전혀 설득력 있게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관하여 아무런 이론적인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로 남게 된다면, 그러한 이론을 입장을 굳이 채택해야 할 정당성은 줄어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표상주의적인 이론의 강점으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설명력이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틀 안에서 어떻게 해명될 수 있는지 그 범위와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언어적 표현들의 갖고 있는 조합적인 성격에 대한 해명이다. 표상주의 의미 이론은 문장의 의미가 그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합적인 성격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많은 의미론적 사실들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언어가 지닌 그러한 조합적 성질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언어와 세계의 접점에 관한 해명이다. 일상적인 직관에 따르면 언어는 세계를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럼으로써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기여하게 된다. 표상주의 의미 이론은 언어와 세계 사이의 지칭관계를 기본 값으로 설정함

으로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전혀 곤경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의미가 궁극적으로 결정되는 지점은 언어 게임에 참가자들이 서로의 의무적 상태들을 확인하고 기록한 점수표 상에서이며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세계의 사실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혹시 ‘세계를 상실’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의미론적인 내용이 갖고 있는 전체론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이 의미의 불안정성을 불러 오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랜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하는 전략은 개념의 표상적인 측면을 광의의 추론주의의 맥락에서 해명함으로써 ‘공유’와 ‘전달’이라는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제는 전체적인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브랜덤 자신도 인식하고 있는 이른바 규범의 성격과 원천에 관한 문제이다.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어떤 언어적 표현의 올바른 사용은 이룰 때 언어적 표현과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사이의 표상적인 관계 등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언어적 표현의 규범성, 즉 올바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의 분별은 언어 게임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의무적인 상태와 태도들이 부여하는 명제적 내용성에 의해 주어진다. 브랜덤에게 있어서 규범의 근거는 또 다른 규범이며 그런 측면에서 규범성의 성격은 전체론적이다. 아예 브랜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후에 놓여 있는 규범들’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명제적 내용성을 부여하는 의무적 태도들이 의존하고 있는 규범의 적절성은 또 무엇에 의해 보장되는가, 다시 말해, 점수기록자들이 기록한 점수가 당사자들의 의무적 태도의 산물이라면 과연 그 점수는 ‘객관적’인가? 객관적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비규범적인 것, 즉 자연적인 것으로의 환원에 호소하지 않으면서, 또한 규범의 순환성 혹은 무한퇴행성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이 의문에 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이 의문에 답하는 것이 이번 장의 마지막 과제이다.

## 2. 추론주의와 언어 조합성(compositionality)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미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브랜덤의 접근 방식은 단어와 문

장이 각기 대상, 속성, 그리고 사태 등과 맺는 관계를 기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사용적인(브랜덤의 경우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서 추론적인) 속성을 포함한 여타의 의미론적 사실들 설명해 나가는 표상주의적인 설명 전략과는 반대로 사용적인 즉 추론적인 속성들을 기본 값으로 출발하여 여타의 의미론적 사실들을 설명해 나가고자 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사실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일상의 언어가 갖고 있는 조합적인 특성이다.

## 2-1. 대상(object), 생산성, 그리고 언어 조합성

포더는 언어의 조합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 어떤 언어가 조합적(compositional)이다, iff 그 언어의 복합 표현들의 의미가 그 표현들의 구문론적인 구조들의 의미와 그 표현들의 구문론적인 구성 요소들의 의미로부터 전달된다.<sup>274)</sup>

이런 정의에 바로 덧붙여, 포더는 “자연 언어가 조합적이라는 신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sup>275)</sup>고 못 박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적이고 인지적인 능력들은 생산적이며, 그러한 사실에 대한 설명은 그것들이 조합적이라는 점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더는 이렇게 말한다.

생산성에 대한 설명에 적합한 조합성의 개념을 담을 수 없는 내용 이론은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수용할 수 없는 이론인 것이다.<sup>276)</sup>

브랜덤 역시 다음과 같이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

274) Fodor & Lepore, ‘Why meaning (probably) isn't conceptual role’, in *The Compositionality Papers*, p. 14.

275) *ibid.*

276) Fodor & Lepore, ‘Brandom's Burden: Compositionality and Inferentialism’, in *The Compositionality Papers*, p. 143.

무한한 수의 새로운 문장들을 생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언어적 실행의 놀랍고도 본질적인 특성이다. 촘스키가 지금껏 강조해온 것처럼, 그러한 창조성은 예외라기보다는 하나의 법칙이다. 성인에 의해서 발화되는 거의 모든 문장은 처음으로 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화자에게 처음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인 것이다.<sup>277)</sup>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 따르면, 문장의 의미는 그것이 놓이는 추론적 맥락에서 수행하는 개념적인 역할이다. 만일 언어의 조합적인 성격을 해명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무한히 발화되는 새로운 문장들의 추론적 역할을 그 때마다 새롭게 배워야만 한다는 결론이 되고 그것은 포더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언어의 조합적인 성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러나 브랜덤에게 있어서, 문장의 하부구조들을 분석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필요성이 있다.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특정한 문장이 세계의 대상에 관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문장 속에서 그렇게 대상을 가리키는 역할을 수행할 문법적인 범주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믿음이나 주장이 무언가에 관한(of, or about) 것이 된다는 것 혹은 대상에 적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와 ‘지칭하다’에 관한 논의는 둘 다 개념적인 내용에 관한 추론주의적인 설명이 아문장적인 표현들, 전형적으로 단칭 명사와 술어들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sup>278)</sup>

그러나 브랜덤의 추론주의가 언어의 조합적 성질을 설명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서로 연결된 중요한 난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칸트주의의 노선을 따라서 문장적인 형식을 갖춘 판단을 의미의 기본 단위로 받아들이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하향식 설명 전략은 언어-세계 관계를 기본 값으로 하여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표상주의 의

---

277) AR, pp. 126-127.

278) MIE, p. 337.

미 이론의 상향식 설명 전략에 비해 아(亞)문장적인 단위들에 대한 의미론적인 위상을 정립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장은 그 자체로 이유를 제공하고 추궁하는 추론의 맥락 속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아문장적인 단위들인 단칭명사나 술어는 그 자체로 추론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하부단위들을 추론 외적인 요소들에 호소함 없이 과연 추론의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인 난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2-2. 브랜덤의 설명 전략

브랜덤이 문장을 구성하는 아문장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채택하는 근본적인 개념은 프레게가 도입한 방법인 대체(substitution)라는 개념이다. 브랜덤은 프레게의 대체의 방법을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분해 단계와 조합 단계라는 두 단계를 거쳐서 문장의 구성 요소들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그 두 단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sup>279)</sup>

- ① 언어공동체가 몇몇 문장들의 올바른 사용을 결정한다.
- ② 그러한 문장들을 지배하는 사용의 적절성은 그것들을 해체하여 얻게 되는 구성 요소들의 올바른 사용을 결정한다.
- ③ 그러한 구성 요소들의 올바른 사용은 그것들을 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문장들의 올바른 사용을 결정한다.

해체의 단계를 통해서 우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구문론적인 측면에서 아문장적 범주에 해당하는 문장 구성 요소들이다. 아문장적인 구성 요소들의 구문론적인 범주는 브랜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sup>280)</sup>

두 아문장적 표현들은 동일한 구문론적 범주에 속한다, iff 그 중 하나가 들어 있는 적형식 문장을 나머지 하나로 대체했을 때 적형식 문장이 아닌 것으로 바뀌지

279) AR, pp. 127-128.

280) AR p. 130.

않는다.

이런 정의에 따라서 브랜덤은 언어적 표현들의 구문론적인 범주를 4가지로 구분하고, 그것들을 각각 대체문장(substituted-in), 대체어(substituted-for), 대체틀(substituted-frame), 그리고 대체적 이형(異形, substitutional-variant-of)으로 분류한다.<sup>281)</sup> 예를 들어 다음의 두 문장을 고려해보자.

- (1) 이순신은 거북선을 만들었다.
- (2) 넬슨은 거북선을 만들었다.
- (3) 나폴레옹은 거북선을 만들었다.

(1)에 들어 있는 ‘이순신’이라는 표현을 ‘넬슨’으로 대체하여 (2)가 생성되었다면, (1) 문장이 가진 문장성이 그러한 대체에도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순신’과 ‘넬슨’은 동일한 구문론적 범주에 속하며, 브랜덤은 그 범주를 대체어로 분류하였고, (1)과 (2)처럼 대체어가 사용될 수 있는 온전한 전체 문장들을 대체문장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1)과 (2)는 서로에게 대체적 이형들이 된다. 마찬가지로 (2)와 (3), (1)과 (3)도 서로에게 대체적 이형이 되며, 결과적으로 (1), (2), (3)은 하나의 대체적 이형 집합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체적 이형 집합의 문장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체틀에 해당한다. 여기서 대체어들이 바로 전통적인 구문론적 분류에 따르면 단칭 명사들이며, 대체틀은 술어에 해당한다. 그런데 왜 술어는 대체어가 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 (4) 이순신은 한글을 만들었다.

여기서 (1)과 (4)를 서로에게 대체적 이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거북선을 만들었다’라는 부분과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바꿔 썼을 때에도 (1)로부터 만들어진 (4)는 문장성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브랜덤의 답변은 원칙적으로

---

281) AR, pp. 130-131, 참조.

술어는 대체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1)에서 (4)로 바뀐 것은 대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체들의 교체(replacement)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sup>282)</sup> 그러나 오로지 구문론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러한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문장들 간의 문장성이 보존되는 방식인 한, 대체와 교체를 구분하는 것은 임의적인 분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러한 구분이 진정한 의의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대체어와 대체들이 수행하는 각기 다른 대체 추론적 기능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제 의미론적인 차원을 검토해보자.

(5) 충무공은 거북선을 만들었다.

(5)는 (1)에서 이순신을 충무공으로 대체하여 생성한 대체적 이형이고, (1)을 전제로 하여 (5)를 추론할 때, 실제로 전제에 대한 찬동이 결론에서 보존된다는 측면에서 그 추론이 올바른 것이라고 간주하려면, ‘이순신’과 ‘충무공’이라는 두 단칭 명사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그 두 단칭 명사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바로 동일성 문장이 된다. 즉,

(6) 이순신은 충무공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순신’에 대한 실질적으로 올바른 대체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동일성 문장들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

(7)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조선의 수군통제사이다.

(8)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조선의 장수이다.

(9) 이순신은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조선의 장수이다.

.....

브랜덤은 이렇게 ‘이순신’에 대한 실질적으로 올바른 대체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명

---

282) AR, p. 132. 참조.

시적으로 진술된 동일성 관계의 문장 집합을 ‘단순 실질 대체-추론적 찬동들(Simple Material Substitution-Inferential Commitments, SMSICs)’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브랜덤은 특정한 단칭 명사의 올바른 대체 추론을 결정해 주는 SMSICs가 바로 그 단칭 명사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추론의 실질적 적절성의 결정자인) 각 표현의 내용은 그 표현을 다른 표현들과 연결시켜주는 SMSICs의 집합에 의해 드러난다.<sup>283)</sup>

지금까지는 대체어를 통한 대체 추론의 경우만을 살펴보았지만, 실질적인 대체추론은 대체들을 교체함으로써도 수행될 수 있다.

(10) 이순신은 장군이다.

(11) 이순신은 군인이다.

이 경우는 ‘-장군이다’라는 대체를, 즉 술어가 ‘-군인이다’라는 술어로 교체된 경우이다. 이런 식의 교체를 통한 대체추론의 실질적 유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두 술어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보편 양화 문장에 대한 찬동이다.

(12) 모든 장군은 군인이다.

마찬가지로 ‘-장군이다’에 대한 실질적으로 올바른 대체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명시적으로 진술된 보편 양화문장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13) 모든 장군은 부하를 거느린다.

(14) 모든 장군은 무장을 한다.

.....

---

283) AR, p. 138.

이러한 보편 양화 문장들의 집합을 마찬가지로 ‘-장군이다’라는 표현의 대체추론을 가능하게 허용하는 SMSICs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단칭명사와 술어의 SMSICs를 구성하는 진술의 형태가 전자의 경우 동일성 문장이고 후자의 경우는 보편 양화문장이라는 점이 바로 주목해야 할 만한 차이점이다. 그런 차이점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관련된 대체어들, 즉 단칭 명사들을 대체하는 대체추론은 대칭적인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관련된 대체들, 즉 술어를 교체하는 대체추론은 비대칭적이라는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위의 사례들에서, (1)에서 (5)로의 추론에 실질적으로 찬동하는 사람이라면, (5)에서 (1)로의 추론 또한 찬동하게 된다. 즉, 단칭 명사들에 관련된 대체추론의 경우 양방향으로의 추론이 찬동되는 것이다. 그러나 술어에 관련된 대체추론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문장 (10)과 (11)을 고려해 보자. (10)을 전제로 했을 때, (11)을 추론할 수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1)이 (10)보다 더 약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즉, 술어의 교체에 관련된 대체추론은 단칭 명사의 경우와 달리 대체로 일방적인 추론만이 실질적으로 찬동된다. 브랜덤은 이러한 차이점이 단칭 명사와 술어의 기능적인 차이점을 드러내며, 그 결과 단칭 명사만의 독자적인 기능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독자적인 기능이 바로 대상의 지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반적인 추론주의적인 설명 전략 하에서 단칭 명사와 술어 간의 기능적 차이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SMSICs에 관련된 두 단칭 명사 간의 대체추론은 양방향적으로 찬동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두 단칭 명사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공(共)외연적인 표현들임을 전제하는 표상주의적인 설명 전략을 따르지 않고, 거꾸로 추론주의적인 설명 전략에 입각하여 결과적으로 그 두 단칭 명사가 공외연적인 것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가? 브랜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브랜덤은 대체어와 부정문 혹은 조건문을 가진 언어라면 대칭적인 그리고 오로지 대칭적인 대체 규칙들이 대체어들을 지배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한다. 즉, 비대칭적 대체규칙과 부정문 혹은 조건문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정문과 조건문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표현적으로 풍부한 언어에 만일 대체어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대체어들은 반드시 대칭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sup>284)</sup>

브랜덤은 위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추론적 대립관계(inferential polarity)와 표현의 일차 발생 맥락(primary context)의 개념을 동원한다. 브랜덤의 증명을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자.

### 2-3. 증명

대체어와 관련된 대체추론이 대칭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브랜덤의 전제는 우리의 언어 사용에서 이른바 일차 문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대체어인 ‘이순신’은 일차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문장은 일차 문맥적으로 발화되지 않았다.

(15)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순신’과 관련된 SMSISc가 다음과 같은 대체추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16)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조선의 장수가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구문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표현이 문장 내에서 일차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어떤 문장으로부터의 그리고 그 문장으로부터의 대체 추론들은 그 표현을 다른 표현과 연결시키는 SMSICs의 집합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그러한 추론의 적절성이 결정되어야) 한다.<sup>284)</sup>

브랜덤의 증명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일종의 귀류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i) 단칭

---

284) P. J. Graham, ‘Brandom on Singular Terms’ in *Philosophical Studies* 93 (1999), p. 259

285) AR, p. 137.

명사에 관련된 비대칭적 대체추론이 가능하다. (ii) 그런 상황에서 해당 언어가 부정문과 조건문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표현력이 풍부하다. 그렇다면, (iii) 일차 발생 문맥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iv) 일차 발생 문맥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차 발생 문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경우의 대체추론은 불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i) 혹은 (ii) 둘 중의 하나는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암묵적인 것을 명시화하는데 있어서 표현의 도구로서 조건문(그리고 부정문)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i)은 거부되어야 한다. 이제 문제는 (i)과 (ii)로부터 (iii)이 귀결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진 셈이다.<sup>286)</sup>

이를 증명하기 위해 브랜덤은 추론적 보완 문맥(inferentially complementary context)의 개념을 결정적으로 활용한다. 추론적 보완 문맥은 기존의 추론 관계에 부정이나 조건 관계를 보완함으로써 해당 문맥의 추론적 대립 관계를 역전시키는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다음 일차 문맥의 두 문장을 고려해보자.

(10) 이순신은 장군이다.

(11) 이순신은 군인이다.

이 경우 (10)에서 (11)을 실질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반면 그 역의 추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0)이 (11)보다 추론적으로 더 강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정을 보완해 보자.

(17) 이순신은 장군이 아니다.

(18) 이순신은 군인이 아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17)에서 (18)을 추론할 수는 없지만, 그 역의 추론은 성립된다. 부정의 보완으로 인해서 추론적 강도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차 문맥에 부정이 보완되면 일차 문맥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추론적인 대립 관계가 뒤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대체어를 지배하는 대체추론의 법칙이

---

286) AR, pp. 143-146, 그리고 Graham, 앞의 논문, pp. 252-255, 참조.

비대칭적이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그 문맥에 부정을 보완해 보자. 대체어의 대체추론 규칙이 비대칭적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인정하는 것이다.

- (1) 이순신은 거북선을 만들었다.
- (5) 충무공은 거북선을 만들었다.

즉, 이 경우 가정에 의하여 대체어를 지배하는 대체추론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1)에서 (5)로의 추론은 좋은 추론이지만, (5)에서 (1)의 추론은 나쁜 추론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정을 보완해 보자.

- (19) 이순신은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다.
- (20) 충무공은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다.

이 경우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추론적 대립관계의 역전으로 인해서, (19)에서 (20)의 추론은 나쁜 추론인 반면에, 그 역의 추론은 좋은 추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애초의 가정에 따라 ‘이순신’이 ‘충무공’보다 추론적으로 더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20)에서 (19)로의 대체추론은 허용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정의 보완과 기존의 추론 규칙에 의해서 좋은 추론이 되어야 할 추론이 대체어의 비대칭적인 대체추론 규칙에 의해서 나쁜 추론이 되어 버린 셈이다. 이것은 일차 문맥으로 여겨진 (1)의 문장을 부정을 보완한 추론적 보완 규칙에 의해서 더 이상 일차 문맥이 아닌 문맥으로 바꾸고만 결과를 빚는다. 따라서 귀류법적인 결론에 의해서 만일 우리가 (ii)를 거부할 수 없다면, (i)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브랜덤에 따르면, 대칭적 대체추론이 허용되는 대체어 즉 단칭 명사가 존재해야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왜 단칭 명사가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왜 대상들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 두 질문에 답이 다음과 같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엉뚱한 일인가. 왜냐하면, **조건문(또는 부정문)**이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sup>287)</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문장 단위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문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아문장적 단위들을 구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브랜덤의 주장에 따르면, 흔히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단칭명사는 언어-세계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언어 행위의 추론적인 맥락 속에서 그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 따른 결과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 2-4. 포더와 르포어의 비판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 대한 포더의 비판은 가혹하다. 그는 특히 의미의 조합성과 관련하여 추론주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 (i) 의미는 조합적이다.
  - (ii) 그러나 추론적 역할은 조합적이지 않다.
- 따라서 의미는 추론적 역할이 될 수 없다.<sup>287)</sup>

조합성의 정의는 앞의 2-1에서 (C)로 제시되었고, 포더는 (C)의 의미에서의 조합성은 협상의 될 수 없는 절대적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그 점은 브랜덤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문제는 (ii)가 정말로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 여부가 될 것이다. 물론 브랜덤은 (ii)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맥락에서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의 재조합을 통한 새로운 문장의 생성이 납득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러나 포더는 이러한 브랜덤의 논증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의 비판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로 브랜덤이 보여준 것은 기껏해야 소위 해체의 단계일 뿐이며, 재조합의 단계는 전혀 논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브랜덤은 “언어 공동체가 몇몇 문장의 올바른 사용을 결정하고, 그럼으로써 그런 문장들이 동반하는 단어들의 올바른 사용을 결정하며, 그럼으로써 그런 단어들을 이용하여 표현될 수 있는 나머지 문장들의 올바

287) MIE, p. 404.

288) Fodor & LePore, ‘Why meaning (probably) isn't conceptual role’, p. 16.

른 사용을 결정한다.”<sup>289)</sup>고 주장했지만, 포더에 따르면 그는 오로지 이 문제의 한 측면만을 논의한 셈이며, 그러한 포더의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포더는 브랜덤이 재조합의 측면을 실질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일’<sup>290)</sup>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포더의 입장에서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 입각할 때, 실제로 문장의 내용이 그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구문론적이고 의미론적인 내용에 의존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추론적 역할이 조합적으로 구성될 수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입증하고자 한다.<sup>291)</sup>

(21) x는 갈색 소이다. → x는 동물이다.

(22) x는 갈색 소이다. → x는 무시무시하다.

포더에 따르면, 사람에 따라서는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22)의 추론도 승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1)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갈색 소’라는 단어의 올바른 사용이 일반적으로 ‘x는 무시무시하다’라는 문장의 의미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1)의 추론과 (22)의 추론을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을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제공할 수 있는가? 포더는 만약 그런 기준을 제공할 수 없다면, ‘갈색 소’를 포함하는 문장들의 올바른 사용이 ‘갈색 소’라는 단어의 올바른 사용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더 나아가, 문장들의 추론적 관계들로부터 문장의 구성 요소들인 단칭 명사와 술어를 구별하고, 단칭 명사와 술어의 기능을 확인하는 브랜덤의 해체의 단계조차도 전혀 성공적이지 못하다. 해체의 단계를 통해 단칭 명사를 준별하는 시도에 대한 포더의 비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체추론을 통해 문장의 구성요소를 준별하기 위해서는 이미 문장의 구성요소에 관한 구문론적 범주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3) 이순신은 거북선을 검게 칠했다.

(24) 이순신은 거북선을 어둡게 칠했다.

---

289) AR, p. 128.

290) Fodor & Lepore, ‘Brandom's Burden: Compositionality and Inferentialism’, p. 144.

291) Fodor & Lepore, ‘Why meaning (probably) isn't conceptual role’ pp. 16-18.

우리는 (23)에서 (24)를 실질적으로 대체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대체된 단어들은 문법적인 범주 차원에서 볼 때 부사에 속하며 당연히 단칭명사가 아니다. 포더에 따르면, 이러한 대체 추론이 단칭 명사에 대한 대체 추론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그 단어들이 ‘단칭 명사’라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길 뿐이다.

오히려, 단칭 명사의 범주는 문장 안에서 ‘단칭 명사’를 대체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순환적이기 때문에 브랜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문장’과 ‘적형식성 보존적 대체’만을 원초적인 것으로 하는 이론 안에 ‘단칭 명사’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sup>292)</sup>

브랜덤의 ‘해체’ 과정이 지닌 또 다른 문제점은 대칭적인 대체추론의 가능성이 단칭 명사를 구별해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더가 제시하는 반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sup>293)</sup>

(25) 이순신은 자신의 가슴에 화살을 맞았다.

(26) 이순신은 자신의 상체에 화살을 맞았다.

이 경우 (25)에서 (26)의 대체추론은 좋은 추론이지만, 그 역은 좋지 않은 추론이 된다. 그렇지만 ‘자신의 가슴’과 ‘자신의 상체’는 여전히 단칭 명사의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이 아닌가? 따라서 포더의 결론은 대체추론의 대칭적 허용이 단칭 명사라는 문법적 범주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이러한 비판들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간단히 살펴보자.

## 2-5. 문제의 해결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다루어보자.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C)의 정의에 따르는 의미

---

292) *ibid.* p. 145.

293) *ibid.* p. 148.

조합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포더는 브랜덤이 자신이 주장한 2단계 설명 전략의 후반부인 문장 구성 요소들의 재조합 과정에서 실제로 문장의 의미가 그 부분들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 따르면 (21)과 (22)라는 직관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가지 유형의 추론, 즉 의미 구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추론과 그렇지 않은 추론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이병덕은 셀라스가 제안한 반(反)사실적 강건성을 기준으로 의미 구성적인 실질적 추론과 그렇지 않은 실질적 추론을 구분하면 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sup>294)</sup> 즉, 현실 세계의 상황과 근접한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p로부터 q를 추론할 수 있다면, 그러한 추론은 의미 구성적인 추론이며, 그렇지 않은 추론은 의미 구성적인 추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브랜덤의 입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실질적 추론이 의미구성적인 추론이 아니라면, 그러한 추론의 구체적인 성격은 무엇이며, 그러한 추론이 이유를 제공하고 추궁하는 게임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이 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추론과 의미를 구성하는 추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러한 구분이 소위 의미 전체론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둘째, 브랜덤에게 있어서 의미론적인 내용은 화용론적인 유의미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즉, 언어 게임의 참가자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보증되고 귀속되는 의무적 상태와 태도를 기록한 점수가 그러한 의사소통에서 발화된 언어적 실행의 의미론적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징적인 추론들의 특별한 부분집합(이를테면 반사실적으로 강건한 추론들)을 숙달하는 것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충분조건이 되지 못할 것이다.’<sup>295)</sup>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바로 그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추론이라면 무엇이든 그 단계의 점수를 변동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브랜덤에게 의미론적인 내용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언어 게임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결정되는 현재 진행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294) 이병덕, ‘추론주의는 포도와 르포오의 비판들을 피할 수 있는가?’ 『철학적 분석』 (2005 겨울) pp. 49-57.

295) MIE, p. 635.

다. 따라서 반사실적 강건성을 갖는 의미 구성적인 추론들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브랜덤에 따르면, “개념 구성적 추론들을 구별하는 특권들을 어떻게 해석하던지 간에 이 특권적 추론들의 승인은 여전히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sup>296)</sup>

의미 구성적인 별도의 추론들을 분류하지 않는다면, 포더가 요구하는 개념적 역할의 조합성 문제에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아마도 답은 포더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포더가 생각하는 언어의 조합성 개념은 너무 강한 주장을 담고 있는 것 같다. 문장의 의미가 그것의 구성 요소들에 의미에 의존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포더는 체계적인(실제로는 기계적인) 의존성 내지 의미를 의존하기 위한 필요충분한 조건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개념이 확정적인 내용을 갖거나 확정적인 적용 조건을 가져야만 실제로 언어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토대주의적인 사고의 발로이다. 아마도 언어 조합성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 수준이면 충분히 해소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언어 게임의 점수기록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새로운 문장으로 내세울 때, 실제로 발화되는 문장들의 하부 요소들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대체추론적 찬동들을 활용하게 된다고 말이다. (C)를 이러한 느슨한(기계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수준으로 해석한다면,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조합성의 문제로 인해 거부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포더가 제기한 나머지 두 개의 비판을 고려해 보자. 브랜덤의 대체추론을 통해서 구분될 수 있는 구문론적인 범주가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즉, 대칭적 대체추론을 허용하는 범주와 비대칭적인 대체추론을 허용하는 범주가 그것이다. 따라서 대칭적 대체추론을 허용하는 모든 어휘들이 동일한 구문론적 범주에 속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브랜덤이 주장이 찾아내야 할 단칭명사의 범주를 미리 가정하는 선결문제의 오류에 빠졌다는 포더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문법적 범주에 대한 분류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더욱 정교한 논증이 제기되기 전까지라도, 최소한 ‘대칭적’ 대체추론을 허용하는 대체어 안에 대상을 지시하는 단칭 명사가 포함된다고 말한다 해도 그것이 추론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약점이 되지

---

296) *ibid.*

는 않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25)와 (26)이 단칭 명사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추론이면서도 비대칭적인 추론 관계를 드러낸다는 비판을 검토해보자. 이 문제의 요점은 (25)에서 (26)으로의 추론이 동일성 문장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SMSICs가 아니라 보편 양화문장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SMSICs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말 표현으로는 다소 어색하지만,)

(27) 만일 어떤 것이 가슴이라면, 그것은 상체이다.

따라서 문제는 구문론적인 기능상 문장 내에서 단칭 명사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 단어가 실제로는 대체를 즉 술어와 동일한 방식의 대체추론을 허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칭 명사를 또 다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좀 더 세밀한 의미 이론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더욱 정교한 논증이 제기되기 전까지라도, 최소한 외형상 단칭 명사로 보이는 단어들 중에는 실제로 대칭적 대체추론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추론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약점이 되지 않는 않을 것 같다.

### 3. 추론주의, 언어와 세계의 문제

근본적으로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간단히 말해서 언어-세계의 관계가 아니라 언어-언어 혹은 개념-개념,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규범-규범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의미의 문제에 접근해 나가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언어가 세계에 있는 어떤 항목들을 가리키거나 세계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상황 혹은 사태를 기술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의미론적 사실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와 세계와의 관계가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정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브랜덤에 따르면, 언어와 세계는 전혀 이질적인 두 영역, 즉 하나는 규범적 법칙성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비규범적인

자연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근본 개념들인 ‘진리’와 ‘지칭’ 등의 개념들은 추론주의의 기본 구도 하에서는 여타의 논리적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설명적인 역할이 아니라 암묵적인 것을 명시화해주는 표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세계를 상실’하는 비직관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게끔, 그리고 ‘진리’나 ‘지칭’ 같은 표상주의적인 어휘들에 근본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념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1. 의미론적 축소주의

‘참이다(true)’라는 표현은 흔히 문장이 갖는 어떤 속성을 표현하는 술어로, 그리고 ‘지칭하다(refer)’는 단칭 명사와 같은 언어적 표현과 세계의 대상 사이의 지칭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 술어로 흔히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브랜덤에 따르면,

철학자들은 ‘참이다’와 ‘지칭하다’를 사용한 일상의 담화를 술어와 관계적 표현에 유비적인 잘못된 범주에 근거지우는 잘못된 해석을 해왔다. (그 실수는 표현적인 형식을 놓고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잘못된 유비에 근거하여 그들은 진리의 속성과 지칭의 관계를 명백히 술어적이고 관계적인 표현들이라는 의미론적 상관물로 실체화해버렸다.<sup>297)</sup>

‘참이다’, ‘지칭하다’ 등의 전형적인 의미론적 어휘들의 역할에 대한 브랜덤의 해석은 그런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이미 3장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런 어휘들은 결코 의미론적으로 원초적인 어휘들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 존재자이며,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경우의 믿음의 명제적 내용은 그것이 참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브랜덤의 입장에 따르면, 진리를 추구하고 얘기하는 존재로서의 우리에게 대한 이해는 이유를 만들고 받아들이는 존재로서의 우리에게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명제적 내용성

---

297) MIE, p. 323.

은 궁극적으로 사회적이고 추론적으로 명료화된 의무적 점수기록의 실행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 조건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명제적 내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사회적으로 명료화된 추론적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98)</sup>

어떤 주장을 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의 규범적인 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즉 그 주장을 승인하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찬동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인 태도는 객관적인 속성을 귀속시키는 가능성이 그 전제로 삼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 설명되게 되어 있는 아니다.……똑같은 것이 지칭이라는 예단된 단어-세계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될 수 있을 것이다.<sup>299)</sup>

이런 관점을 기반으로 브랜덤이 분석한 ‘참이다’와 ‘지칭하다’라는 어휘의 궁극적인 성격은 흔히 생각하듯 언어-세계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언어-언어 관계에 개입하는 용어가 된다. 진리 술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리 어구의 사용을 힘의 잉여성(redundancy of force)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참으로 받아들임’을 하나의 공언적 찬동을 주장하거나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진리 잉여론의 입장을 수용한다.<sup>300)</sup> 그러나 브랜덤은 일상적인 진리 술어의 다양한 용법을 고려할 때, 힘의 잉여성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용의 잉여성(redundancy of content)을 드러낼 수 있는 좀 더 보편적인 설명 방식으로 글로버, 벨납, 캠프 등이 주장하는 대문장적 진리론(Prosential Theory of Truth)에 호소함으로써<sup>301)</sup>, 궁극적으로는 진리 술어의 기능을 ‘대문장(prosentence)’이라는 대용어를 형성하는 이른바 대문장 형성자(prosentence-forming operator)로 간주하고자 한다.<sup>302)</sup> 따라서 브랜덤에게 있어서, 일

298) MIE, pp. 279-280, 참조.

299) MIE, p. 324.

300) ‘p는 참이다’라는 문장이 복합 문장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명시적인 수행문인 ‘나는 (이에 의하여) p를 주장한다.’라는 문장의 내용이 동치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MIE, pp. 287-291, 듀이의 주장가능성주의(assertibilism)에 대한 브랜덤의 분석 참조.)

301) 대문장적 진리 이론은, 일반적으로 대명사가 선행하는 단칭 명사에 대한 대용어구로 사용되는 것에 착안하여, ‘-참이다.’라는 표현을 대용어적으로 선행하는 문장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대용형(proform)인 ‘대문장’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접미사와 같은 문법적 장치로 이해하고자 하는 내용 잉여론적인 진리 축소론의 한 세련된 형태이다. (MIE, pp. 301-303, 참조)

302) MIE, pp. 303-305, 참조.

반적인 문장을 형성하는 여타의 술어와는 달리 외형상 그런 술어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진리 술어 즉, ‘-참이다’라는 표현은 대문장을 형성하는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언어 관계에 관련된 표현이 되는 것이다.

브랜덤은 ‘지칭하다’라는 표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지칭’은 흔히 두 가지의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단어-세계, 즉 언어 외적인 지칭으로서 ‘노랑해전에 전사한 조선의 장군’이라는 구절이 특정한 현실적 존재를 지칭한다고 말할 때 요청되는 유형의 지칭 개념이다. 다른 하나는 단어-단어, 즉 언어 내적인 대용어적 지칭으로서 ‘이순신은 조선을 구했고,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였다.’라는 문장에서 ‘그’라는 대명사의 사용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의 지칭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지칭 개념은 전자의 지칭 개념에 종속적인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브랜덤은 그 관계를 전복시킨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선, 대용어적 메커니즘은 지시적 메커니즘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며, 지시적 메커니즘에 의해 전제되는 것이다. 대용어적으로 기능하는 표현들을 없이 지시대명사와 같은 지시사들만을 갖고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없지만, 그 역은 가능하다. 또한 가지는, 우리의 사유와 담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는지의 차이를 포착하고 표현하기 위해 의존하는 명시적으로 표상적인 어구들은 모두 대용어적 메커니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sup>303)</sup>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브랜덤은 ‘지칭하다’를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관계 술어로 해석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단어-세계’의 관계로 보지도 않는다. 그의 입장은 쉘라스의 해석에 따라서, ‘지칭하다’를 ‘복합 대용어적 대명사 형성자(complex anaphoric pronoun-forming operator)’로 이해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그 기본적인 착상을 살펴보도록 하자.<sup>304)</sup>

(28) **명량해전을 지휘한 조선의 장수**는 임진왜란의 영웅이다. **그 사람**은 여러 번의 해전에서 승리하였으나, 한 때 모함을 받아 투옥되기도 하였다. 결국 **그**는 최후의 해전인

---

303) MIE, p. 306.

304) MIE, pp. 307-322, 참조.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전 백성은 **그 장수**를 존경하였다.

여기서, ‘명량해전을 지휘한 조선의 장수’, ‘그 사람’, ‘그’, ‘그 장수’는 후자의 표현들이 제일 앞의 단칭 명사에 대용어적인 지칭 혹은 의존성 관계에 해당하는 연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들 표현들 간의 관계는 명백히 단어-단어의 관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가장 일반화시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칭하다’를 활용하여 소위 ‘간접적 한정 기술구(indirect definite description)’를 만드는 것이다.

(29) **명량해전을 지휘한 조선의 장수**는 임진왜란의 영웅이다. **명량해전을 지휘한 조선의 장수라고 지칭된 그 사람**은 여러 번의 해전에서 승리하였으나, 한 때 모함을 받아 투옥되기도 하였다. 결국 **명량해전을 지휘한 조선의 장수로 지칭된 그 사람**은 최후의 해전인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전 백성은 **명량해전을 지휘한 조선의 장수로 지칭된 그 사람**을 존경하였다.

위의 (29)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모든 형태의 대용어구는 복합 대용어적 대명사 형성자인 ‘지칭하다’라는 표현을 이용하여 만든 ‘간접적 한정 기술구’의 형태로 환원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한정 기술구는 대용어적으로 선행하는 항을 구체적으로 상술하는 기술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용어적 연쇄의 공(共)지칭성을 확고히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을 갖는다.<sup>305)</sup> 이러한 분석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브랜덤의 언급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칭하다’를 대명사 형성자로 이해하는 이러한 설명은 ‘-는 참이다’를 대문장-형성

---

305) 대용어적 연쇄에 구성 인자들이 공(共)지칭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결국 그 연쇄의 첫 번째 구성 인자가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지칭하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이고, 브랜덤의 분석에 따르면, 그 표현은 단어-단어의 관계를 표현하는 일종의 대명사 형성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연쇄의 최초의 단칭 명사는 어떻게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가? 이 결정적인 문제는 위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일단은 다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론에 따르면, 단칭 명사는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조건문 등을 도입하여 대칭적인 대체 추론을 가능케 하는 우리 언어의 표현적 풍부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로 이해하는 설명과 명백히 대응한다. 각 이론은 전통적인 일군의 의미론적 어휘들의 용법을 대응어적 대형용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지칭하다’로부터 형성된 간접적 기술구들은 (우리의 대응어적 선행자들을 잡아냄으로써) 표현된 항을 언급(mention)하고 동시에 그 표현을 사용(use)한다.……이런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지칭하다’는 ‘참이다’가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대응어적 탈인용 형성자이다.<sup>306)</sup>

### 3-2. 반(反)실재론의 위협

브랜덤에 따르면, ‘참이다’와 ‘지칭하다’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의미론적 어휘들의 역할에 관한 이러한 축소론적이고 대응어적인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귀결을 갖는다.<sup>307)</sup> 첫째, 진리 속성이나 지칭 관계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부인된다. 둘째, 전통적인 의미론적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된 주장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의미론적인 사실**들을 진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생각이 부인된다. 셋째, 서술문에 의해 표현된 명제적 내용과 같은 유형을 설명함에 있어서 진리 조건의 개념에 호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부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귀결들에서 ‘세계의 상실’로 인한 관념론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날 수 있다.<sup>308)</sup> 존 씨얼(John Searle)에 따르면, 철학적인 주요한 쟁점에도 소위 기본 값에 해당하는 입장이 존재한다.<sup>309)</sup> 그가 언급한 기본 값의 입장 중에는 ‘(a) 우리, 즉 우리의 경험, 생각, 언어와 독립해서 존재하는 실재 세계가 있다’는 것과 ‘(b) 단어는 그 의미로서 세계에 실재하는 대상들을 지칭하고 대상들에 관해 말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c) 진술의 참, 거짓은 일반적으로 사물이 어떠한가, 즉, 세계의 사실들이 진술에 대응하는지 여부에 의존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기본 값의 입장을 모두 옹호하는 철학적 견해를 외재 실재론(external realism), 혹은 그냥 실재론이라고 부른다.

306) MIE, pp. 322-323.

307) MIE, pp. 325-326.

308) MIE, pp. 330-333, 참조.

309) 존 씨얼, 심철호 역, 『정신, 언어, 세계』, p. 22.

실재론에 따르면, 우리는 생각과 말과 경험이 실제 세계와 직접 관련된다고 가정한다. 즉, 우리는 나무나 산과 같은 대상들을 볼 때는 으레 그것들을 지각한다고 가정하고, 말할 때는 으레 우리의 언어와 독립해서 존재하는 대상들을 지시하는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며, 생각할 때는 주로 실제 사물들에 관해 생각한다고 가정한다. 더욱이 앞서 말한 대로 그런 대상들에 관한 진술은 그것이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참이나 거짓이 된다.……통상 진리 대응설이나 사유 지시론, 언어 지시론을 거부하는 사상가들은 외재 실재론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본다.<sup>310)</sup>

브랜덤은 설이 언급한 소위 기본 값에 해당하는 생각들 중에서 분명히 (b)와 (c)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b)와 (c)의 거부는 (a)에 대한 거부를 함축하는 것일까? 그럼으로써 결국 ‘세계 상실’의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브랜덤의 답변은 단호히 그러한 함축을 부인하는 것이다. 브랜덤에 따르면, “결코 상실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개념 사용적 실행이 경험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제약받는 방식에 대한 인식이다.”<sup>311)</sup> 그는 어떤 주장이 참인지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며, 다만 어떤 소음과 표시가 참된 주장을 표현하는지가 우리에게 달린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언어는 세계 속에서 차별화되고 거의 독립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지만, 브랜덤의 고려하고 있는 개념 사용적인 실행이 나머지 세계로부터 구별되어 존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비언어적 사실들은 우리의 개념 사용적인 실행들이 전혀 다르다고 할지라도(혹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더라도) 대체로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주장들이 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들에 관해 주장하고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개념 사용적인 실행들은 만일 비언어적인 사실들이 다르다면 있는 그대로의 것일 수 없다.<sup>312)</sup>

브랜덤이 택하는 설명 전략은, 세계와의 접촉과 실재론의 유지가 ‘참이다’와 ‘지칭하

---

310) 씨얼, *op. cit.* p. 28.

311) MIE, p. 331.

312) *ibid.*

다'와 같은 어휘들을 근본적인 의미론적인 어휘들로 채택하는 데에 달려 있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창조한 규범성의 세계와 물리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세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브랜덤에 따르면, 개념 사용적인 실행들은 본질적으로 지각과 행위 속에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들에 가고, 오는 영향을 동반한다. 그러한 실행들에 암묵적으로 내재해 있는 개념적인 적절성은 경험적인 차원과 실천적인 차원을 둘 다 담고 있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브랜덤은 셀라스의 주장을 따라서 광의의 개념으로 추론주의를 고려하고 있다. 그것은 개념 적용의 비(非)추론적인 상황과 귀결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추론 관계의 범위를 언어-언어 간에 뿐만이 아니라, 지각이라는 비언어적인 상황에 언어가 적용되는 언어 도입에 수반되는 추론, 그리고 언어의 적용으로 인한 비언어적인 행위로의 귀결에 수반되는 추론까지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우리의 모든 개념들은 부분적으로는 그것들이 비추론적인 적용의 상황과 귀결을 갖는 다른 것들과 맺고 있는 추론적인 고리들로 인해 바로 그렇게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념의 올바른 사용은 그것의 적용을 통해서 반응적으로 야기하거나 혹은 야기된 사실과 대상들에 대한 고려들로부터 동떨어진 채로 상술될 수 없다. 지각과 행위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와 귀속에 의해 드러나는 권위와 책임의 규범적 구조는 인과적으로 조건 지워진다.<sup>313)</sup>

한 공동체가 의존하고 있는 실행들을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지각과 행위를 통해서, 사실이 무엇이고 그러한 사실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대상들이 무엇인가에 의존한다.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은 그런 실행들 내부로부터의 직접적인 방식으로 추론적, 믿음적, 그리고 실천적 찬동의 적절성을 제약한다.<sup>314)</sup>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실재론 논쟁은 결국 '광의의 추론주의'라는 생각을 어떻게 적절하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지각

---

313) *ibid.*

314) MIE, p. 332.

활동은 우리와 세계를 인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고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규범적 영역과 비규범적인 자연의 영역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우리의 실천적인 행위에도 대칭적인 동일 구조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를 때, 그러한 연결이 추론주의의 맥락 안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결코 어떤 형태로든 개념의 영역을 자연의 영역으로 환원시키는 결과나 전망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 개념 적용적인 실행으로서 감각 지각이 어떻게 실재론적 강건성과 광의의 추론주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개념 적용의 귀결적 상황에 해당하는 행위(action)의 문제는 브랜덤이 밝히고 있듯이 지각의 경우와 동일 구조의 설명이 가능하므로 지금의 논의에서는 생략한다.<sup>315)</sup>)

### 3-3. 지각(perception)과 추론

브랜덤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와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브랜덤 자신이 인정했듯이, 우리의 개념 사용적인 실행들이 세계의 사실들로부터 인과적으로 적절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의 변화에 공변적으로 반응하는 믿음 생성의 메커니즘이 산출해낸 믿음들을 정당한 참된 믿음으로 간주하는 소위 지식에 관한 ‘신빙성주의 이론’은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신빙성주의는 지식, 그리고 정당화된 믿음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다.<sup>316)</sup>

(R) 믿음이 정당화되다, iff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을 높은 비율로 산출하는 신빙성 있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빙성주의는 정당화된 믿음의 소유자가 그 믿음이 신

315) “기본 착상은 행위에 있어서 개념 사용적인 이탈적 전이들과 지각에 있어서 개념 사용적인 도입적 전이들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들을 활용함으로써, 이성적인 의지가 붉은 사물을 인지하는 우리의 능력에 비해 철학적으로 더 신비로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지 보여주자는 것이다.” (AR, p. 79.)

316) A. Goldman, ‘Reliabilism’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8, pp. 204-209, 참조.

빙성 있게 산출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빙성에 대한 지식은 믿음이 정당화되었음을 알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그 믿음은 행위자가 그것이 정당화되었음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신빙성주의 주장하는 중요한 통찰이다. 앨빈 콜드만에 따르면, 신빙성주의의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은 회의주의와 주관주의의 위협에 맞서서 지식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빙성주의는 절대적 확실성을 산출하는 인식적 정당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그러한 정당성의 입증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인식의 주체에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지각이 바깥의 세계와의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외재론적인 입장과 더불어 ‘지식’을 주관적인 정당화의 대상이라기보다 객관적인 귀속의 대상으로 보는 신빙성주의의 입장은 실제로 브랜덤에게 일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빙성주의의 부당성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러한 부당성의 인식은 우선적으로, 브랜덤이 논의의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셀라스가 주장한 소위 ‘소여의 신화(Myth of the Given)’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다.<sup>317)</sup> 셀라스에 따르면, 우리의 감각 지각의 어떠한 자료들도 개념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으며,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신뢰할만한 경험적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을 내용으로 형성된 판단을 추론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지각자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브랜덤에 따르면, 전형적인 언어적인 개념 사용적 실행인 주장 행위는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지식 주장(knowledge claim)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것은 지각을 통해 획득한 경험적 내용을 가진 어떤 판단을 지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판단이 이유를 묻고 추궁하는 놀이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적 상태와 태도들 간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의무적 점수기록 모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회적 과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장들은 암묵적인 지식 주장이라는 기본 값의 지위와 유의미성을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양상적으로 구분되는 의무적 상태들인 찬동과 권한 그리고 두 가지의 사회적으로 구분되는 의무적 태도들인 그러한 상태들의 귀속과 보증 사이의 추론적으로 구조화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18)</sup>

317) Sellars,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 pp. 13-32, 참조.

318) MIE, p. 201.

따라서 신빙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참된 믿음을 지속적으로 산출하는 믿음 생성의 메커니즘을 소위 인식자(knower)라고 부르고 그 메커니즘이 보유한 믿음들에 지식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귀속이 개념 사용적인 찬동의 귀속과 인정이라는 의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태도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은 결국 그 메커니즘 자신 또한 그러한 점수기록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개념 사용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랜덤은 지식의 귀속을 “그것이 찬동의 귀속과 인정을 동시에 동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혼성 의무적 태도(hybrid deontic attitude)”<sup>319)</sup>라고 부른다.

결국 브랜덤에 따르면, 신빙성주의는 우리의 지각적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정당성 조건을 배제시키는 오류를 저지른 셈이다. 신빙성주의는 우리의 믿음과 세계 사이에 적절한 공변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세계와 적절한 인과적 연결고리를 맺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나, 어떤 메커니즘이 신뢰할만한 믿음을 산출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러한 믿음들을 신뢰할만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믿음에 찬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념 사용적인 실행의 맥락을 전제로 해서 평가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다른 모든 존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와 인과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계의 변화에 인과적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감각 지각은 그런 인과적 관계를 통해 획득된 경험적 내용을 우리의 판단에 재료로서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개념 사용적인 실행에 제약을 가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적 내용을 가진 판단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지식의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인과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어떤 믿음 생성 메커니즘이 세계에 대한 인과적인 반응의 결과로 신빙성 있는 믿음들을 생성하고 그에 따라서 그러한 믿음들에 지식을 귀속시킨다는 것은 광의의 추론의 맥락에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 3-4. 지각적 외재론, 의미론적 외재론, 그리고 사회적 외재론

마지막으로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 보자. 지각적 외재론(perceptual externalism)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지각 대상이 우리의 지각에 독립적인 인과적 효력

---

319) MIE, p. 202.

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의미론적 외재론(semantic externalism)이란 우리의 사유와 언어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그러한 인과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데이빗슨은 그 두 입장에 동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다음 두 견해에 모두 공감한다. 하나는, 지각적 지식은 우리가 그러한 권능을 부여하는 조건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독립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론적인 견해이고, 다른 하나인, 우리의 사유와 말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환경과의 인과적 상호작용의 역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이다.……우리의 초창기에 학습된 가장 기본적인 문장들의 내용은 우리가 그것들을 참이라고 주장하게끔 야기한 세계 속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언어와 세계 사이에 매듭이 형성되고 의미에 관한 핵심적인 제약이 고정되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나는 오랫동안 주장해왔다.<sup>320)</sup>

그러나 여기서 데이빗슨은 신빙성주의가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각적 외재론이 의미론적 외재론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는 타일러 버지(Tyler Burge)가 지각적 외재론과 구분하여 언급한 소위 사회적 외재론을 언급한다. 버지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적 외재론은 어떤 사람의 단어들의 의미와 그 사람의 생각 내용은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언어적 실행들에 의존한다고 보는 입장이다.<sup>321)</sup> 실제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외재론은 지금까지 논의한 브랜덤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빗슨은 이러한 사회적 외재론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거부한다.

우리의 직관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단어들을 가지고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에 의존하여 한 행위자의 언행과 사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강하게 선호한다고 말하는 것이 내게는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집단이 그러한 규범들을 결정한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어떤 화자를 그가 이해받기를 의도한대로 해석할 때 가장 잘 이해한다

---

320) Davidson, "Epistemology Externalized", in *Subjective, Intersubjective, Objective*, p. 200.

321) *ibid.* p. 198.

는 점이다. 이것이 그의 행위를 훨씬 더 잘 설명할 것이다. 동일한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다른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를 그가 의미하고 생각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말이다.<sup>322)</sup>

이런 관점에서 데이빗슨은 사회적 실행의 맥락을 끌어들이지 않은 채로, 지각적 외재론으로부터 곧장 의미론적 외재론으로 나아간다. 그는, 신빙성주의에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체계적으로 특정한 경험을 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생각과 발화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조건은 체계적인 오류를 배제하고 회의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체계적으로 그러한 특정한 경험을 야기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내용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323)</sup> 물론 데이빗슨이 사회적 맥락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sup>324)</sup>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회적 역할이 개입하는 시점은 그러한 지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유 대상들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도이다. 즉, 사회적인 성격을 띤 데이빗슨의 의사소통 모형인 삼각구조(triangulation)는 지각적 외재론, 더 나아가 의미론적 외재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언어 사용자들이 의사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객관성의 개념, 대상의 개념, 공유된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의 개념 등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브랜덤의 입장은, 간단히 말하자면, 지각적인 차원의 외재론은 사회적인 차원과 더불어, 그리고 반드시 그럴 경우에만, 의미론적 외재론을 정당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아마도 브랜덤의 입장이 데이빗슨의 입장보다 더 건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첫째는, 무언가가 특정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야기함으로써 그러한 인과적 경험에 신빙성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종의 태도의 문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데이빗슨이 지각적 외재론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는 유사한 반응들의 집합, 관련된 원인들의 집합, 체계적인 인과 관계의 설정 등의 개념은 (우리가 게리멘더링의 오류의 범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모종의 평가적 태도의 대상들이기 때문이

---

322) *ibid.* pp. 198-199.

323) *ibid.* p. 201, 참조.

324) *ibid.* pp. 202-203, 참조.

다. 따라서 지각적 경험 자체를 넓은 의미의 개념 사용적인 실행의 한 차원으로 보고, 그럼으로써 이유를 묻고 추궁하는 게임의 점수기록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브랜덤의 입장이 합당해 보인다. 둘째, 결과적으로 지각적 차원과 개념 사용적인 차원을 분리하는 데이빗슨의 입장은 그 두 차원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브랜덤의 설명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데이빗슨이 우려하는 것처럼 사회적 차원에서 어느 집단이 올바른 단어 사용의 규범을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기서의 사회를 ‘나-우리’의 관계로 해석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일 뿐이다. 브랜덤의 해석에 따르면, 개념 사용의 규범을 제공하는 사회의 개념은 ‘나-당신’의 구조를 갖는 사회이고, 그렇다면 이미 논의된 바대로 지각적 경험의 내용이 개념 사용적인 측면을 갖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차원을 갖는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 4. 의미 전체론과 객관적 의사소통의 문제

앞의 제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전체적인 성격은 명백히 전체론(holism)적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추론주의는 한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다른 표현들과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으로부터 무엇이 추론되며, 또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추론된 것인지를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한 개념의 의미론적 내용은 그 개념이 갖고 있는 추론적 역할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개념의 의미론적 내용은 그 개념과 추론적으로 연관된 다른 개념들과 독립적으로 파악될 수 없다. 따라서 추론주의에 의하면 의미론적 내용은 본질적으로 전체론적이다.”<sup>325)</sup>

이러한 전체론적인 성격은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론에서 다음 세 가지의 전체론의 구조적인 결합의 형태로 분해할 수 있다. 첫째는, 대체적(substitutional) 전체론으로, 단칭명사와 같은 한 표현의 용법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칭 명사들의 용법을 숙달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추론적 전체론으로 한 문장의 용법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문장들의 용법을 숙달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326)</sup> 그리고 셋째는,

325) 이병덕, ‘의미 전체론과 의미 불안정성 문제에 관하여’, 『논리 연구』, 7집 2호, p. 5.

326) MIE, p. 426, 참조.

규범적(혹은 사회적) 전체론으로, 추론의 적절성을 지배하는 하나의 화용론적 규범의 적절성은 다른 많은 규범들의 적절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sup>327)</sup>(규범의 전체론이 사회적인 전체론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은 명제적 내용성이 이유를 제시하고 추궁하는 게임 속에서 결정된다는 브랜덤의 전체적인 기획에 입각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과 그것들로 구성된 문장들, 그리고 그러한 문장들 간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화용론적 규범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인 차원에서 전체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론적인 의미 이론은 브랜덤 자신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부터 논의하게 될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1. 전체론과 의미 불안정성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전체론적인 성격과 그로 인한 의미 불안정성의 문제를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용어들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sup>328)</sup>

㉑ 누군가가 어떤 주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 주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㉒ 그가 그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의 추론적 유의미성, 즉 그 주장으로부터 무엇이 추론되고 또 무엇으로부터 그 주장이 추론되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㉓ 그러한 추론적 유의미성은 보조 가설로서 부수적으로 찬동하고 있는 어떤 다른 주장들을 추론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의존한다.

㉔ 따라서 부수적 찬동들의 차이는 추론적 유의미성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미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㉔에 언급된 부수적 찬동들의 차이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개인내적인(intrapersonal) 부수적 찬동의 변화로 인한 차이의 발생이다. 이 경우, 누군가가 이전까지 특정한 의미로 사용했던 기존의 개념은 그가 추가적인 믿음들에 찬동하게

327) MIE, p. 44, 참조.

328) MIE, pp. 477-479, 참조.

되면서 그 의미가 변경될 수 있게 된다. 다른 하나는, 개인간(interpersonal)의 부수적 찬동들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간의 의미의 차이이다. 의미 전체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두 차원이 서로 결합됨으로써 다음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의미의 불안정성이다.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믿음들을 갖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새로운 믿음들을 획득한다. 그런데 의미 전체론의 입장에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추가, 다시 말해 부수적 찬동의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기존 찬동들의 전체적인 의미가 변화를 일으킨다면, 과연 우리가 일관된 사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미 전체론에 의하면, 한 진술의 의미는 전체 이론 속의 추론적 역할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전체 이론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의미가 변하게 된다. 달리 표현하면, 한 진술의 동일성 조건이 그 진술이 속한 이론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전체 이론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진술의 동일성 조건 역시 대응하여 바뀌게 된다. 같은 문제가 개념의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즉, 한 사람의 믿음이 바뀌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도 바뀌게 된다.<sup>329)</sup>

조금의 변화에도 쉽게 차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의미 구성의 구조를 가진 이러한 의미 연약성은 더 나아가 그러한 조건 하에서 과연 개인간의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므로, 만일 전체론적인 의미론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면, 따라서 전체론적인 의미론은 수용할 수 없다는 귀결이 뒤따를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문제인 객관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 문제이다.

어느 누구도 모든 점에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의미 전체론은 아무도 동일한 개념을 공유할 수 없다는 믿기 어려운 함축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따라서 의미 전체론이 직면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

329) 이병덕, 앞의 논문. p. 6

이다.<sup>330)</sup>

브랜덤 역시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는 개념에 대한 추론적인 이해 방식이 일견 보기에 명백해 보이는 문제를 야기하리라 예견된다는 점을 인정한다.<sup>331)</sup> 즉, 상이한 찬동들의 목록을 갖고 있는 개인들 간에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이한 언어 행위자들에 의해서 생성된 동일한 문장의 발화가 지닌 추론적 유의미성은, 그들의 상이한 부수적 찬동들이 상이한 보조적 가설들을 활용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언어 행위자가 그러한 언어 행위를 생산함으로써 보증하는 귀결적 찬동들과 그들 발화자들에게 그러한 언어 행위에 찬동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엇이 부여하게 될지가 소위 점수기록자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브랜덤 자신이 제시하는 입장 말고 그 외에 가능한 몇 가지 대안들을 고려해보자.

#### 4-2. 대안들

첫 번째로 가능한 대안은, 의미의 전체론적인 성격을 이른바 무정부주의적인 실용주의적 태도와 결합시키고 내친김에 그에 따라 언어의 의미를 해명하려는 체계적인 시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태도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철학적 입장은 바로 리처드 로티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철학과 세계의 거울』을 통해서 익히 알려진 바대로, 전통적인 의미론적 어휘들인 ‘진리’와 ‘지칭’의 역할을 완전히 축소시키고, 그럼으로써 언어가 세계와 철저히 결별했을 때, 그리고 어떠한 언어 게임도 그저 그 나름의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귀결은,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는 언어적 표현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그 어떤 객관적인 요소도 남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 믿음 체계의 전체론적인 성격에 관한 다음과 같은 로티의 생각을 통해서 아마도 그런 입장이 어떤 의미론적인 함축을 갖게 되는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30) *ibid.*

331) MIE, p. 633, 참조.

나는 전체론(holism)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견해라고 생각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른 믿음들과의 정합성을 성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믿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믿음과 욕망들을 일종의 평형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의 추구에 관해서 얘기되어야 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믿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들을 희생시킬 것인지, 혹은 변화된 믿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욕망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관한 규칙 같은 것은 없다. 그런 규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형을 성취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한다는 생각은 총체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이다.<sup>332)</sup>

물론 이러한 로티의 입장은 브랜덤의 생각과는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전혀 다르다. 첫째는, 어떤 믿음이 수용되고(브랜덤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믿음적 찬동이라 할 수 있는) 거부되는 일련의 과정은 브랜덤에게 있어서 단지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무법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규범적 규칙이 적용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브랜덤에게 있어서는, ‘-참이다’와 ‘지칭하다’의 의미론적 기능을 박탈하는 것이 곧바로 반(反)실재론적인 귀결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체론적인 성격을 갖는 추론적 유의미성을 규제하는 객관적인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브랜덤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두 번째 대안은, 하나의 개념이 관여하는 상이한 추론들에 대해서 제각기 불평등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데비트의 용어를 빌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전체론과 원자론의 중간 단계인 의미론적인 부분론(semantic localism)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 따르면, “특권적인 추론들의 집합이 구별될 것이고, 그것은 개념 구성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반면에 나머지는 그렇게 구성된 개념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들로서 밝혀지게 되는 부차적인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런 구분은 다음의 두 가지 추론을 비교해보면 매우 설득력을 얻게 된다.

---

332) R. Rorty with E. P. Ragg, ‘Worlds or Words Apart? The Consequences of Pragmatism for Literary Studies: An Interview with Richard Rorty,’ in *Philosophy and Literature* (2002, 26), p. 369.

(30) 노랑해전에서 왜군은 거의 전멸하였다. → 몇 명만이 간신히 살아남았다.

(31) 노랑해전에서 왜군은 거의 전멸하였다. → 왜군의 나이는 30세 이상이다.

(30)의 추론의 경우는 ‘거의’, ‘전멸’, ‘살다’ 등의 개념의 일부에 해당하는 의미구성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에, (31)은 그렇지 않다. (31)의 추론의 옳음은 당시의 왜군에 관한 경험적 사실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합당하다. 모든 개념들이 무제한적으로 모든 개념의 의미론적 내용에 의미 구성적인 차원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부의 특권적인 의미 구성적 추론의 영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양한 유형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에서 그러한 구분의 이론적 가능성을 검토해본 바 있으며, 브랜덤 자신은 그런 방식의 해결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미 언급하였다.(이 장의 2-5 참조) 간략하게 반복하자면, 브랜덤에 따르면, 특징적인 추론들의 특별한 부분집합을 속달하는 것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개념 구성적 추론들을 구별하는 특권들을 어떻게 해석하던지 간에 이 특권적 추론들의 승인은 여전히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 볼 세 번째 대안은 바로 브랜덤 자신이 제시한 해결 방안이다. 브랜덤의 제안에 들어 있는 핵심적인 생각은 모든 형태의 추론적 유의미성의 변화가 반드시 추론적 내용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는 것이다.<sup>333)</sup> 그리고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으로 브랜덤이 이론화하고 싶은 것은 추론적인 전체론을 소위 사회적인 전체론의 모형 속에 담아내는 것이다.<sup>334)</sup>

#### 4-3. 의미 불안정성의 해소

만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맑은 하늘을 보고 ‘오늘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라는 믿음을 새로이 획득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믿음 생성의 결과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개념의 내용이 변화하게 된다고 말해야 할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의미 전체론의 입장에 따를 때,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브랜덤 역시 그 점을 인정한다.

---

333) MIE, p. 478.

334) MIE, p. 479.

이러한 새로운 찬동의 비(非)추론적인 추가는 (최소한 미세하게라도) 내가 실제로 승인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승인할 수 있을 모든 주장들의 추론적 유의미성을 바꾼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최소한 “만일 태양 앞에 구름이 있다면, 그렇다면 p”라는 형태의 조건문들은 이런 방식으로 나의 찬동들을 변환시킬 수 있는 상이한 잠재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차례로 그러한 조건문의 후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주장의 추론적 유의미성을 바꾸게 될 것이다.<sup>335)</sup>

더 나아가 브랜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실제로 브랜덤에게 전체론은 중층적인 구조를 지닌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명제적 내용성이 결정되는 과정을 고려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전개한 견해는 부수적인 찬동들의 목록에 상대화되는 명제적 내용의 믿음적 승인에 대해서 화용론적인 유의미성을 요구하는 추론적 전체론은 사회적 전체론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입장이다. 그러한 사회적 전체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유의미성이 승인되는 그러한 의미론적 내용의 파악을 요구한다. 즉, 그러한 의미론적 내용의 유의미성은 점수기록자들이 그들이 의미론적 점수들을 추적해온 대상자들에 의해 보증되고 또 그들에게 귀속시킨 상이한 찬동들에 의해 형성된 상이한 관점들 간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이다.<sup>336)</sup>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의미의 변화는 개인내적으로 기존 찬동들에 상대화되면서 동시에, 개인간의 배경적 찬동들의 차이에도 상대화됨으로써 이중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의식해야 할 중요한 배경적 찬동들은 다른 아닌 의사소통 자체의 형태를 띠는 셈이다.”<sup>337)</sup> 그러나 브랜덤에게 있어서 이러한 추론적 유의미성의 잠재적 변화 가능성이 의미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

335) MIE, p. 478.

336) MIE, pp. 478-479.

337) MIE, p. 479.

그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의미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의미의 불안정성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의미는 어떻게든, 혹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확정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 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뜻일 수 있다. 그러나 의미가 고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미는 여기서, 자세히 논의할 필요도 없이, 박물관 유물들에 붙어 있는 딱지처럼 그렇게 한 번 고정된 채로 변화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의미 불안정성은 의미가 너무 쉽게 변화하기 때문에 의미가 확정될 수 없다는 불만으로 이해해야 할까? 그러나 의미가 확정될 수 있다는 주장과 의미가 변화한다는 주장은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의미는 의무적인 점수 기록 모형의 점수표에 기록되는 점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 t에 해당 점수기록은 바로 그 시점에 확정된 언어 행위의 의미 즉, 그러한 개념 사용적인 행위의 명제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적어도 특정 단계마다 언어의 의미는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미의 불안정성은 의미가 너무 쉽게 변화한다는 문제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새로운 믿음이 추가될 때 기존의 추론 관계가 호소할 수 있는 찬동적 믿음의 목록이 변화될 텐데, 그런 목록은 시시때때로 갱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목록의 변화로 인해서 추론적 유의미성이 바뀔 수 있는 ‘잠재성을 갖게 된다는 것’과 추론적 유의미성이 ‘실제로 바뀐다는 것’은 적어도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구체적인 의무적 점수기록 모형을 고려할 때 분명히 구분해야만 하는 중요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오늘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라는 새로운 믿음이 추가되어도, 기존에 승인되던 추론적 유의미성에 실제로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미가 변화하고 확정되는 과정은 점수기록자들이 실제로 상호간에 찬동적 주장들과 그에 대한 권한에 대해 보증과 승인의 의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 점수를 기록해 나가는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 이중적으로 전체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브랜덤의 사회적 전체론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의미론적 내용 결정의 그러한 사회적 성격으로 인해서 의미가 그리 ‘쉽게’ 변할 수 없는 귀결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브랜덤의 사회적 전체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듯, 누군가가 새로운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가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암묵적으로 그의 기존 믿음들과 관련된 의미론적 내용은 변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의미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 4장의 4-3에서 다룬 바 있는, 이른바 어떤 주장에 대한 찬동 권한이 갖고 있는 ‘기본 값과 도전(default and challenge)의 구조’이다. 의무적 점수기록의 모형에서 대화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찬동적 주장에 대하여 그에 대한 찬동의 권한을 기본 값으로 할당한다. 그리고 그러한 찬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주장을 내놓은 사람은 그러한 권한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을 의미론적 내용의 문제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새로운 믿음의 추가로 인해 잠재적인 의미 변화의 여지가 발생했지만, 실제로 의미의 변화는 의무적 점수기록표에 채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대화 참가자들이 기존의 의미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기존에 할당된 의미론적 내용은 기본값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사회적인 전체론의 성격을 띠는 것은 오히려 기존 의미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셈이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실제로 이 두 번째 이유는 브랜덤의 전반적인 기획 하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추론적 유의미성의 변화가 반드시 의미론적 내용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거꾸로 말해서 의미론적 전체론의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서, 기존 찬동들의 구조에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추론적 유의미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미론적 내용의 어떤 부분은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언어적 표현의 표상적인 차원이다.

표상주의적인 의미론의 전통은 부인할 수 없는 통찰을 담고 있다. 즉, 무엇이든 명제적으로 내용을 갖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표상적인 측면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명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추론주의적 설명 순서의 요점은 표상주의적인 어구들을 이용하여 의미론적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추론주의는 그런 어구들의 사용을

통해서 무엇이 얘기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338)</sup>

브랜덤에 따르면, 의미의 불안정성에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의미론적인 전체론에 대한 또 하나의 우려인 객관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 또한 이러한 표상적인 측면의 고려로부터 접근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명제적 내용이 갖는 표상적인 측면은, 전형적인 표상주의 의미론에서 표상 관계가 의미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 전체론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차이점은, 그러한 표상 관계에 대한 이해 역시 예외 없이 추론주의의 설명 모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제와 연결하여 다음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 4-4. 의사소통과 개념의 표상적 차원에 대한 해명

앞에서, 의미 전체론의 또 다른 문젯거리로서 서로 다른 개념들을 가진 사람들, 브랜덤의 용어로 말하자면, 상이한 믿음적 찬동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우선,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다면, 사람들 간의 믿음적 찬동들의 불균형은 오히려 의사소통을 해야 할 전제 조건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적 찬동들을 균등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라면 굳이 의사소통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의사소통은 찬동적 불균형 상태에서 상호간의 찬동적 평형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자. 두 대화 상대자가 제각기 완벽하게 다른 믿음적 찬동들을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해 두 사람의 개념 체계 사이에 공유되는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프레게에게 중요한 문제였던 동일성의 역설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 ‘a와 b가 동일하다’라는 주장이 유의미성을 가지려면 a와 b는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같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에 아무런 정보를 보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

---

338) MIE, p. 496.

른 것'을 '같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에 대한 프레게의 해결 방식은 a와 b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분하고(이를테면 '뜻'과 '지시체') 그 요소들 간에 동일한 측면과 상이한 측면에 공존한다고 보는 것이었다. 여기서, 의사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사한 방식의 해결책이 제시된다. 대화 상대자 A와 B가 각기 상이한 부수적 찬동들의 목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공유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담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 과정은 애초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혹은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과 그들이 그것에 관해서 무엇을 생각하거나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의 우선적인 목표는 얘기되거나 생각된 것과 무엇에 관해서 얘기되거나 생각된 것인지의 관계에 관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자는 생각과 담화의 명제적인 차원이고 후자는 그것의 표상적인 차원이다.<sup>339)</sup>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때,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대화 상대자들 사이의 명제적 차원에서의 불균형에서 기인하고 의사소통의 가능성은 둘 사이의 표상적 차원의 공유로서 설명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브랜덤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즉,

추론적 유의미성에 관한 전체론은 의사소통을 하나의 동일한 관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공통된 의미를 포착해내는 것), 혹은 공동의 활동 속에서 협력하는 것(공통된 실행에 따라서 의무적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사회적 관점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이한 이론적 귀결을 갖는다.<sup>340)</sup>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브랜덤의 기본적인 시각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할 때 당연히 후자에 해당하지만, 결코 전자의 이해 방식과 후자의 이해 방식이 배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브랜덤이 택하는 설명의 전략은 일견 보기에 양립될 것 같아 보이지

---

339) AR, p. 158.

340) MIE, p. 479.

않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후자의 기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런 관점을 통해서, 전자에 담겨 있는 요점을 해명하는 것이며, 또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브랜덤 자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문제에 관하여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해명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근본적으로 추론적인 유의미성과 의무적인 점수기록의 관점에서 의미의 문제에 접근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어떻게 개념의 표상적인 측면을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표상주의 의미 이론에서 원초적인 의미론적 어휘들로 간주하는 진리 술어나 지칭 술어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더 이상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개념 사용적인 실행의 표상적인 측면을 설명할 것인가?

#### 4-5. ‘추론-대체-대용어(ISA)’ 설명 방식

브랜덤이 명제적 내용의 표상적인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는 세 가지의 핵심 개념은 바로 추론(inference), 대체(substitution), 그리고 대용어(anaphora)이며, 그는 스스로 자신의 설명 방식을 머리글자를 따서 ISA방법이라고 부른다.

명제적 내용의 표상적인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아문장적인 요소들, 무엇보다도 단칭 명사와 술어가 갖는 의미론적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341)</sup> 왜냐하면, 대상(object)은 단칭 명사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의 담화 속에 들어오게 되고, 진리의 개념은 최소한 몇몇 주장들이 대상들이 갖고 있는 적절성에 부합하는 그런 유형의 규범적인 상태 혹은 적절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제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아문장적인 요소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의 의미론적인 내용을 포착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적 표현의 명제적인 내용성은 그것이 추론에서 수행하는 역할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지만, 아문장적인 요소들은 그 자체로 문장의 형태를 띠지 않기 때문에 추론에서 다른 어떤 주장의 이유나 귀결로 직접적으로 역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지금 제 5장의 2절에서, 그러한 아문장적인 요소들이 광의의 추론주의의 맥락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거기서의

---

341) MIE, pp. 281-284, 참조.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대체의 개념이었다. 단칭명사는 대칭적 대체추론을 가능하게 해 주고 반면 술어는 비대칭적인 대체추론을 허용한다. 그리고 앞에서 고찰했듯이, 단칭명사의 경우 대칭적 대체추론이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언어가 조건문이나 부정문을 사용할 정도로 표현적인 풍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추론과 대체라는 두 핵심 개념을 통해서 개념의 표상적인 측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대상을 가리키는 용도로 도입되는 단칭 명사의 존재 의의가 해명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2-2에서, 단칭 명사에 대한 실질적으로 올바른 대체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명시적으로 진술된 동일성 관계의 문장 집합을 ‘단순 실질 대체-추론적 찬동들(Simple Material Substitution-Inferential Commitments, SMSICs)’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브랜덤은 특정한 단칭 명사의 올바른 대체 추론을 결정해 주는 SMSICs가 바로 그 단칭 명사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곧 단칭 명사를 이용해서 대상을 가리키려면, 그 대상에 대한 특정 종류의 동일성 진술에 찬동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판단을 형성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 경우 어떤 것이 ‘대상’이라면, 동일성 진술의 두 항에 해당하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지칭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이한 방식으로 지칭될 수 있는 무언가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대상을 그것의 지칭자로서 하나의 표현을 결합시킨다는 것은 그 동일한 대상을 집어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 무엇인지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sup>342)</sup>

결과적으로, 대상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지칭되거나 집어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언어는 대상을 두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지칭할 수 없다면 한 가지 방식으로 그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

342) MIE, p. 424. 이것은 근본적으로 프레게의 착상이며, 그러한 착상을 최대치의 조건으로 해석하면 하나의 항을 한정적인 한 대상을 잡아내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한 대상을 잡아내는 다른 모든 방법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단칭 명사를 도입하여 대상을 지칭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그 대상을 잡아내는 다른 어떤 방법을 갖고 있기만 하면 된다면 최소 조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차이는 사소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자의 엄격한 조건 하에서라면, 뒤에서 다루게 될 대용어를 이용한 대체 추론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럴 경우 표상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sup>343)</sup> 마찬가지로 한 표현이 단칭 명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대화 참가자에 의해 보증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실질적인 대체적 찬동이 있어야만 한다. 그 대화자가 단칭 명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실질 대체적으로 찬동하고 있는 동일성 판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대화자의 언어 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상대편 점수기록자는 그의 언어 행위 속에서 사용된 단칭 명사에 관련된 대체 추론을 가능하게 해 줄 최소한 하나 이상의 실질 대체적 동일성 판단에 그가 찬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드레츠키 등이 제시하는 인과적 삼각모형 설명 방식이 브랜덤의 대체적 삼각모형 설명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sup>344)</sup> 어떤 지향적 내용이 원격 자극에 의한 것인지 근접 자극에 의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삼각모형 설명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칭 명사의 지칭 대상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과정과 다를 바 없으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결과 그러한 자극을 지칭할 용어를 결정하는 과정은 실질적 대체 추론이라는 개념 없이는 수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ISA 설명 방식의 마지막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대용어(anaphora)에 관해 마지막으로 논의할 차례이다. 개념 사용적인 실행의 표상적인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 대용어의 개념이 요구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형태의 반복 발화를 통해서 대칭적 대체추론을 보장하지 않는 넓은 의미의 단칭 명사들이 대상을 지칭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장들은 대체 추론들에 의해서 명료화 된다는 것은 차례로 추가적인 차원의 구조를 선제한다. 왜냐하면 대체는 개별적인 반복불가적인(unrepeatable) 표현의 토큰(token)들 대해서는 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는 토큰 반복성(repeatability)의 개념을 요구한다.……한 표현이 단칭 명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다른 문장들 내에서 다른 술어들과 결합된 채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그러나 분석적 초점이 ‘벤자민 프랭클린’과 ‘이중초점 렌즈의 발명가’ 같은 반복가능표현들에서 ‘이 사람’과 ‘그것’ 같은 유형들의 특수한 토큰들로 더욱 깊게 맞춰지면, 어떻게 그런 반복불가능표현들이 반복가능표현들의 항과 함께 묶이게 되는지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이 얘기되어야 한다.<sup>345)</sup>

343) MIE, p. 425.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방식으로 지칭될 수 있는 대상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칠 때 나는 소리와 같다.”(ibid.)

344) MIE, pp. 426-431, 참조.

대용어의 특징은 반복가능한 표현들과는 달리 대체 추론적 찬동들을 규정하는 내용 보존적 재발화(recurrence)의 구조가 대칭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대칭적인 관계, 즉, 일종의 연쇄 혹은 나무의 도식으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반복 불가능한 표현들의 개념적 내용을 보존한다는 데에 있다. 앞서도 언급했던 다음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28) **명량해전을 지휘한 조선의 장수**는 임진왜란의 영웅이다. **그 사람**은 여러 번의 해전에서 승리하였으나, 한 때 모함을 받아 투옥되기도 하였다. 결국 **그**는 최후의 해전인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전 백성은 **그 장수**를 존경하였다.

이 예에서 ‘명량해전을 지휘한 조선의 장수’는 반복 가능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 ‘그’, ‘그 장수’는 반복 발화했을 때에는 그 내용일 달라질 수 있는 표현들이다. 그리고 반복 불가능한 그 표현들은 선행하는 표현에 대용어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용어적 연쇄를 형성하게 된다.

(32) ①명량해전을 지휘한 조선의 장수 ..... ②그 사람 ..... ③그 ..... ④그 장수

위의 연쇄에서 뒤의 세 표현은 그 자체로 단칭 명사로서 기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들과 관련된 대체 추론적 찬동들의 집합을 따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세 표현은 ①이라는 대용어적 연쇄의 출발점이 연관된 대체 추론적 찬동들의 집합들을 지금의 이 특수한 상황에서 상속받는다. 그러한 대체 추론적 찬동들의 집합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곧 ②, ③, ④가 ①의 표상적인 내용을 상속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브랜덤은 이러한 대용어의 분석이 특히 의사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명제적 내용의 표상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용어구들이 의사소통에서 대화 참가자들 간에 진행되는 점수기록의 실행 속에 사용되었을 때, “청자

---

345) MIE, pp. 449-450.

와 화자의 상이한 찬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적 괴리를 가로질러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화자의 토권을 대용어적으로 포착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럼으로써 그것을 그들 자신의 대체 추론적 찬동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화자의 발화로부터 정보를 추출해냄으로써 그 발화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sup>346)</sup> 다음과 같은 세 사람의 대화를 생각해 보자.

A : 임진왜란 때 조선 해군의 최고 명장이었던 사람이 한 때는 모함으로 투옥되기도 했었다는군.

B : 그 사람이 투옥된 것은 모함을 받아서가 아니라 임금을 명령을 실제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C : 그래도 충무공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다면 조선은 전쟁에서 졌을 거야.

A : 그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순신이 없었어도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꼭 졌으리란 법은 없다고 생각해.

여기서 A와 B와 C는 각기 다른 믿음적 찬동들의 목록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세 사람의 의사소통을 객관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세 사람이 모두 다음과 같은 대용어적 연쇄를 구성하여 자신이 찬동하고 있는 대체 추론적 동일성 판단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추론적 실행의 능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용어적 연쇄 : 임진왜란 때 조선 최고 명장 ... 그 사람 ... 충무공 ... 그 ... 이순신  
SMSICs = {이순신은 충무공이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조선 최고의 명장이다, etc}

더 나아가, 대용어의 사용은 대화 상대자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을 성립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의 대화를 고려해 보자.

A :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공한 장본인이야.

---

346) MIE, p. 474. 강조는 필자의 것임.

(여기서 B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인지, 임진왜란이 어떤 전쟁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가정하자)

B : 그 사람(혹은 아까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지칭했던 바로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군.

결과적으로, 대용어 사용의 메커니즘은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혹은 그럴 필요가 없는 대상에 관해서도 찬동을 보증하고 귀속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최소한도의 객관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장치로서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ISA의 설명 방식은, 명제적 내용의 표상적인 측면이 어떻게 광의의 추론주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표상적인 관계를 의미론적인 원조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런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의사소통의 맥락 속에서 객관적인 내용의 공유와 전달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지 설명해준다. 그러나 브랜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과 개념의 표상적 차원의 문제는 지금 다룬 문제에서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점을 다음 단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 5. 규범의 원천과 의미 객관성의 문제

이제 이번 장의 머리글에서 다루기로 했던 문제들 중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를 검토해보자. 그리고 아마도 지금 다룰 이 문제가 브랜덤의 전체적인 계획이 지닌 좀 더 근본적인 의의이자 동시에 난점이 될 것 같다. 브랜덤의 전체적인 이론적 기획에서 지금까지 답해지지 않고 남은 문제는 그 자신도 인정하듯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해석들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것을 채택하는 것, 개념 사용적인 실행들의 그러한 집합들 중에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것을 부여하는 것이 언제 적절하거나 혹은 옳은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sup>347)</sup>

---

347) MIE, p. 637.

## 5-1. 규범성에 대한 현상론적 접근 방식과 의미 객관성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브랜덤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이론적 목표는 ‘의미는 사용이다’라는 슬로건에서 출발하여 의미론적인 내용을 부여하는 궁극적인 원천이 무엇인지 입증하고, 더불어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론적 사실들을 해명한 다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언어적 표현에 객관적인 명제적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적절성의 요건을 갖춘 체계적인 의미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덤의 전체적인 기획을 선도한 근본적인 착상은 바로 명제적으로 내용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준별하는 근본적인 특징은 그것이 추론의 전제와 결론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 모든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 개념의 추론적 역할과 개념 사용의 규범성을 매개하는) 결정적인 개념은 바로 추론의 개념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기획을 전제로 할 때, ‘이 꽃은 붉다’라는 문장의 객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일차적인 답변은 그 문장이 수행하는 추론적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추론적 역할은 ‘적절한’ 추론적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그 문장의 적절한 추론적 역할은 그것이 그러한 추론적 적절성을 지배하는 올바른 규범에 따르는 것이었을 때 인정될 수 있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추론적 적절성과 규범성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관계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sup>348)</sup>

규범 적용의 첫 단계 : 말하기와 생각하기, 개념을 파악하고 적용하기는 추론적으로 명료화 된 규범들에 의해서 기술된다. 즉, 이유를 제시하고 추궁하는 놀이에서의 수(手)들은 각 단계마다 대화 참여자가 무엇에 찬동하고 또 무엇에 대해 찬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의 변화를 통해서 납득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개념적인 것을 의무적인 상태들로 규범적인 재구성을 해낸 것에 해당한다.

규범 적용의 둘째 단계 : 대화 참가자들이 의무적인 상태들을 드러내면서 무언가에 찬동하고 또 무언가에 찬동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점수

---

348) *ibid.*

기록적인 실행을 통해서 설명되며, 그러한 실행에 암묵적으로 담겨 있는 규범들이 의무적 태도들의 변경을 지배한다. 이 차원에서 의무적 상태들은 체계적으로 의무적인 태도들을 변경하고, 그럼으로써 화용론적인 유의미성을 행위들에 할당하는 점수기록의 적절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의무적인 상태들에 대한 언급은 오로지 의무적인 태도들의 대상으로서만 성립되며,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떤 찬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을 귀속시키거나 혹은 보증하는 것뿐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한 문장의 의미, 즉 명제적 내용성은 그것이 이유를 제시하고 추구하는 놀이에서 수행하는 추론적인 역할이며, 그러한 추론적 역할의 적절성은 그 놀이에 참여한 대화 참가자들의 의무적인(즉, 규범적인) 상태들에 의해 구성되고, 그러한 의무적인 상태들은 의무적인(즉, 규범적인) 태도들의 실행적인 점수기록 모형에 의해 규정된다. 이런 방식으로 개념 사용의 규범적 성격을 해명하고자 하는 입장을 브랜덤은 규범성에 대한 현상론적 접근 방식이라고 부른다. 규범성에 대한 현상론적인 접근은 개념 사용의 적절성을 지배하는 규범의 객관성이라는 개념과 양립 가능한 것일까? 간단히 말해서, 그런 접근 방식 하에서 의미의 객관성은 확보될 수 있을까? 문제는 브랜덤 자신이 점수기록이라는 사회적 실행 속에 내재한 규범이 개념에 명제적 내용성을 부여하는 근원임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규범적 태도의 사회적 총합을 초월하는 객관적 규범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sup>349)</sup> 실제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개념 사용적인 찬동들에 관한 사회적 실행론을 향한 최우선적인 설명적 문제는, 라이트(Wright)의 분석이 정확하게 이해한 바로 그러한 유형의 규범들, 즉 누가 진짜 기혼자이고 혹은 상사 앞에서 침을 뱉으면 어떤 책임이 초래하는지 등과 같이 공동체의 포괄적인 실제적 평가가 오류를 저지를 수 없는 그러한 규범적인 상태들에서 출발해서, 과연 어떻게 진정한, 따라서 객관적인 개념적 규범들이 정교하게 생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sup>350)</sup>

349)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개념들이 객관적인 찬동들을 통합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개념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가진 근본적인 특징이다. 이를테면, ‘질량’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이런 것이다. 즉, 우주의 질량이 너무나 엄청나서 궁극적으로는 중력에 의한 붕괴를 겪게 될 것인지 여부를 사실들(facts)이 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무관한 것이다.”(MIE, p. 53)

그러나 일견 보기에 이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같아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는 브랜덤 자신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sup>351)</sup>

일견 보기에, 이런 의미에서 객관적인 개념의 적절성을 인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규범들에 대한 사회적-현상주의적인 접근 방식과 간단히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접근 방식의 특징은 바로 우리의 개념 사용적인 행위를 지배하는 규범들을 우리의 태도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다룬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태도가 태도-초월적인 개념 사용적 규범이라는 개념을 납득 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sup>352)</sup>

이에 대해 브랜덤이 마련한 답변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브랜덤의 해결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그가 찬동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들을 점검하도록 해 보자.

① 규범성을 비규범적인 것들로 환원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② 시종일관 규범성에 대한 현상론적인 설명 방식을 수용한다. ③ ②를 수용하되, 규범적 태도를 초월하는 규범의 객관성은 확보될 수 있다. ④ ①을 수용하되, 따라서 규범성을 규범성에 호소하여 설명하되, 그것이 순환적이거나 무한퇴행적인 설명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모든 전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브랜덤이 제안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검토해 보자.

## 5-2. 사회적 실행과 규범의 객관성

브랜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전략은, 규범성에 대한 현상론적 접근 방식이 필연적으로 명제적 내용성의 사회적 실행의 차원에 호소하게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

350) MIE, p. 54.

351) 실제로 브랜덤은, 자신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과 유사한 실행론의 성격을 띠는 주장가능성(assertibility) 이론이 유사한 딜레마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장에 결부된 내용을 명료화하는 주장가능성의 규범들을 그 문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쪽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표상적인 율음의 평가에서 호소하게 되는 유형의 객관적 규범들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AR, p. 197.) 지금까지의 논의만 놓고 볼 때,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은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352) MIE, p. 280.

서, 그러한 사회적 실행의 차원이 필연적으로 명제적 내용성의 표상적인 차원을 필요로 하게 되며, 명제적 내용성의 표상적인 차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의무적 태도들을 지배하는 규범의 객관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명제적 내용성이 대화 참가자들의 규범적 상태와 태도의 총합을 초월하는 객관적인 차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브랜덤은 이러한 자신의 전략을 입증하기 위해서 MIE의 8장과 9장, 그리고 AR의 5장과 6장을 할애하고 있다. 그의 대단히 치밀하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견 보기에는 그다지 설득력 있는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 그의 입증 과정을 우선은 페테르 그뢰네르트(Peter Gronert)의 훌륭한 요약을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sup>353)</sup>

브랜덤은 우선 어떻게 발화와 태도들의 표상적인 차원을 상술하는 어구들이 의무적 점수기록의 실행에 참여하고 있는 대화 상대자들의 언어에 도입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자연 언어에서 명시적인 표상적 어휘들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한 부류는 ‘참이다’, ‘지칭하다’와 같은 의미론적인 어휘들로서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이런 어휘들의 진정한 역할(즉, 대용어 형성자)이 무엇인지는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다른 한 부류는 브랜덤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상적 어구들이다.

일상 언어에는 또 다른 그리고 많은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유형의 표상적인 어구가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가 사유와 담화의 지향적인 향함성(directedness), 즉 우리가 사물과 사태에 대해 생각하고 말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 ‘of’와 ‘about’과 같은 단어들은 그것들이 명제 태도의 대물적 귀속(de re ascription)에서 등장하는 그런 방식에 의거해서 그들의 특징적인 지향적이거나 의미론적이거나 혹은 표상적인 표현적 역할을 수행한다.<sup>354)</sup>

브랜덤은 ‘of’와 ‘about’ 같은 어구들을 동원하여 수행되는 바로 그 대물적 귀속의 언어 행위가 규범의 객관적 옳음, 다시 말해 개념 사용의 옳고 그름이 사물이 실제로 그러

---

353) P. Grönert, ‘Brandom's Solution to the Objectivity Problem’, in *Pragmatics & Cognition* (2005), pp. 165-172, 참조.

354) MIE, pp. 499-500.

그러하게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른바 진리에 대한 생각을 표현해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믿음적 찬동(doxastic commitment), 간단히 말해서 믿음의 대물적인 귀속이 특정한 믿음이 실제로 무엇에 관한 믿음인지를 상술해 줌으로써, “그 믿음의 귀속자에 따르면, 그 귀속된 믿음이 참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개체가 가진 속성들이 탐구되어야만 하는지를”<sup>355)</sup> 명시화해준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믿음의 대물적 귀속이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즉, 대물적 귀속의 특징은 개념적 내용의 세부 구조를 파고 들어가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믿음 귀속자에 의해 보증되는 믿음적이고 추론적인 찬동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그 믿음 귀속의 대상인 피귀속자에게 부여한 찬동들에 의해서 제기된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해 준다는 것이다. 즉, ‘S believes that K(t)’라는 대언적인 귀속(de dicto ascription)이 ‘S believes of t that K(it)’라는 대물적 귀속의 형태로 바뀌고 나면, ‘of’의 범위에 들어 있는 t의 내용은 믿음 귀속자의 믿음적 찬동들에 의존적이고, ‘that’의 범위에 들어 있는 부분은 믿음 귀속자가 피귀속자에게 부여하는 믿음적 찬동들에 의존적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무적 점수기록의 실행에 근본적인 두 가지 유형의 규범적 태도들, 즉 믿음적이고 추론적인 찬동들의 인정(acknowledging)과 부여(attributing)의 차이가 분명해 진다. 이것은 명제적 내용성이 갖는 사회-관점적 성질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명제적 내용이 그러한 사회-관점적 성격을 갖는다는 이러한 분석에 입각하여, 브랜덴은 대물적 귀속이 결국은 객관적인 의무적 상태의 귀속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객관적으로 옳은 주장 혹은 개념의 적용과 단지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과의 차이는 각각의 점수기록적인 관점이 지닌 구조적인 성질이다. 실제로 객관적 옳음의 요구되는 개념은 귀속된 찬동들의 개념적 내용에 대한 대물적 명세화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물적 양식에서의 귀속은 그 귀속된 주장의 참 혹은 거짓을 결정하는 대상을 명세화하기 때문이다.<sup>356)</sup>

다음과 같은 사례를 고려해 보자.<sup>357)</sup> 어떤 경관이 수사관에게 자신이 어젯밤에 어두

---

355) MIE, p. 584.

356) MIE, p. 595.

운 정원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사람을 언뜻 보았고, 자신은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마을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극악무도한 탈주범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하자. 그런데 수사관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관이 어둠 속에서 보았다는 그 사람은 실은 그 누구도 그가 극악무도한 탈주범일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을 마을의 선량한 목사였다고 하자. 이 때,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대물적 귀속을 통해서 경관의 주장에 담긴 객관적인 표상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관은 그 목사에 대해서(of the Croaker) 그가 탈주범이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수사관은 그 경관이 그 목사가 탈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관은 단지 자신이 어두운 정원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탈주범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대물적인 방식과 대언적인 방식의 내용 명세화의 대비는 한 편으로는, 그 경관이 실제로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찬동을 보증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지, 즉 진리 평가의 주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의 주장이 어떤 대상에 관한 것인지와, 다른 한 편으로 그 경관이 자신이 찬동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즉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의 대비인 셈이다.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이 경우에는 실제로 누가 그 어두운 정원을 지나갔는지가 주어졌을 때), 그 경관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목사가 탈주범일 때 오직 그 경우에만 참이 되는 그러한 주장에 찬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의 찬동에 들어 있는 객관적인 내용은 바로 그것이다. 반면에, 대언적 귀속은 동일한 찬동의 내용을 그 찬동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명세화한다. 수사관은 그 경관에 대해서 각각 대물적인 귀속과 대언적 귀속으로 명세화된 두 권의 점수기록 장부를 가지고 암묵적으로 그 경관에 의해 보증된 의무적인 상태와 그 경관에 의해 채택된 의무적인 태도를 구분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대화 참가자가 그 대화 참가자에 의해서 인정된 부수적 찬동들에 기반 하여 귀속시키는(자기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믿음적 찬동은 개념의 객관적인 내용을 명세화해 준다는 점에서 그 대화 참가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의무적 상태이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객관성은 개념적 내용의 사회-관점적 형식의 구조적인 측면이다. 사물들이 어떻게 있는가와 그것들이 어떤 대화 상대자에 의해서 어떻게

---

357) *ibid.*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의 구분이라는 영구적인 가능성이 개념의 사회적-추론적 명료화 안에 짜맞춰 들어가 있다. 그 차이는 우선적으로 타인들의 찬동에 관계하는 각각의 점수기록자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한 타인들이란 점수기록자가 찬동을 부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점수기록자에 의해서 인정된(그럼으로써 보증된) 찬동들과 그 점수기록자에 의해 타인에게 부여된 찬동들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적 전제들의 맥락에서 주장들의 상이한 추론적 유의미성에 의해 제공되는 관점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58)</sup>

브랜덤이 제시하는 이러한 설명은 규범의 객관성, 더 나아가 의미의 객관성 문제에 관한 만족할만한 답변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전제들은 이러한 설명 구조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 5-3. 규범의 객관성과 설명적 일관성

앞서의 네 전제에 따르면, 명제적 내용의 추론적 적절성을 결정하는 의무적 태도의 객관성은 비규범적인 것들로 환원되어서도 안 되며, 설명력 없는 순환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규범을 사회적 실행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명백히 환원적인 논지가 어떻게 규범-형성적인 사회적 실행들이 상술되는 상위언어의 비환원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에 대한 고수와 양립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문이 제기되어야만 한다.”<sup>359)</sup> 이에 대한 브랜덤의 답변은 철저하게 규범에 대한 현상론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브랜덤은 “의무적인 상태들에 대한 담화는 현실적으로 채택되거나 포기된 의무적인 태도들에 대한 담화에 의해서도, 그런 채택 혹은 포기를 통해 드러나는 규칙성에 대한 담화에 의해서도, 그런 태도들을 채택하거나 포기하는 성향에 대한 담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음”<sup>360)</sup>을 분명히 한다. 의무적 상태들에 대한 담화는 오로지 의무적 태도들의 채택과 변화를 지배하는 규범적 적절성에 대한 담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358) MIE, p. 597.

359) ibid.

360) ibid.

한 편으로 그러한 실행적인 태도들-어떤 행위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렇게 간주하는, 찬동을 귀속시키거나 혹은 인정하는-은 우리의 지각과 행위가 우리가 인지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비규범적인 사실들의 인과적 질서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소된다. 다른 한 편으로, 그런 태도들은 개념 사용적인 규범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어떻게 단순한 감각자의 원시적인 비(非)개념사용적 높이에서 사유자가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호소된다. 왜냐하면, 우리 개념 사용적인 피조물들은 규범의 피조물들일뿐 아니라 그 규범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이다.<sup>361)</sup>

브랜덤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규범적인 사회적 실행을 통해 언어적 표현에 구체적인 내용을 귀속시키고, 즉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바로 그 언어적 표현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규범을 설정하게 된다. 이것은 곧 인간은 규범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이며, 우리가 규범을 설립하려면, 우리에게는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의무적 상태의 적절성을 지배하는 의무적 태도들의 사회적 실행이 비환원적인 규범적 지위를 갖는 것이라면, 그 설명은 무기력한 순환적 설명이 되지 않을까? 결국 모든 규범은 의무적 태도에 의존적인 것이 되고, 개념의 객관성에 대한 전망은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답변은 규범을 적용하는 세 번째 단계(앞서 두 단계를 언급했다)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sup>362)</sup>

규범 적용의 셋째 차원 : 의무적 태도들이 의무적 상태들에 대해서 했던 것을 이번에는 의무적 태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적용하는 단계이다. 이제 초점은 의무적인 태도들을 부여하는 실행에 맞춰진다. 그것은 곧 한 공동체를 암묵적으로 규범적인 개념 사용적인 실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 적용의 세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은 명제적 내용의 표상적 차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규범에 대한 현상론적인 접근 방식과 순환성의 오류를 모두 피할

---

361) MIE, p. 626.

362) MIE, p. 637.

수 있게 된다.

그 답은 특정한 유형의 자세(stance)를 상술하는 형태를 띤다. 그런 자세란 특정한 종류의 평가들을 표상된 대상들에 대한 누구가의 태도나 주장들에 관해서라기 보다는 그것들에 관한 사실들에 답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렇게 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태도들의 배열을 뜻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표상주의적인 자세를 수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표상적인 어구들의 사용을 통해 명시적으로 표현된 암묵적인 실행적 태도들을 이해하는 것이다.<sup>363)</sup>

이것은 곧 대화 상대자들의 의무적인 점수기록의 과정이 어떻게 대화 상대자들이 각자의 의무적인 태도를 초월해서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명제적 내용의 표상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5-4. 설명의 한계와 문제점

이러한 일관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브랜덤의 목표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실현된 것인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설명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어 보겠다.

첫째, 개념적 내용에 대한 브랜덤의 전체적인 설명 전략은 기존의 표상주의적인 설명 순서를 뒤집고 대신 추론주의적인 설명 순서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규범의 객관성을 설명하는 지금의 접근 방식이 과연 그러한 거시적인 설명의 순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 따르면 개념적 내용은 점수기록이라는 사회적 실행의 과정을 경유하여 표상적인 차원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sup>364)</sup> 그러나 실제로 브랜덤의 설명에서 그 점이 그다지 분명히 입증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점수기록적인 실행으로서의 의사소통이 오히려 개념적 내용의 표상성

---

363) MIE, p. 280.

364) 브랜덤의 AR의 제 5장 제목을 보라. “추리에서 표상으로 가는 사회적 통로(A Social Route from Reasoning to Representing.)”

에 대한 대화 참가자들 선행하는 인식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표상에 관한 답화는 서로 다른 사람의 판단들을 이유들로서, 우리 자신의 추론에서 전제들로서 활용할 수 있고, 설령 가설적으로라도, 그러한 판단들의 유의미성을 우리 자신의 부수적인 찬동들의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음으로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답화이다.<sup>365)</sup>

이러한 브랜덤의 구절 자체는 상이한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처럼 보인다. 명제적 내용이 표상적인 차원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소통(혹은 의무적인 점수 기록적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 내용은 반드시 표상적인 차원을 가져야만 하는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는 문제는 남을 것이다. 전자를 택해서, 의사소통이 명제적 내용의 표상적인 측면에 의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결과적으로 추론주의적인 설명 순서를 수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물론 설명적 순서와 소위 ‘존재론적 순서’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리고 후자를 택한다면, 개념적 내용의 객관성 문제를 설명하는 과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다. 따라서 수용 가능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개념에 있어서 표상적인 차원과 추론적인 차원이 동시에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뿐인 것 같다. 그러나 브랜덤의 주장 속에서 그런 설명을 어떻게 납득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둘째, 규범의 객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대물적 독법을 활용하는 브랜덤의 설명 구도에 대한 포더와 르포어의 비판을 고려해 보자.<sup>366)</sup> 이들은 브랜덤과 마찬가지로 ‘John believes Ortcutt is a spy.’와 같은 문장의 독법이 애매하다는 통찰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믿음 귀속의 대물적 독법은 공(共)지칭적 표현들의 대체 하에서 ‘참’ 유지되는 것으로 다루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추론주의의 문제점은 그러한 진리나 지칭과 같은 강건한 개념에 접근할 수 없다

---

365) AR, pp. 167-168.

366) Fodor & Lepore, ‘Brandom's Burden: Compositionality and Inferentialism’, in *The Compositional Papers*, pp. 149-151, 참조.

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해 보이는 것은 “믿음 귀속자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귀속된 믿음의 측면을 언급해서는 대물적 독법이라는 의미론적 개념을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367)</sup> 이들의 비판의 요지는 아마도 이런 것 같다. 예를 들어, 빌(Bill)과 조지(George)라는 두 명의 점수기록자가 제각기 존(Jonh)에게 다음과 같은 믿음을 귀속시킨다고 해 보자.

(33) The present president of USA is tall.

그런데 두 사람은 ‘the present president of USA’라는 단칭명사에 대해서 각기 다른 SMSICs를 갖고 있다고 해 보자. 실제로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대물적 문맥의 이해는 결국은 구조적으로 대체 추론과 대응어적인 연쇄에 의존한다. 그 결과 존에게 귀속시킨 믿음에 대한 두 사람의 대물적 독법은 각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 보자. 이를테면,

(34) Bill : John believes of Bush that he is tall.

(35) George : John believes of Nancy's husband that he is tall.

(Bill은 Nancy가 누군지 모르고, George는 Bush가 누군지 모른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라면, (33)의 의미는 Bill과 George에게 각기 다르다고 말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들 두 사람 뿐만 아니라 상이한 SMSICs를 보유한 모든 사람들마다 (33)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는가? 포더와 르포어의 비판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of’의 범위에 있는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을 여전히 그 믿음 귀속자의 책임 영역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대물적 독법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는 셈이다. 이들의 비판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대물적 독법의 의의는 공지칭적 표현들의 진리가 보존적 대체를 보장하는 안전한 문맥을 제공하는 차원에 있으며, 귀속된 믿음 중에서 귀속자와 피귀속자가 각기 찬동의 책임을 저야 할 부분을 분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브랜덤에게 치명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대물적 독법에 대한 브랜덤의 이해 방식은 그것

---

367) *ibid.* p. 150

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방식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만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의문을 제기해 보자. 지금까지 객관적 규범의 문제를 다뤄 온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이를테면, ‘이 꽃은 붉다’라는 단순한 문장의 객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로 말해 주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브랜덤에게 있어서 개념의 명제적 내용은 그것이 이유의 제공과 추궁의 게임에서 수행하는 추론적 역할이다. 그런데 그러한 추론적 역할의 적절성은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무적인 상태와 사회적 실행의 태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한 사회적 실행의 객관성은 그 개념이 표상적 차원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주어진다. 따라서 문제는 이것이다.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그것의 추론적 역할인가? 그것의 표상적인 측면은 의미의 구성 요소가 아닌가? 이런 의문에 관해 브랜덤이 일관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려면, 실제로 개념에 대한 추론적 명료화가 그것이 가진 표상적인 차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낼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브랜덤이 보여준 전부는 추론주의 의미론과 규범적 화용론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개념이 표상적인 차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뿐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그 개념이 ‘어떤’ 표상적 차원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이며, 브랜덤의 설명은 거기에 까지 미치지 못한다. 결국 브랜덤이 믿음 귀속의 대물적 독법을 통해 확보한 것은 대화 참여자들이 각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분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표상적인 차원을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브랜덤 자신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 명제적 내용의 객관성 문제에 관하여 브랜덤이 AR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입증 방식을 잠깐 고려해보자.<sup>368)</sup>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설명의 방법상의 차이일 뿐 실제로 브랜덤이 목표로 하는 귀결은 정확히 동일하다.) 그는 ‘이 꽃은 붉다’라는 경험적 진술이 어떤 측면에서 객관적인 명제적 내용을 갖는지는 정확하게 추론주의적인 명료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36) “만일 이 꽃이 붉다면, 이 꽃은 붉다.”

(37) “만일 내가 이 꽃은 붉다고 주장할 권한이 있다면, 이 꽃은 붉다.”

---

368) AR, pp. 196-204, 참조.

브랜덤에 따르면, (36)은 찬동 보존적인 추론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37)은 찬동 보존적이라는 의미에서 옳은 것으로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추론이다. 따라서 “이 꽃은 붉다”와 “나는 이 꽃이 붉다고 주장할 권한이 있다.”는 다른 추론적 역할을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브랜덤은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찬동과 권한의 개념들이(그리고 더불어 양립불가능성의 개념이)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일상적인 경험적 주장의 내용과 누가 무엇에 찬동하고 또 그럴 권한을 갖는가에 관한 주장들의 내용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69)</sup>

이 모든 것의 요점은 명제적 내용의 객관성, 즉 ‘이 꽃은 붉다’고 주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누가 어떤 것을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혹은 누가 무엇에 찬동하고 또 그럴 권한이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실제로 합리적인 존재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참일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문장들의 사용을 명료화 하는 찬동과 권한의 구조로서 납득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sup>370)</sup>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이 꽃은 붉다’라는 진술은 “실제로 합리적인 존재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참일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무언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는가? 결국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보여준 것은 의무적 상태와 태도의 추론적 명료화를 통해서 명제적 내용이 갖는 객관성의 영역이 어느 지점부터 발생하는지를 보여주었을 뿐이며, 그럼으로써 결국 ‘이 꽃은 붉다’라는 진술의 객관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보여주지 못한 셈이 되고 말았다. 브랜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유의 객관성, 즉 우리 사유의 내용이 그러한 내

---

369) AR, p. 201.

370) AR, p. 203.

용을 향해 우리가 갖고 있는 승인 혹은 권한부여의 태도들을 넘어서는 방법을 합리성의 규범적인 섬세 구조라는 특별한 양상으로서 이해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sup>371)</sup>

그리고 결국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그러한 이해 가능성의 단초를 보여준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문제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그 이상의 영역을 실제로 설명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 6. 맺음말

지금까지 표상주의적인 이론의 강점으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설명력이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틀 안에서 어떻게 해명될 수 있는지 그 범위와 한계를 검토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의미 조합성의 문제, 반실재론의 문제, 의미 전체론의 문제, 그리고 의미 객관성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기존의 언어 사용 이론이 제공하지 못했던 상당히 정교한 수준의 이론적 체계화를 성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미 이론의 외연적 적절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유형의 체계적인 의미론을 과연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 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이 꽃은 붉다’는 K를 의미한다.”라는 정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미론적인 값을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산출하는가? 그것은 그 문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과제와 분리될 수 없고, 그렇다면,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셈이다.

---

371) AR, p. 204.

## VI. 결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들은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갖는다. 언어적인 현상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특정한 문양이나 소리를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거나 배열하면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특정한 문양이나 소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무언가를 의미하며, 그런 의미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의 수신자를 비롯해 세계와 모종의 접촉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언어적 표현의 고유한 성질이 특정하게 배열된 문양이나 소리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생긴 특정한 패턴의 모양이나 거북이 등껍질을 태워서 생긴 갈라진 틈새들의 모양이 그 자체로 무언가를 뜻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뭇잎에 뚫린 벌레구멍이나 거북 등딱지에 생긴 균열이 무언가를 뜻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x는 y를 의미한다.’라는 공식을 만족시키는 이른바 관계적 속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위의 공식을 만족시키는 관계 항들의 목록을 그저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무언가를 의미함’이라는 성질의 일반적인 본성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특정한 문양이나 소리가 그것들이 뜻하는 바와 맺고 있는 관계의 일반적 본성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고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까지도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적 속성을 해명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핵심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하나는, 우리가 언어적 표현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그러한 표현들이 세계 내에 있는 어떤 대상과 맺고 있는 연관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떤 형태이건 우리의 대화는 우선적으로 ‘세상의 무언가에 대한’ 대화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언어적인 표현이 세계의 대상들과 맺는 이러한 관계를 이른바 언어적 표현이 지닌 표상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언어적 표현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들이 존재

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물건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물건이 지닌 특유의 형태에 어떤 특성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현실 세계의 언어 사용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어떤 결과를 의도하며 사용하는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언어적인 표현이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는 언어적 표현이 지닌 사용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상적인 측면과 사용적인 측면이라는 두 요소는 언어적인 표현과 그 의미 사이의 관계가 지닌 일반적인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 의미 이론이 반드시 설명을 제공해 주어야 할 요소이자, 동시에 그러한 설명을 제공할 때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두 개의 상반된 축을 형성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의미의 문제를 일관되게 해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라면, 특정한 소리나 문양이 맺고 있는 의미와의 관계, 그러한 관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로부터 파생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성들까지 모두 다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브랜덤의 근본적인 입장은 위의 두 가지 직관 중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 셀라스 등의 철학을 계승하여 언어의 사용적인 속성에서 출발하여 의미의 문제에 접근하는 언어적 실행론이다. 그의 의미 이론이 지닌 특징은 그가 선택한 다음의 몇 가지 기본적인 설명 전략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그는 개념 사용자로서의 사유자의 특징을 강조하고, 개념의 내용을 개념의 사용을 통해 설명하며, 개념적 활동이란 근본적으로 ‘바깥’에 있는 것을 ‘안’에 표상한다기보다는 ‘안’에 암묵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으로 밖을 향해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문제로 간주하고, 개념을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관해 그것을 특별한 종류의 내포적인 요소들로 보지 않고 추론주의적인 관점을 통해 해명하려 하며, 단어들에서 출발하여 문장의 의미로 나아가는 벽돌쌓기 식의 원자론적 상향식 의미 구성 대신에 문장의 의미로부터 출발하여 단어들의 의미로 나아가는 전체론적 하향식 의미 구성의 방식을 택하고, 논리와 전통적인 의미론의 어휘들을 의미론적으로 원초적인 것들이 아니라 합리주의적인 노선에 따르는 추론적으로 명료화된 ‘표현’의 도구로 간주한다.

이런 기본 전략을 토대로 브랜덤은 유럽 근대 철학의 전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인 추론, 규범성, 그리고 사회적 실행의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인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구성한다. 우선, 의미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고 그러한 문장의 의미

는 그것이 놓이게 되는 실질적 추론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러한 추론주의 의미론은 궁극적으로 화용론에 부합되어야 한다. 여기서 화용론의 성격은 철저히 규범적인 것이며 추론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찬동과 권한이라는 이른바 규범적인 상태들을 통해 이해된다. 그리고 그러한 규범적 상태들은 비규범적인 것들로 환원될 수 없고,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맥락은 본질적으로 이유를 추궁하고 제시하는 규범적인 사회적인 실행의 게임의 맥락이어야 하며, 그것은 찬동, 권한이라는 규범적 상태들이 실제로 사회적인 실행 속에서 부여되고, 인정되고, 보증되는 과정 속에서 개념의 구체적인 명제적인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추론, 규범성, 사회적 실행의 세 개념을 통해 구성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이전의 언어 사용 이론에 비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적 침묵주의를 넘어서서 상당히 수준의 이론적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은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미 이론의 과제들, 즉 우리가 언어와 의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론적 사실들을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의미 이론의 외연적 적절성 조건의 핵심적인 요소인 의미의 조합 가능성, 언어와 세계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 객관적인 의사소통의 문제, 그리고 규범과 의미의 객관성 문제 등은 그간의 표상주의 의미 이론에서 효과적인 답을 제공할 수 있었던 데 비해서 반사적으로 기존의 언어 사용 이론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브랜덤은 이러한 문제들을 자신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모두 해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여러 가지 의미론적 사실들을 해명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충분히 정교하고 세밀한 이론 체계를 구성해 낼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검토해 본 바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이 요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애초의 약속처럼 규범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더 나아가 의미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결국, 문제의 열쇠는 개념적 내용의 표상적 차원의 해명에 달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규범’이며 그러한 규범을 다른 어떤 비규범적인 것으로도 환원시키지 않는다는 규범적 현상론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표상적인 차원이 결국은 점수기록이라는 개념 사용자들의 규범적인

사회적 실행을 경유하여 주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모든 점수기록자들의 규범적 태도들을 초월하는 차원의 의미 객관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와 관련하여 브래덤이 제시한 논변들은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마도 그의 이론에 대한 가장 우호적인 평가는 최소한 언어적 실행론이 의미의 객관성이라는 측면과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 브래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그 문제에 확실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하나는, 포더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론주의 프로그램 자체를 포기하거나 밀리칸과 같은 사람들처럼 규범의 현상론을 포기하고 표상주의적인 이론으로 회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는, 의미의 객관성을 규범적인 사회적 실행의 모형 내부적인 관계로 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개념적 도식의 복수성을 부인하는 데이빗슨의 주장을 수용하여 점수기록의 사회적 실행을 언어 공동체 전체의 차원으로 확대한다면, 이런 길이 반드시 상대주의의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 또는 맥도웰처럼 이성의 공간과 자연의 공간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철폐하고 언어가 지닌 개념적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명하는 작업이 본 논문이 남겨 놓은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저서 및 논문>

- Baker, G. P. & Hacker, P. M., *Wittgenstein: Understanding and Meaning: Essays o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Blackwell Publishing Limited, 2004.
- Bransen, J, "Normativity as the Key to Objectivity: An Exploration of Robert Brandom's *Articulating Reasons*", in *Inquiry*, 45.
- Brandom, R. *The Tales of Mighty Dead: Historical Essays in the Metaphysics of Intention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 *Articulating Reasons: An Introduction to Inferenti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Making it Explicit: Reasoning, Representing, and Discursive Commit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 "Replies",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VII, No. 1, March 1997, pp. 189-204.
- "Expressing and Attributing Beliefs"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IV, No. 4, December, 1994.
- "Inference, Expression, and Induction" in *Philosophical Studies* 54, 1988.
- "Knowledge and Social Articulation of Space of Reasons."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V, No. 4, December, 1995.
- "Perception and Rational Constraint"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VIII, No. 2, June, 1988.
- "Unsuccessful Semantics" in *Analysis* 54, January, 1994.
- "Pagmatism, Pheomenalism, and Truth Talk" i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XII, 1987.
- "Insights and Blindspots of Reliabilism" in *Monist* Vol. 81, No. 3, 1998.
- "Freedom and Constraint by Norms" in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16, Number 3, July 1979.
- "Modality, Normativity and Intentionality"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XIII, No. 3, November, 2001.
- Collin, F. & Guldmann, F. *Meaning, Use and Truth: Introducing the Philosophy of Language*, Ashgate Publishing Ltd. 2005.

- Davis, M. *Meaning, Quantification, Necessity : Themes in Philosophical Logic*,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1
- Davidson, D. "Truth and Meaning(1967)" in *Inquiries into Truth & Interpreta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84,
- "Theories of Meaning and Learnable Languages(1965)"
- "In Defence of Convention T(1973)"
- "Thought and Talk(1975)"
- "Radical Interpretation(1973)"
- "Reality without Reference(1977)"
- "The Myth of the Subjective(1988)", in *Subjective, Intersubjective, Objective*, Clarendon Press Oxford, 2001. pp. 39-52.
- "A Coherence Theory of Truth and Knowledge(1983)"
- "Epistemology Externalized(1988)"
- Devitt, M. *Coming to Our Senses*, Cambridge Univ. Press, 1996.
- Devitt, M. & Sterelny, K., *Language & Reality: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nguage*, MIT Press, 1987.
- Dummett, M.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What does the Appeal to Use Do for the Theory of Meaning?" in *Meaning and Reference*, ed. A. W. Moore, Oxford Univ. Press, 1993, pp. 137-149.
- Evnine, S. *Donald Davidson*, Stanford Univ. Press, 1991.
- Fogelin, R. J. *Wittgenstein*,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7.
- Fodor, J. & Lepore, E. "Brandom's Burden: Compositionality and Inferentialism(2001)", in *The Compositional Papers*, Clarendon Press Oxford, 2002.
- "Why Meaning (Probably) Isn't Conceptual Role(1991)", in *The Compositional Papers*, Clarendon Press Oxford, 2002.
- Frege, G.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 translated by Austin, J. L. Basil Blackwell Publisher, 1980.
- "On Sense and Reference" in *Meaning and Reference*, ed. A. W. Moore, Oxford Univ. Press, 1993, pp. 23-43.
- Fultner, B. "Inferentialism and Communicative Action: Robust Conceptions of Intersubjectivity" in *Philosophical Studies*, 108, 2002, 121-131.
- Goldman, A. 'Reliabilism'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8, Routledge & Kegan Paul,

- London, 1998.
- Graham, P. J. "Brandom on Singular Terms" in *Philosophical Studies* 93, 1999.
- Grönert, P. "Brandom's Solution to the Objectivity Problem", in *Pragmatics & Cognition* 2005.
- Hinzen, W. "The Pragmatics of Inferential Content", in *Synthese* 128, 2001, pp. 157–181.
- Horwich, P. *Meaning*, Clarendon Press, 1998.
- Lance, M.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Commitment III: Brandomian Scorekeeping and Incompatibility" in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001.
- Long, J. "Who's a Pragmatist: Distinguishing Epistemic Pragmatism and Contextualism" in *Journal of Speculative Philosophy*, Vol. 16, No. 1, 2002.
- Lycan, W. *Philosophy of Language: A Contemporary Introduction*,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2001.
- McDowell, J. "Motivating Inferentialism : Comments on Making It Explicit Ch. 2", in *Pragmatics & Cognition* 2005.
- "Brandom on Representation and Inference",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VII, No. 1, March 1997.
- *Mind and World*, Harvard Univ. Press, 1996.
- Miller, A. *Philosophy of Language*, UCL Press, 1998.
- Millikan, R. G. "The Father, the Son, and the Daughter" in *Pragmatics & Cognition* 13:1, 2005.
- Platt, M. *Way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Language*,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79.
- Pears, D. *Wittgenstein*, Fontana/Collins, 1981.
- Penco, C. "Keeping Track of Individuals: Brandom's analysis of Kripke's puzzle and the content of belief" in *Pragmatics & Cognition* 13:1, 2005.
- Putnam, H. *Representation and Reality*, MIT Press, 1988.
- Quine, W. V. O. "Replies : to Davidson", in *Words and Objections*, ed. D. Davidson & J. Hintikka,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69, pp. 333–335.
- "Two Dogmas of Empiricism" i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vard Univ. Press, 1964.
- *Words and Objects*, MIT Press, 1960.
- Rorty, R. "Representation, Social Practice and Truth", in *Objectivity, Relativism, and Truth*, Cambridge Univ. Press, 1991, pp. 151–161.

- Rorty, R. with Ragg, E. P. "Worlds or Words Apart? The Consequences of Pragmatism for Literary Studies: An Interview with Richard Rorty," in *Philosophy and Literature* 2002, 26.
- Scharp, K. A. "Scorekeeping in a Defective Language Game" in *Pragmatics & Cognition* 13:1, 2005.
- Schiffer, S. *Remnants of Meaning*, The MIT Press, 1987.
- Sellars, W. *Empiricism and Philosophy of Mi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Inference and Meaning', in *Pure Pragmatics and Possible World*, ed. J. Sicha
- Shapiro, L. "Brandom on Normativity of Meaning"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XIII, No. 1, January, 2004.
-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lated by G. E. Anscombe, Basil Blackwell & Mott, Ltd, 1963.
-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lated by C. K. Ogden,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1.
- 요하네스 힐쉬베르거, 강영계 역, 『서양철학사』 하권, 이문출판사. 1987.
- 존 씨얼, 심철호 역, 『정신, 언어, 사회』, 해냄. 2000.

#### <국내저서 및 논문>

- 김기현, 『현대 인식론』, 민음사, 1998.
- 이병덕, <의미 전체론과 의미 불안정성 문제에 관하여>, 『논리 연구』, 7집 2호.
- <추론주의는 포도와 르포오의 비판들을 피할 수 있는가?>, 『철학적 분석』, 2005 겨울.
- <허구적 이름에 대한 밀주의 이론과 추론주의 의미론>, 『철학적 분석』, 2006 여름.
- <허구의 대상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철학적 분석』, 2006 겨울.
- "Two Approaches to Inferentialism", (not yet published).
- 이유선, <의미론에서 화용론으로 - 브랜덤의 추론주의에 나타난 표상 개념>, 『철학』 2000, 겨울.
- 이윤일, <더밋의 의미 이론> 『언어철학연구』 2권, 현암사, 1995.
- 엄정식, 『분석과 신비』, 서강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87.
- 『확실성의 추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84.
-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학』, 서광사, 1988.
- 『비트겐슈타인의 사상』,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3.
- <언어철학 : 그 과제와 쟁점> 『언어철학연구』 1권, 현암사, 1995.
- 정대현, 『맛음의 철학: 진리와 의미를 위하여』, 철학과 현실사, 1997.